

# MAXIM

KOREA

## EXPLOSIVE! NAVI

가수, 예능, 싱어송라이터,  
뮤지컬... 재능으로 숨기려  
해도 소용없어. 남자들은 처음  
부터 한 곳만 보고 있었거든.  
이런 나비 본 적 있나비?

## EVA LONGORIA

세계에서 제일 섹시한 남의 마누라,  
HOT 100 1위, MAXIM 커버만 3번째.  
“누나, 솔직히 방부제 먹었지?”

## SPIKE LEE

<올드보이> 말아먹은 할리우드 감독을  
MAXIM이 만났다. “왜 그랬어”

## GONNA MAKE YOU DO IT

- 개리류 섹드립 왜 먹히게?
- 원래 알던 여자 딱 3일 안에 후리는  
유형별 반전 매력 사용법
- 불타는 사랑 부르는 작업용 火酒 제조법
- 일본 여자를 사귀는 법

## 5 WAYS TO UNLOCK HER

2014년 2월호  
정가 5,900원

## SEX FOR LADIES

여성지에는 없는 남자사용법  
손목으로 유혹하는 기술 4가지

## MAXIM PARTY

2.14 FRI @SYNDROME  
그래, 초콜릿 말고 너  
VALENTINE'S DAY

## MISS MAXIM 2014 CONTEST START!

죽으면 썩어질 몸, 그만 망설이고  
지원하시지? 내년 되면 또 달라.



<별책 부록>

월드 오브 탱크와 함께하는  
2014 MAXIM  
CALENDAR



2014년 1, 2월 중 구매시 증정!  
2월호와 함께 꼭 받아주세요!

+ 책속 부록

가수 나비 특별 브로마이드  
심심풀이 추억의 '인생 게임' 주사위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 영웅의군단

LEGION OF HEROES



 Google play  store

오픈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yg.nexon.com](http://yg.nexon.com)

# KYOUNG REE

## 9MUSES



### 그녀들의 **색(色)**에 빠지다

삼국지PK 3인 3색 나인뮤지스의 경리, 세리, 현아를 만나다

나인뮤지스와  
아찔한  
플레이 한판



iOS

# SERA

## 9MUSES



나인뮤지스와의  
아찔한  
플레이 한판



Android

# HYUN A

## 9MUSES



나인뮤지스와의  
아찔한  
플레이 한판



iOS

삼국지  
三國志  
PK

9MUSES

나인뮤지스  
와  
아찔한  
플레이 한판



Android

# 삼국지 PK 색(色)깔 있는 오픈!

출시 하자마자 모바일 삼국지 게임 섭렵  
각종 마켓 순위 1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모바일 No.1 삼국지 게임**을 주목하라!

전략, 전술, 장수 육성 어우러진 삼국지 전략 시뮬레이션  
위태롭지만 뜨거웠던 삼국시대 그대로의 진정한 삼국지를 경험하세요



# 세계 그 이상의 감동, Royal Eternity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르 코리아 1688-8907

\*직영점(여의도) 02)783-8910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20-7559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엘가(대구점) 053)255-6940

\*면세점(롯데) 1688-3000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e-watch(명동점) 02)771-7033  
\*TM시계백화점(신도림) 02)2111-1120  
\*보보스와치(청주점) 043)235-1510  
\*휴얼리아(대구점) 053)428-2668

\*면세점(J T O) 064)780-7665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92  
\*NC백화점(불광점) 02)350-8979  
\*청우상사(종로점) 02)2272-2688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타임 21(청주점) 043)224-8851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롯데백화점(본점) 02)772-3908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NC백화점(노원점) 02)3399-8236  
\*와와치(강남점) 02)537-8977  
\*타임 21(광진점) 02)3424-0793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22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NC백화점(송파점) 02)2157-5213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타임 24(일산점) 031)931-5555  
\*메가와치(충주점) 043)957-9125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NC백화점(안산점) 031)8085-1708  
\*이초와치(홍대점) 02)323-0980  
\*롯데MALL(파주점) 031)960-2873  
\*골드캐니언(광주점) 062)714-1121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55



Swiss made  
Super luminova  
5030D Chronograph  
Unidirectional turning bezel

# MODERNO 301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4191
- \*NC백화점(고산점) 031)436-4279
- \*해피타임(윤산점) 02)2012-0625
- \*샤론(안양점) 031)463-9788
- \*파매(광주점) 062-383-9930
- \*조이필(포항점) 054)613-1170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 \*롯데백화점(선릉점) 051)730-3198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매신존(동대문) 02)3398-7527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골드룩(광주점) 062)410-0137
- \*모다(양산점) 055)911-7111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NC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타임갤러리(동대문) 02)3398-5528
- \*달타인(안산점) 031)413-7656
- \*롯데MALL(광주점) 062)606-2719
- \*롯데MALL(김해점) 055)900-2690
-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8-2140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NC백화점(의정부) 051)709-5741
- \*타임머신(동대문) 02)6388-2927
- \*뉴코아아울렛(부천점) 032)624-8337
- \*틱톡(군산점) 063)443-0090
- \*타임봄(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5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원타임(광산리) 02)2200-1355
- \*행개롱(부천점) 032)662-0886
- \*진보석(순천점) 061)725-3849
- \*엘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46
- \*신세계백화점(선릉점) 051)745-2297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원타임(노원점) 070)4136-5090
- \*타임퀵(인천점) 070)7516-4545
- \*엘가(구미점) 054)451-6940
- \*티아라(제주점) 064)745-3008

# Contents

February / 2014



## 116 Cover 나비

라이브 무대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가창력에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 OST, 그리고 라디오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걸출한 입담까지.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 말고도 무언가 더 있다. 남자라면 모두 아는 그 폭발적인 몸매와 청순 미모! 그동안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나비의 역대급 화보를 당신에게 선물한다.

BY 김희성 PHOTOGRAPH ZHO  
COOPERATION 게스인더베어(02-2164-5369)

# SYNDROME

infective fever

FEB · 14 · FRI



[ OPEN 10PM - 06AM | RSVP 010.8804.6621 ]

[ COVER BEFORE 12AM 10,000KRW | AFTER 12AM 30,000KRW ]

HOTEL SUNSHINE B1, SINSA-DONG GANGNAM-GU, SEOUL, SOUTH KOREA

H [WWW.CLUBSYNDROME.COM](http://WWW.CLUBSYNDROME.COM) N [CAFE.NAVER.COM/CLUBSYNDROME](http://CAFE.NAVER.COM/CLUBSYNDROME) f [FACEBOOK.COM/SYNDROMECLUB](http://FACEBOOK.COM/SYNDROMECLUB)

# Contents



112

## ICON 봉만대 감독

자타공인 '한국 에로 영화의 거장'인 이 남자.  
의외로 젠틀한 매너, 꽤 관참은 외모, 점잖은 말투를 가졌다.  
근데 인터뷰 내용은 왜 이렇게 아하죠?

서츠 DICKSON  
by 인터메조  
바지 AT.P.CO  
by 인터메조



6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62

### Circus Maximus

- 28 중국에서 섹스들이 불타나게 팔리는 이유
- 30 밸런타인데이엔 동물 고미 감상?  
병신 같은 밸런타인 이벤트
- 32 게임기, 손가락, 하이힐로 시람 죽이는 법
- 34 2014년판 MAXIM 뺑 주사위 인생 게임  
인생은 새옹지마란다.
- 36 할리우드 판 <올드 보이> 감독  
스파이크 리의 유언장
- 38 굽시니스트 카툰: 세기의 불륜!  
넬슨 제독♥해밀턴 부인

### How To

- 40 벌떼 특수염 붙이는 법
- 42 납 용광로에 안 아뜨게 손가락 넣는 법
- 44 계란말이보다 쉬운 이탈리아 계란 요리 프리타타  
만드는 법

### Comment

- 46 여자 흘리는 개리의 19금 가사
- 48 일본인 여친 만드는 화심의 비법서
- 49 월터의 상상은 정말로 현실이 됐을까?

### Game

- 51 시퍼런 섹시 이종(異種) 미녀, <엘로이> '이인'
- 52 모델돌 나인뮤지스가  
삼국시대를 평정한다. <삼국지 PK>
- 54 손가락으로 블록버스터급 과물을 조종하라!  
대량 학살 모바일 게임 4선
- 55 원사운드 카툰: 그 게임이 이렇게 바뀐 진짜 이유

### Sport

- 58 '캡틴 박'의 한국 대표팀 복귀, 왜들 난리일까?

### Sex

- 61 좀 놀아 본 여지도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최강 연애 기술, 빈진 매력의 모든 것!
- 64 Skills for Ladies:  
남자는 당신의 손목을 보고 흥분한다.

### Smoke&Drink

- 70 밸런타인데이 맥주: 발렌티스 헤페바이스
- 71 그녀의 마음 불타게 만들 칵테일 불쇼 하는 법
- 72 이리다 진짜 죽겠네, 하드코어 금연법

### Stuff

- 82 우왕 신기해! 조립식 미래형  
DIY PC! '크리스틴 프로젝트'
- 84 뭔가 있어 보이는 멋진 만년필 8종
- 86 이런 게 진짜 필요한가 싶지만 막상 보면 갖고  
싶은 아이디어 캠핑용품 8가지
- 88 눈 덮인 산에서 빛을 발하는 궁극의 스포츠 기어

### Style

- 91 없는 여친 납치라도 해와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멋진 커플 시계들
- 92 당신을 우사인 볼트로 만들어 줄 런닝화

## Info.

**RSVP** 010-9839-0529

**Cover** Before 12am

10,000won /

After 12am 30,000won

**Location Club** Syndrome,  
Hotel Sunshine B1. Sinsa-  
dong Gangnam-gu, Seoul,  
South Korea

## DJs

S2 / HOON / 4PLAY  
/ FENNER / HYDE /  
BAGAGEE=VIPHEX13  
/ SCHEDULE1 /  
JUNCOCO / MAXIMITE  
/ BIG BAD NOSE /  
DR.GO / EQUINOXE /  
JUN / REIGN / SOO /  
EAR DRUM

**Dress Code**

Pink & White

the  
**MAXIM Party**  
**VALENTINE'S DAY**  
with  
**FICHIMORI & d**

**NO MINOR ALLOWANCE**

여기 초콜릿 먹는 곳 아니야. 어린이는 집에서 기다리길.

2014.02.14.FRIDAY PM 10:00 OPEN AT CLUB SYNDROME More Information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

[WWW.CLUBSYNDROME.COM](http://WWW.CLUBSYNDROME.COM) | [CAFE.NAVER.COM/CLUBSYNDROME](http://CAFE.NAVER.COM/CLUBSYNDROME) | [SYNDROMECLUB](http://SYNDROMECLUB)

# Contents



## 122 Eva Longoria

인기 미드 <위기의 주부들>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에바 롱고리아가 오랜만에 섹시함의 정수를 몸소 보여주었다. MAXIM과의 첫 만남 이후 9년이 흘렀지만 사람을 홀리는 매력은 여전하다. 혹시 뱀파이어?



### Motor

- 96 슈퍼카 중의 슈퍼카, 애스턴 마틴 V12 밴티지 S 시승기
- 98 푸조가 만든 슈퍼카 '오닉스', 이래도 푸조가 만만해 보여?
- 102 MAXIM 시승기: 아쉬울까? 신사일까? 아누스 같은 SUV '지프 그랜드 체로키'

### MAXIM판 체험! 삶의 현장: 김장편

- 106 편집장 등쌀에 떠밀려 이번엔 김장 하러 김치 공장에 간 에디터, 김장 노하우를 배워오다, 이걸 어따 써먹지? 여자한테 김치라도 담가줘?

### Music

- 126 유쾌함을 전파하는 세 남자, 신개념 힙합 트리오 '리듬파워'

### Lingerie Expert

- 130 그녀의 란제리를 능숙하게 벗기는 5가지 스킬

### Military

- 136 끝나지 않는 대결 논쟁 '니랑 내랑 누가 더 셀까?' 밀리터리 ver.

### From Maxim US

- 140 미드 <블랙 세일즈>의 섹시한 해적 매춘부 제시카 파커 케네디가 들려주는 여자랑 한 이야기

### 눈싸움의 정석

- 164 전국 눈싸움 대회(진짜 이런 게 있어)에 다녀온 에디터가 눈싸움의 비법을 캐왔다. 다들 눈 같아.

### Miss Maxim Contest

- 150 새해 첫 MISS MAXIM들과의 뜨거운 첫 인사

### Law & Order

- 154 인터넷 성매매, 무조건 걸린다! 파가랑신의 뜻을 피하라!

### Hottest Girl in US

- 158 미국판 미스맥심 콘테스트인 '훤타운 히티스' 우승자가 탄생했다! 미국 맥심 독자들이 꼽은 최고의 미녀를 만나보자. 이뿐만 끈 란제리는 덤.

### 수능 필살 신공

- 162 대입 수시 전형의 비밀: 합격의 기준은 따로 있었다.

### The Maxim Party

- 166 지상에서 허락하는 모든 종류의 유희를 만끽했던 끈적한 MAXIM 크리스마스 PARTY. 발칙한 산타녀들은 여기 다 있었다.

### Unpicked

- 174 이달 편집부가 선별한 '몸술 사진 퍼레이드'

# 조제 알도 페더급 챔피언전

23  
WINS

13  
WINS

14  
KO

4  
KO

# UFC 169 올스타 퍼레이드

2월 2일(일) 오전 11시 30분 **SUPER ACTION** 독점 생중계



밴텀급 챔피언전

유라이어 페이버 vs 헤난 바라오



헤비급 빅매치

프랭크 미어 vs 알리스타 오브레임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AXIM**  
KOREA

#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티어점 02454-8400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직영매장 모엔트 롯데백화점 02772-3181 / 롯데잠실점 022143-1920 / 롯데청량리점 02 3707-1179 / 롯데명동점 0319098-9232 / 롯데대전점 0421801-2109 / 롯데대구점 053168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울산점 0521960-4533 / 롯데아울렛사율역점 0218966-2637 / 현대브점 023438-6093 / 현대근덕점 031822-2929 / 현대충정점 043909-4148 / 신세계인천점(1월말오르) / AK원주점 0331811-5525 / 갤러리아진주점 053791-1170 • 연세빌 롯데 / 신라 / 워커힐 / 동화 / 신세계 / JDC / JTO / KTO / 그랜드 •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위재(771-7033) 홍로 타임존(737-3627) / 노들위지(745-8789) / 경신사(741-9678) / 정우상사(2272-2688) 용매문 패션존(3398-7527)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6299-7168) 구로 시계백화점(211-1120) / 타임타임(2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868-0871) 광진 TM타임(3424-7073) 성북 해시계(2117-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인천(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8-0894) / 북목(6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연타임(707-1298) 수원 AK프라자(240-2198) / 태어블리(201-7100) / 지지컬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6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불랑(245-7985) / 타이머빌(919-4704) 부산진구 플라이(022-2068) / 프로그프(919-6573) / 등항시(644-5551) 울산(052) 금브당(98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유얼리아(428-2668) / 바젤(425-8707) / 동이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델가(255-6940) / 쟈마(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사(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85-2410) 프랑 조이필(613-1170) / 유얼리(244-8172) / 타임피아(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광사(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옥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연비(255-6292) / 세이브즈(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알파오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치타임(622-8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88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브무(225-0175) / 현대제일시(515-7172) / 시계명가(228-2251) / 골드룩(410-0137) / 티티(222-3114) 전북(063) 서광당(289-2590) / 권두(285-7596) 제주(064) 순금사(758-1717)

Bekaf Bell



Butterfly on your wrist



베카벨 | www.bekabell.co.kr | 02.3397.7100  
(주)가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 하이월 (02-2136-9743)  
[판매점]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051-678-4191) / 대구백화점 (053-422-3191)  
친월사(02-745-0333) / 타임머신(02-6388-2927)  
사문주일리(031-463-9788) / 황기동(032-662-0686)  
[면세점] 제주 중문면세점 (064-780-7671)



가노코퍼레이션 공식 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 MAXIM

www.maximkorea.net

## 편집장 이영비

###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팀장  
김소윤 사원  
영상 에디터 김상수 사원

### 편집 2팀

에디터 조웅재 주임/팀장  
박정욱 사원  
디자이너 김려은 인턴

### 편집 3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팀장  
뷰티 에디터 장혜민 사원  
디자이너 이상윤 인턴

###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팀장  
에디터 김진욱 과장  
정재식 사원

### 각원 에디터

격투 전문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즈> 기자 김덕중  
<마이데일리> 스포츠팀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기자 김민석  
카툰 작가 공시니스트  
카툰 작가 onesound  
번역사 Felix Lee  
핀드매니저 Fred Kim

### 교열 신선경

###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과

재무 회계 최인영 과장/팀장  
유통 안재만 사원  
정광석 인턴  
비서 정석영 사원  
법무 방인식 대리

### Marketing / 마케팅과

김진욱 과장/팀장  
홍보 마케팅 정재식 사원  
광고 마케팅 박상준 매니저

### Web & Mobile Service / 웹·모바일

토크 이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 Photography / 사진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김도훈 팀장

### Circulation / 유통

송주승판유통 이응관 대표

### Printing / 인쇄·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 MAXIM Contact

독자 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partner@maximkorea.net  
광고 문의 / 사업 제휴 TEL. 070-4010-8994  
정기 구독 / 대량 구매 joy@maximkorea.net  
TEL. 02-323-1182

MAXIM에 귀사의 브랜드 및 이벤트, 인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편집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취재 문의 및 화보, 협찬: press@maximkorea.net / 영화,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22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4년 2월호 통권 제46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PRESIDENT: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USTRALIA**  
Santi Pintado  
**AUSTRIA**  
Boris Etter  
**BULGARIA**  
Hristo Zapryanov

**CZECH REPUBLIC**  
Jan Stepanek  
**GERMANY**  
Boris Etter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ITALY**  
Paolo Gelm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Dragan Otašević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urawong Krueafan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4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nworld@maxim.com

# 전 세계 7천 8백만의 선택!



  
**WORLD OF TANKS**

인터넷 검색창에서 **월드 오브 탱크**를 검색하세요 ▼



# Letter From MAXIM

## 심장이 벌렁벌렁

물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정인영 아나운서 표지를 장식한 지난 1월호가 완전 매진됐다. 회사 내에서도 한 명 당 딱 한 권씩만 지급된 초 레어템이 됐다. 평소엔 손님이 오면 책꽂이에서 두어 권씩 꺼내주곤 했는데 말이다. 창간 이후 두 번째 완판이었다. 정인영 아나운서에게 '완판녀'라는 새 별명이 생길만큼 언론사들은 이 소식을 앞 다투어 보도했다. 게다가 '그러면 맥심 첫 번째 완판녀는 누구?'라는 뉴스까지 쏟아지며 최초로 완판된 2012년 5월호마저 덩달아 화제를 모았다. 독자들도 기억할 거다. 인쇄 직전 갑작스레 표지 화보가 얹어지면서 급한 김에 우리 김희성 에디터가 뒤태로 땀땀했던 문제의 그 5월호 말이다. 2014년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시작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두 번이나 완판의 영광을 안겨준 독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충성을 맹세한다. 그 덕분일까? 이번 2014 MAXIM 정기 공채는 선발 직군 자체가 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200:1을 넘어서, 작년보다 더 치열해졌다. 2월호 발행 다음날인 1월 25일은 공채의 2차 관문인 필기시험날이다. 이번 공채 준비는 2월호 마감과 딱 겹쳐서 유난히 힘들었다. 자소서 채점, 시험 문제 출제 및 검수를 마감 작업과 동시에 진행해야 했으니까. 비타민, 우루사, 아로나민 골드 삼합을 차례로 입에 넣고, 물 대신 레드불을 마시며 눈에 힘을 쥐 본다. 나비의 노래 가사 '나 오늘 집에 안 갈래'가 열흘 넘게 현실이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각은 새벽 6시 30분, 집에 며칠 동안이나 못 들어간 우리의 '원조 MAXIM 완판녀'는 지금 부스스한 상태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아직 못 자고 있는 거다. 다들 마친가지다. 평소엔 나름 훈남미녀 집단인 편집부인데, 지금보니 남자들은 하나같이

<올드보이> 최민식이요, 여자들은 <마더>의 김혜자다. 곧 마감의 끝이 끝나면 쉬지도 못하고 필기시험 채점에 돌입해야겠지? 제길..

잡지사로는 유일하게 매년 거르지 않고 대규모 신입 공채를 실시하는 우리를 보고 '오바'한다고 비아냥대는 시선도 있다. MAXIM이 5년 전 처음 신입 정기 공채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하다. 인맥으로 사람을 뽑거나, 업계에서 잘 아는 경력직을 데려오는 것이 관례화 되어버린 잡지판에서, 매거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인맥이나 연줄, 경력 없이도 누구나 신입으로 잡지사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공채를 시작한 취지였다.

사실, 신입 공채를 하면 돈도 많이 들거니와, 많은 사람이 온전히 이 일에 매달려야 한다. 게다가 업무가 미숙한 신입들을 선배가 교육하는 데도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신입 사원 정기 공채는 비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피곤한 과정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후배 받아서 부러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시키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다). 바로 지금의 우리 자신도 한때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잡지일을 너무 하고 싶지만 인맥도 연줄도 없어 MAXIM 공채에 지원하고, 입사한 후에는 선배의 큰 짐덩어리가 된 못난 인턴이었기 때문이다.

1년에 한 번, 공채는 예전의 자신을 만나고, 초심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매년 반복해도 역시나 또 설레인다. 그리고, 그 중엔 이름 모를 새 MAXIM 식구가 분명히 있을 테니 말이다.

필기시험? 버락치기, 킨닝 다 소용 없으니 포기하고 잠이나 한 시간 더 주무시길.

2014년 2월 편집장

이영희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내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롯데센텀점(부산점) 051-730-3198
N C백화점(아담점) 031-780-3114	N C백화점(해운대) 051-705-5737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3108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노블리(일산점) 031-961-6795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11	2001아울렛(중계점) 02-3399-8236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8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행끼통(부천점) 032-662-0686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TIME 21(강변점) 02-3424-1210	타임루트(안산점) 031-413-7656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타임봄(부산점) 070-7530-1219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더타임진주점 055-741-3072

# Letters

칠룩 같은 밤하늘에 떠 있는 정월 대보름처럼  
당신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MAXIM 고민 상담소!

페이스북  
MAXIM  
페이지  
방문하기



## 그것이 하고 싶다

1년에 한두 번 집사람을 만나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섹스를 안 한 지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하게도 연례행사처럼 해야 하는 섹스를 아내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돈 내고 섹스하고 온다고 협박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며 미동도 없네요. 애 둘 낳고 난 뒤로는 별로 섹스하고 싶단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어떻게 해야 아내가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러기 아빠, 모바일 사연>



**편집장** ➔ 목석 같은 아내를 달아오르게 하는 건 기원전부터 풀리지 않는 남편의 주요 과제일세.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열게 하는 스킨십일세. 자세한 건 2013년 12월호 118페이지의 '스킨십의 심리학' 편을 참고하길 바라네. 참고하는 김에 2014년 1월호 58페이지 '여자가 하고 싶을 때' 섹스 칼럼도 세트로 탐독하시게. 뭐... 과월호 몇 권 더 필러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뻘이 생긴다는 거지.

### 바람이 분다

직장 3년 차 은행원입니다. 요즘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 중입니다. 한 여자는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제 옆을 지켜준 조강지처 같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성격과 미모를 겸비한 제 이상형이고요. 둘 다 놓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욕심쟁이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대 바람,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 이 사연을 읽고 옆에서 조웅재 에디터가 그러네요. 자기도 "옛날에 조강지처 버리고 전효성 님은 썸녀 만났다가 그 X이 바람나는 바람에 새된 적 있다"고요(그나저나 이 얘기 지금까지 정확히 13번 들은 것 같네). 어떤 여자를 택하든 선택은 독자의 몫이지만, 유경현씨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양다리 걸리기 전에 하루빨리 아름다운 이별로 이미지 메이킹하시길.

### 핫도그가 번데기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입니다. 요즘 제 고추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다행이라면 참 좋으려만, 아무래도 너무 안 써서 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가 아니라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다시 커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 고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고자라니, 이메일 사연>



니 고추야!



**에디터 조웅재** ➔ 모든 생물의 신체 부위는 쓰지 않으면 약화하거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꼬리뼈가 그 유일한 증거였으나, 이제 독자의 고추가 인류 퇴화의 두 번째 증거로 남겠군요. 일본의 복해도 원주민 '아이누' 측은 음경 강화를 위해 고추에 작은 쇠덩이를 매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바지를 입고 다니는 우리 사회의 관습상, 쇠덩이를 매달 순 없으니 벨트 대신 허리에 감고 다니는 건 어떨까요? 익숙해지고 나면 저처럼 뿔뿔 대용으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 MAXIM 페이스북 댓글 대화록

당신도 와서 한 마디 거뒀.

>> 세대차이 확 느껴질만한 말을 해보자



**HeeSeong Kim**  
"오늘 OHP 당번이 누구냐?"  
-에디터 화성-



**최지혁** 버디꼭지주세요  
아유:ㅏ없따윈\*



**이재호** 엄마 나  
자연농원가고싶어ㅠㅠ



**박정규** 대체 거북일과  
콘들은 무슨 상관인지가  
지금도 궁금하다.



**이영비** 부팅 디스켓 좀  
빌려줘

>> 후배위하는 선배(띄어쓰기는 알아서)



**유승민** 며칠째 집에도  
못가고 낱밤 까고 있는  
편집부 후배들아 힘들지?  
아직 시발 새벽 3시 반밖에  
안됐잖아~ 이거 미치고  
존나 일해 -에디터 유승민-



**Ds Kang** 아. 후배들은 참  
쫄았다. ㅎㅎ



**HeeSeong Kim** 선배가  
갑자기 이런 것들을  
사오시면 저희는 잘 수가  
없...

➔ MAXIM KOREA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maximkorea](http://www.facebook.com/maximkorea)



**"BETTER SWEET THAN SORRY!"**



9FIFTY BITTER SWEET  
GUMMY BEAR\_BLACK/MULTI



59FIFTY BITTER SWEET  
GUMMY BEAR\_MULTY



9FIFTY BITTER SWEET  
GUMMY BLACK/MULTI



59FIFTY BITTER SWEET  
GUMMY\_MULTY



독자 사연  
투척!



##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고민이 되네요. 김희성 에디터님과 손안나 에디터님의 친필 사인을 받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뜸 회사 찾아가서 사인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나요? 그러다 쫓겨나는 건 아닐지... 하지만 너무나 무겁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상준, 모바일 사연>



코팅 하러 가야지!

## 한량으로 살고 싶어

스무 살부터 독립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강한 남성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 어느 정도 부러움을 살만한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서도 더 큰 야망과 욕심에 도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엄청난 피로와 절제가 수반된다는 거죠. 언제쯤 만족하고 한량같이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장유연, 모바일 사연>



황진이 1집 좀 스트리밍 해 봐.

에디터 김희성 ➡ 이 사연을 접한 조웅재 에디터가 대신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2014. 1. 20  
늘 행복하세요! 준비  
중이라 그래!

에디터 조웅재 ➡ 왜? 내 건 더럽냐?!

에디터 유승민 ➡ 올리버 스톤 감독의 2010년 영화 <월스트리트: 머니 내버 슬립스>엔 이런 장면이 있죠. 주인공 제이콥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망하게 한 탐욕스런 속적 회사의 사장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What is your number?" 얼마를 벌면 이 짓을 멈출 거냐고 말이죠. 그 사람이 답합니다. "More(더 많이)." 한량같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지는 '언제, 어디쯤, 얼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More'를 포기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생각해볼시길(아, 오랜만에 그럴싸한 애길 했더니 입에 경련이 일어나네).

## 궁금해요, MAXIM!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더 헛갈리게 해드릴게.



편 몰랐네?

**Q.** 늑대인간은 왜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신하나요? 혹시 그는 보름달을 보며 늑대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이라도 비는 걸까요?

**A.** 흔히 보름달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치광이를 뜻하는 루나틱(lunatic)의 어원도 달(moon)에서 나온 것이죠. 보름달을 보면 사람이 미치는 원인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달의 인력이 최대칠 때 동식물의 혈압과 각종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며 그 영향으로 가벼운 흥분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이 호떡 같이 생겨서 사람들이 먹고 싶어 미친다는 설이 있죠.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에서 박용우는 보름달이 뜬 날 유부녀 한재영을 꼬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미친 짓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날엔 100% 보름달이 뜬 날 밤이예요. 흥분이고 자시고 보름달이 뜨면 여자나 꼬시러 가세요.

**Q.** 방귀를 뀌면서 동시에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 "에취!" 하며 재채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아쉽게도 방귀와 기침, 그리고 재채기의 콜라보레이션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볼티모어 메디컬 센터의 마크 레비 박사가 말한 바로는 재채기와 기침은 같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귀, 기침, 재채기의 스프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을 치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도 말을 칠 때와 연필을 잡을 때, 같은 근육인 팔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는 독자를 위한 기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쓰이는 근육은 뱃속의 압력을 높여 방귀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셋 중에 두 개라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 독자 사연 응모

### ▶우편 접수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7가길 22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사연이 실린 독자 모두에게 주는 이달의 독자 선물

사연이 잡지에 실린 독자 모두에게 다음의 선물을 랜덤으로 배송해 준다!

### 랩시리즈 멀티-액션 웨이스 워시

건조한 겨울, 입 주변에 버짐이 허영게 퍼서 마치 침 흘리고 잔 것 같다고? 그렇다고 얼굴을 안 씻을 수도 없는 노릇! 랩 시리즈 멀티-액션 웨이스 워시는 모공까지 씻겨주지만, 수분은 촉촉하게 지켜주는 녀석이다.



###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살날에 딱딱 먹고 한 살 더 먹었더니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나?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강제로 나이를 먹게 하는 독극물 같은 딱딱 녀석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세안 후 얼굴에 얇게 펴바를 것.



### MAXIM 여성용 V넥 티셔츠

요즘 같은 추운 겨울, 간지 좀 내려면 MAXIM V넥 티셔츠에 패딩만 입자. 그리고 실내에 들어섰을 때 패딩을 딱 벗으면 남자들의 시선이 딱! 꽃힐 거다.



# ARABUTUS®

New York



## Real Automatic Watch what you want

Automatic 시계의 새로운 A/S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보증기간 내 원천 무상교체" 부품 수리가 아닌 새 부품으로 무상교체 해 드리겠습니다.

AR609RWF  
 PARK AVE.  
 COLLECTION

공식수입처: 글로벌타임 Tel 02.778.1590 www.globaltime.co.kr

서울 노원 워치록 070-4136-5090	두타 타임갤러리 02-3398-5528	안양1번가 시계상자 031-441-0158	인천 부평 타임런 070-7516-4545	제주 한림읍 부띠 010-9083-5706
신촌 이타임월드 02-313-4108	신도림 타임타임 02-2111-1141	안양1번가 샤론 031-463-9788	충남 대천 대천마켓 041-935-4994	제주도 티아라 064-745-3008
종로구 전진상사 02-764-4716	기료수길 블랙브라운 1588-6768	일산 웨스틴돔 타임24 031-931-5300	청주 복외치 043-223-1333	대구 열가 053-255-6940
테크노마트 타임21 02-3424-7063	수원AK 031-240-2277	인천 구월동 워치보이 070-8632-5300	부산 광복동 명성시계 051-253-5356	신세계 인천점 타임마켓 032-430-1486



U.K. USA Germany Australia U.A.E Japan Taiwan Hong Kong China Korea Malaysia Singapore Thailand Indonesia Philippines

# Dear. Readers



## 가수 나비의 독자 고민 상담

노래도, 입담도, 몸매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 나비가 당신의 고민을 들어준다.

슬립 게스언더웨어

**Q.** 스스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여자를 많이 못 사귀어봤습니다. 여자 많고 바람둥이 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말이죠. 벌써 서른인데, 이리다 평생 혼자 살면 어쩌죠? <나에라나쁜계집, 이메일 사연>

**A.** 저도 제 남자 친구가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운동 선수에 여자가 많다는 편견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자 친구가 진심을 보여주니 믿게 되더라고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못생겨지게 성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설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Q.** 세상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귀여운 여동생에게 27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동생은 헤어질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헤어지게 하죠? <은비까비, 이메일 사연>

**A.** 사랑에 빠지면 머리술이 없고 배가 나와도 사랑스러운 법. 오히려서 물론 걱정이 되겠지만, 본인 사랑부터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본인은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남자인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술잔을 나누면서 공부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해주시면 어떨까요?

**Q.** 직장 동료가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서 온 카톡만 봐도 너무 설렙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랑일까요? <HONG, 이메일 사연>

**A.** 카톡을 받고 설렌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외로웠기 때문에 생긴 감정일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가가세요. 군인은 치마만 둘러도 예뻐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일단 여자를 많이 만나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혼도 잘 한대요!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야  
[www.couple2ya.com](http://www.couple2ya.com)

검색창에 **커플이야** 를 검색해 보세요.

# Dear. Readers

## 봉만대 감독의 독자 고민 상담

솔직하고 유쾌한 영화감독 봉만대가 MAXIM 독자들의 영화 같은 사연을 해결해준다.



뭐야 이거 안 아하잖아.

베스트 커스텀멜로우  
셔츠 브라운브레스  
비지 제로언더스코어

**Q.** 여자 친구와 마취제가 들어있는 콘돔을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안 쓰기엔 매우 불만족스럽고, 쓰자니 너무 지루남이 되어버리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구생자루님, 모바일 사연>

**A.** 모름지기 훌륭한 남자라면 연장 탓을 하지 않는 법! 남자로 태어난 게 죄스럽네요. 마취제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항정신성의약품, 이런 거 안 돼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야지. 무작정 길게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남자입니다. 도구 같은 것 좀 쓰지 말고!

**Q.** 저는 여자 친구가 있지만,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저 권태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 봐야 하나요? <사골총각, 모바일 사연>

**A.** 여자의 경우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성에겐 몸의 어떤 리듬(?)이 있거든요. 많은 여성이 이유도 없이 섹스를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같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섹스가 안 땡길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여자 생각하지 말고, 시간과 사랑으로 극복하시길.

**Q.**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유부남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엄청나게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유부남 스타일로 추리닝과 패딩을 입으면 또 안 꾸민다고 싫어하네요. 이거 정말 환장하겠어요. <임경찬, 모바일 사연>

**A.** 해줄 말이 별로 없네요. 제 와이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건, 모든 여성은 남편이 본인과 있을 때는 멋있게, 떨어져 있을 땐 촌스럽게 보였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자기 남자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주는 대로 입으세요, 여자 말 좀 들읍시다. 남성 여러분!

creative partners



덴마크 한국 수교 55주년  
55 Years of Danish-Korean Relations

# PURE SCANDINAVIAN STYLE



EIGHT IQ62Q915



대니시디자인 | (주)커노코퍼레이션 [www.konocorp.com](http://www.konocorp.com) | [www.danishdesign.co.kr](http://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me.kr](http://www.euro.me.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02-944-2130) / 대구백화점 프라자(053-253-7133) / 하이힐(02-2136-9743) [면세점] 제주 중문면세점(064-780-7671)  
[판매처] 세이렌화식 대전(042-257-7745) 서울(02) 이원치 병동(771-7033) / 타임머신(6388-2927) / 퍼션존(3398-7527) / 밀타임(2200-1355) / 타임21(3424-7063) / 타임월드(3132-4108)  
경기(031) 시계상차(441-0158) / 서문주얼리(463-9788) / 유엔(668-6883) / 타임루브(87-9057) / 타임24(331-5300) 경기(032) 대상(325-7467) / 뽕개동(662-0686) / 타임엔(604-8245)  
충주(043) 타임21(224-8851) / 북원재(223-1333) 광주(062) 타임앤필름(222-3114) 대구(053) 광주나라(256-0975) / 골드&워치(424-4442) / 러프(425-0157) / 스위스(639-5252)  
신세계몰스퀘어(666-3318) / 주얼리0(428-2688) / 데렉프라자(254-3977) / 세디타임(428-3066) 부산(051) 명성시계 광복(253-5315) / 명성시계 남포(253-5334) / 명성시계 서면(667-7356) / 명성시계 신창(253-5354) / 월드컵(245-8359)

**얼마나 섹시할까... '맥심' 정인영 아나운서**  
한편 정인영 아나운서는 최근 '맥심' 표지에서 가슴선이 정인영 아나운서가 표지를 장식한 이번 '맥심'은 말행부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아나운서 정인영 표지모델 남성잡지 '맥심' '폭절'**  
한때 포토샵 물매 보정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화보 촬영이 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진에 조금의 왜곡도 없다는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정인영 아나, 환상 콜라보 몸매 '맥심' 폭절만**  
맥심 완판 정인영 아나운서 S라인 몸매 '맥심' 완판 정인영 아나운서의 완벽한 S라인 몸매가 화제다.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속구여신' 정인영, 맥심**  
맥심 관계자는 10일 '정인영' 부분에서 폭절했다. 이번 맥심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

**정인영 아나운서, 맥심**  
10일 남성잡지 맥심은 '정인영'과 오프라인 대형 서점 판매량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

## 이달의 MAXIM 핫 뉴스 3



이참에 정기 구독 신청 해!

### 1 정인영 아나운서 표지의 2014년 1월호 완판!

미모의 정인영 아나운서가 MAXIM에 강림하여, 그 월호는 없어서 못 파는 레어템이 되었다네. 맥심 완판녀로 등극한 정인영의 이름이 각종 포탈 사이트를 점령하며, 2012년 5월호에서 빵꾸 난 표지를 자신의 뒤탄으로 매워 잡지를 품절시킨 김희성 에디터도 덩달아 이슈가 됐다. 연초부터 아주 훈훈한 소식이다.

### 2 MAXIM KOREA 유튜브 채널 조회수 4천만 돌파 임박!



자연에 다 못 실은 그녀들의 풍만함을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일리고자 우리 동영상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최근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MISS MAXIM

우승자 김소희의 화보 촬영 영상. 섹시한 모델부터 에디터들의 바보짓 영상까지 모두 보고 싶다면

MAXIM 유튜브 채널을 구독할 것  
youtube.com/  
TheMaximkorea

MAXIM  
유튜브  
채널로  
Go!



### 3 축! MAXIM 페이스북 페이지 38일 만에 '좋아요' 6,000 돌파



친구수 제한(5천)이 없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방울 옮긴 MAXIM 에디터들. 그동안 써온 계정을 사랑해준 5,000명의 페친을 잃은 어머니 걱정만

것도 잠시! 페북 페이지로 이사한 지 한 달 반 만에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이제 친구 제한 따위 없으니 많이 눌러 오라고! 아주 겁나게 잘해드릴게.

스캔하라,  
열릴 것이다



### MAXIM 섭외 요청 게시판

혼자만 알고 있거까운 환상적인 몸매의 소유자가 있나? 지금 당장 MAXIM 홈페이지의 섭외 요청 게시판으로 달려가 모델을 추천하자. 이번 호에는 시원한 가청력만큼이나 폭발적인 출렁임을 보유한 가수 나비를 섭외해 표지를 장식했다 (p.116). 그녀 외에도 서유리, 강예빈, 도희, 정인영 등의 스타가 독자의 추천을 통해 MAXIM에 등장했다!



모델 추천하기



### 2014 MISS MAXIM CONTEST: START!

2010 최혜연, 2011 이명희, 2012 단영, 2013 김소희. 그녀들의 뒤를 이을 2014 최고의 섹시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대결의 막은 이미 올랐다. 16강을 향한 토너먼트를 통해 올해 첫 본선 진출자 두 명이 결정되어 MAXIM 스튜디오에서 진검승부를 펼쳤다. 뉴 페이스 정주연, 선현이와의 첫인사는 150페이지에서 나누도록! 본선을 향한 대결은 지금도 뜨겁게 진행 중. MAXIM 홈페이지 첫 화면의 오른쪽 배너에서 콘텐츠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섹시녀 중 더 끌리는 사람에게 투표해라. 당신의 한 표가 대결의 판도를 좌우한다.



당신의 선택은?



### MAXIM Online Survey

관계를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여자는?



여보 바람 좀 넣어줘.

1위 반응이 없는 여자 (802표, 44.9%)

2위 관계에 집중 안 하고 다른 짓 하는 여자 (567표, 31.7%)

3위 계속 전화만 해달라고 하는 여자 (62표, 3.5%)

4위 먼저 입으로 해달라고 하는 여자 (51표, 2.9%)

총 투표자: 1,788명

투표 기간: 2014년 1월 10일~ 진행 중

설문 조사 바로 가기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남자들은 '반응이 없는 여자'랑 관계를 하는 걸 가장 싫어했다. 그래, 반응 없는 여자랑 하느니 차라리 인형이랑 할란다. MAXIM 홈페이지에서는 이 외에도 연예, 게임, 스포츠, 여행 등 세상 모든 주제에 관한 유쾌하고 골때리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 SUPERSTARI

슈퍼스타아이

**365** on  
SALE

하루 하루 바뀌는  
유행과 스타일에  
지친 남자들 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옷을 위한 공간

[www.superstari.co.kr](http://www.superstari.co.kr)

맥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10% 할인혜택

**E1DD-F159-881D-E82E**

슈퍼스타아이 홈페이지 방문 후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상품 이용가능합니다.



#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 Sex Made in China



그리고 도구에 눈을 뜬 대륙인.

BY 손안나



중국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동관 시의 한 공장. 인형 몸통이 산처럼 쌓여 있다. 실제 사람만 한 크기에 핑크빛 피부색, 라인이 살아 있는 엉덩이... 그렇다. 이 인형들은 남성의 자위행위를 돕기 위해 고안한 섹스돌이다. 이 공장의 남자 직원들이 온종일 앉아서 이 섹스돌에 생명, 아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가격은 100위안, 우리 돈으로 1만 7,000원 정도면 누구나 이 섹스돌을 품을 수 있다.

마오쩌둥 시대만 해도 중국에선 섹스라는 단어조차 함부로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늦게 배운 도덕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문화 개방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의 70%를 책임지는 넘버원 성인용품 생산국이다. 성인용품 산업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돈벌이가 되는 비즈니스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20만 점포의 성인용품점이 연간 15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어느 도시를 가든 조금만 으스스한 골목길에 들어서면 자위용 기구들을 파는 상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열린 광저우 '섹스 박람회'에는 관람객이 한꺼번에 들리는 바람에 성인용품 부스 유리 진열장이 와장창 깨지는 소동도 있었다. 문화 개방과 함께 신세계를 맞본 중국인의 도구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품질 면에서 여전히 해외 상품보다 뒤떨어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현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까지 나서서 중국 성인용품의 고품질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성인용품 시장이 호황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에 있다. 중국에선 매년 1억 5,000만 명 이상의 농촌 총각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경제가 발전한 도시 지역으로 떠나온다. 이들 대다수는 20~30대의 월기 왕성한 젊은이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고 미래는 불안정하다. 한 번의 '썩(!)'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간 여자와의 현실 교배는 이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위인 것. 이것이 현재 중국에서 섹스돌이 불티나게 팔리는 씁쓸한 이유다. ☹



# aximus



IMAGE 연합뉴스

대륙의  
섹스 박물관  
구경하기





필 아피, 대충 하고 싸.

우끼끼끼끼끼!!!!!!!!!!!!!!

### 밸런타인데이 개황당 이벤트

평생 잊지 못할 밸런타인데이를 만들기 위한 병신 같은 이벤트들. 애쓰다 애써. BY 김소윤

관전도 나쁘지 않네.



#### 1 에로틱 사파리

2009년, 미국 미시간 주에 위치한 바인더 파크 동물원에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동물의 원초적 사랑을 적극 활용해 매우 창의적인 이벤트를 열었다. 2월 14일에 동물원을 방문하는 성인 커플에게 동물들의 교미 장면을 단돈 50달러에 생라이브로 보여주는, 바로 '주르티카 투어(Zoorotica Tour)!' 동물 보호 단체가 일면 노발대발할 이 남사스러운 행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판다와 고릴라의 열정적 체위를 보고 한껏 달아오른 커플은 특별 할인가로 근처 모텔에 방을 잡을 수도 있었다. "자기~ 아까 본 고릴라 체위 시도해볼까?"

### 블러디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이나 까먹고 앉아 있을 때 아니야! 사실 이날은 존나 무서운 날이었어.



인육 초콜릿?

#### 죽음의 시작

269년 당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군대 징집이라는 게 같은 이유로 결혼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 밸런타인 주교가 명령을 어기고 젊은 연인들의 사랑을 이어주다 발각돼 2월 14일에 처형당했다. 이 사연이 전해 내려오다가 지금 밸런타인데이의 유래가 되었다.

#### 피바람의 도시, 시카고

금주법을 시행하던 1929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불법 주류 유통의 통제권을 놓고 마피아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리에 사랑이 넘치는 2월 14일, 경찰로 위장한 '알 카포네' 갱단의 단원들은 라이벌 조직의 멤버 7명을 주택 차고에서 냉혹하게 사살했다.

#### 최악의 서프라이즈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2013년 밸런타인데이에 여자친구인 모렐 리바 스타캠프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그는 자신을 깜짝 놀래주기 위해 새벽에 집으로 방문한 여친을 강도로 오인했다고 말했지만, 수사 끝에 고의적 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2 공중 화장실 섹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한 식당은 단골손님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나 했다. 2010년 2월, 마일드레드스 템플 키친의 운영자이자 주방장인 도나 두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네 칸짜리 남녀 공용 화장실이 '죽기 전 꼭 해봐야 할 섹스 명소 101곳' 안에 드는 공간이라며,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그곳에서 은밀한 봉기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단골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벤트 기간에는 화장실 전문 청소부를 고용했고, 콘돔은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 3 벌레보다 강한 사랑

평범한 밸런타인데이와는 가래 사랑하는 연인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슬깃해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 뉴욕에 위치한 브롱크스 동물원에서는 매년 바퀴벌레로 사랑을 전하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사랑스러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10달러를 내면 바퀴벌레 중 가장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마다가스카르히싱 바퀴벌레에 연인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그 증거로 작명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자기랑 얼굴도, 이름도 똑같은 또 하나의 생명체가 생겨어!"라며 연인에게 이 특별한 선물을 해주자. 사랑하는 이에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을 거다.



#### 4 짜잔! 선물로 이혼을 준비했어

미국 미시간 주에서 활동하는 월터 H. 벤틀리 변호사는 2013년 밸런타인데이에 이혼 소송을 무료로 진행해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공짜 이혼을 하게 될 행운의 주인공을 가리는 방법도 범상치 않았다. 이혼을 원하는 자원자들은 월터 벤틀리의 홈페이지에 이혼 사유를 올려, 그중 가장 이혼이 절실하거나 눈물을 쥐어짜게 만드는 베스트 사연을 가렸다. 홈페이지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이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전을 벌였다.



죽은 자의 메시지에  
주목하라

귀신 보는 형사

# 처용

OCN  
공식블로그



오지호 / 오지은 / 전효성

2월 9일(일) 밤 11시 첫 방송

OCN

무지개 반사

### 만약 총칼이 없다면...



대체할 무기는 얼마든지 있다.

BY 김희성

하이힐에  
맞아  
실명하는  
영상



#### 1 엑스박스 360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다리우스 존슨은 누군가가 자신의 정신을 조종하는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황소자리에 태어난 사람을 죽여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출처 없는 생각이 든 그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엑스박스로 후려쳐 죽이기에 이른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황소자리가 아니었다고.



#### 2 하이힐

클럽에서 누군가 여친에게 작업을 거는 걸 본 휴스턴 대학의 알프 스테판 앤더슨 교수는 여친과 말다툼을 했다. 다투는 소리가 커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친이 하이힐로 이미 그의 머리를 뚫은 상태. 머리에는 10개 이상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어떤 구멍은 깊이가 무려 3.8cm나 되었지만 그녀는 뻔뻔하게도 경찰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 3 죽이는 가슴

2013년 1월, 미국 워싱턴 주의 한 트레일러 파크 거주지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한다. 사인은 질식사, 90kg에 육박하는 그의 여친 도나 렌지가 그를 가슴으로 눌러 죽인 거다. 죽은 남자의 손에서는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고. 그래도 칼 맞아 죽는 것보다 폭유에 눌러 죽는 게 더 행복하려나?



#### 4 독을 바른 음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브라질 여성은 남편을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음부를 독에 절인 뒤 오럴 섹스를 유도했지만,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남편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남편 죽이려다 독극물 중독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녀는 냄새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리니까?



#### 5 의족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데브라 휴잇은 2011년, 자신의 의족으로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다. 그녀는 남자 친구를 마구 발로 밟고 나서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의족을 아예 떼어내 남친을 때려죽이고 만다. 남친을 때리는 동안에는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잘 잡고 있었다고.



#### 6 술가락

영국 약쟁이 리처드 클레어는 마약 재활 센터를 탈출해 자신에게서 약을 가져갔지만 돈을 주지 않은 매기를 찾아간다. 하지만 이번에도 매기가 돈을 주지 않자 그의 휴대폰을 뺐다.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달려드는 매기의 뒤통수를 클레어가 디지털 술가락으로 '퍽' 하고 쳤고, 두개골 내 동맥이 파열돼 '억' 하고 죽는다.



#### 7 변기 뚜껑

2006년, 마빈 힐과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힐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언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빠진 힐은 붙어있던 변기 뚜껑을 떼어내 그걸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화장실에서 싸울 땐 소변이 많이 안전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 8 와인 따개

2008년, 55세의 무라트 힐러리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는 세 명의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열한 살짜리 딸은 침대 위에서 머리에 코르크스크루가 꽂힌 채 죽어 있는 아빠의 시체를 발견했다. 누가 코르크스크루를 그의 머리에 꽂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WORLD GYM™



It Will be Great! 2014  
**WORLD GYM**

[www.asiaworldgym.com](http://www.asiaworldgym.com) 월드짐 일산 본점 031-932-7010

여의도점 02-782-1003 교대점 02-593-7766 강남점 02-2052-0096 대치점 02-538-0700 울산점 052-281-1122 부산연산점 051-758-5554



김: 조영재  
권: 장영문

씨리소 C<sup>TM</sup> 맥시머소

등록원 제 5586호 값 20원

# 백주나우놀이



## 놀이법

- 1번부터 시초에 조사위를 돌려 100번까지 먼저 가면 승리합니다.
- 나쁜 일을 한다고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지요.
-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예요. 아무도 몰라요.

00 최담은 개를 밟도 몰도 없어요. 그제 인생이요. 잤을 때 노세요!

01 저런, 흥년이네요.

02 어머! 댁이 혼났더랬지. 제가 물리쳐드립니다.

03 전세계 각정은 달았군요!

04 우와! 운동을 열심히 했나 봐요!

05 저기도둑이 도망가요!

06 투박한 신고 장신!

07 예쁜 식물이 되거라!

08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09 그러다 밭갈이 할 거예요.

10 어떤 미친 누가 괴물을 키웠어?

11 열심히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다 보면!

12 나루에서 들면 위험해요!

13 아, 직해! 나, 거리를 청소하네요?

14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거든?

15 열심히 노동을 하네요.

16 재능은 쌓이면 아깝죠.

17 무리하면 안 돼요. 장기는 다 갖네요.

18 신발을 빼놓으면 안 돼요!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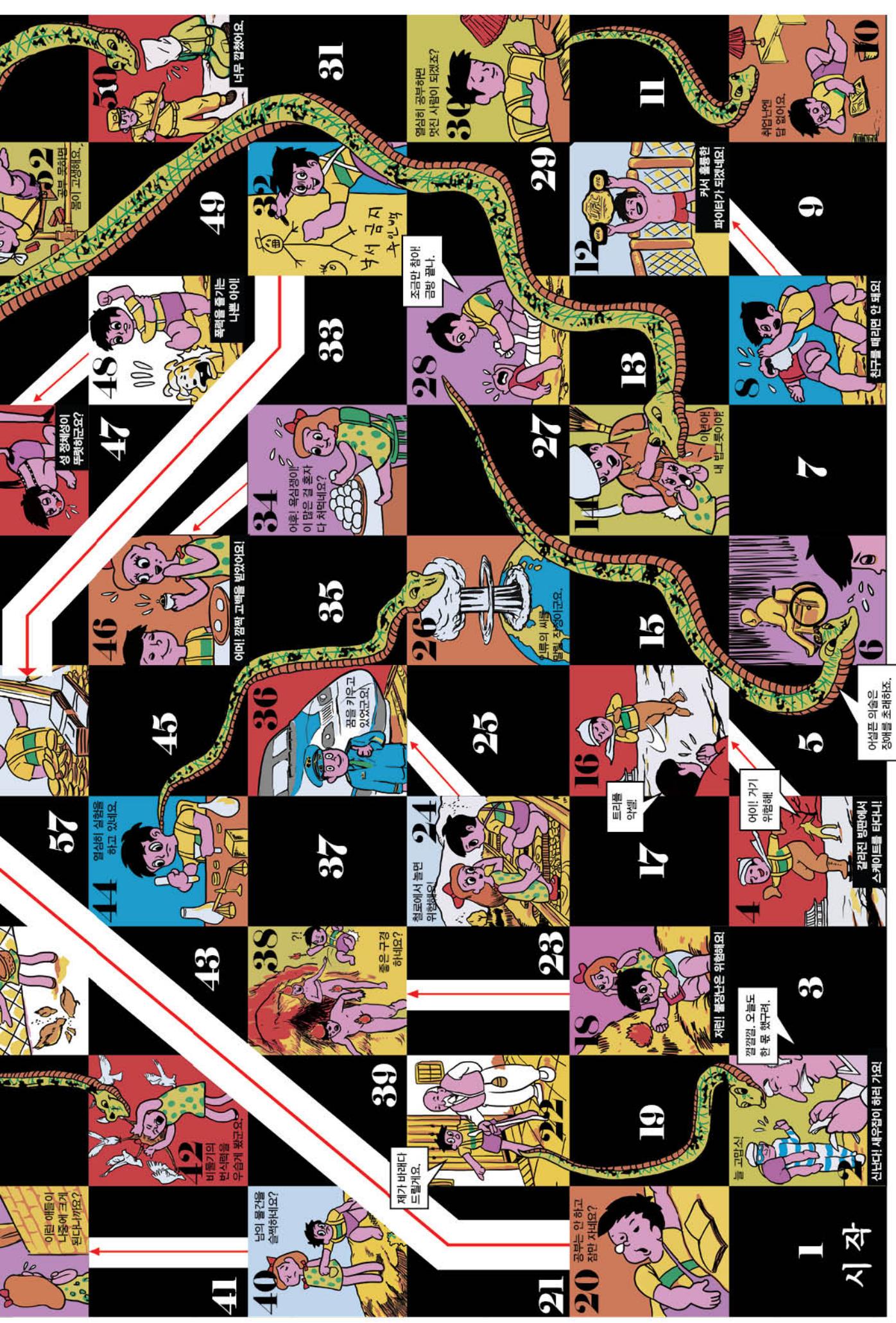
95

96

97

98

99



41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크게 된다니까요?

40 남의 불건을 슬쩍하네요?  
제가 바레다 드릴게요.

39

20 광부는 안 하고 잠만 자네요?

19 그말식  
신노대! 새우원이 하려 가요!

42 비둘기의 비서력을 우습게 봐요.

38 ?  
좋은 구경 하네요?

37

18 저런! 불량소년은 위험해요!  
캘리포니아, 오늘도 한 몫 했구려.

3

44 열심히 심장을 하고 있어요.

36

24 철로에서 돌면 위험해요!

17 트리를 아셴!

4

46 어머니! 캄캄 고백을 받았어요!

35

26

16

5

47 성 장애영이 무척하군요?

34

27

15

6

48

33

28

14

7

49

32

29

13

8

50

31

30

12

9

51

30

29

11

10

52

31

30

11

10

1 시작

어썬프 이슬은 장애를 조려주세요.

갈라진 방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더니!

저런! 불량소년은 위험해요!

신노대! 새우원이 하려 가요!

FORT GREENE

### 스파이크 리

영화 <올드 보이>를 리메이크한 할리우드의 개성 넘치는 감독 스파이크 리는 과연 남은 24시간 동안 피의 복수를 이뤄낼 수 있을까?



ONE WAY

BROOKLYN HEIGHTS



530-ORCA

영화 <올드 보이>가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죽게 됐다. 마지막 날 할 할 할 텐가? 브루클린 다리 위의 산책로를 따라 하루 종일 걸어 다닐 거다. 이 동네와도 이별이려나... 천국도 여기보다 아름다울까?

브루클린 홍보대사라도 되나?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배도 고프게 텐데,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건 없나? 오리지널 뉴욕 치즈 케이크 한 조각을 맛보겠다.

엄청난 농구 팬으로 유명한 당신, 천국에서 농구 경기가 열리면 같이 구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잭 니콜슨, 그는 연기도 잘 하지만 무엇보다 농구를 볼 줄 안다. 관망석 자리가 안 좋으면 자꾸 편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잭이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경기에만 집중하겠지!

당신이 좋아하는 뉴욕 닉스가 NBA 챔피언이 될 수 있으려나? 그 모습을 보기 전엔 절대 죽을 수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면 내 아들이라도 대신 그 명경기를 봐줬으면 좋겠다.

정말 대단한 빠심이다. 당신의 새로운 영화 <올드 보이>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다. 떠나기 전 처리하고 가야 할 적은 없나?

딱히 기억나는 사람이 없군. 애! NBA 심판 몇 놈을 조지고 가야겠다.

생전에 못 봐서 후회되는 영화가 있나?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모두 봤다.

죽어서 영원히 한 영화를 돌려봐야 한다면, 죽어도 보기 싫은 영화 하나를 꼽아보라.

1986년 개봉한 영화 <그녀는 그것을 좋아해>. 내가 처음으로 찍은 영화다. 영화는 꽤 ভাল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초짜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엄청 어설프더라. 요즘엔 쪽팔려서 그 영화를 도저히 끝까지 볼 수가 없다.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 주위를 맴돌며 지켜볼 수 있다면 누구를 따라다니겠나?

유령이 돼서 스토커 짓을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그런 게 진짜 있다면 어머니가 그동안 내가 감독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겠군. 생각해보면 내가 영화감독이 된 건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 덕분이다. 아버지가 영화를 싫어해서 내가 대신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곤 했지. 내 영화 포스터가 간판에 걸리는 걸 생전에 보셨어야 했는데!

살면서 이론 것 중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뭐가?

어느새 훌륭한 어른이 된 내 두 자식들이 가장 자랑스럽다. 아이들이 그렇게 잘 큰 건 물론 다 내 아내 덕이다.

검소한 아버지군.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질 노래는? 어떤 곡이든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신나는 곡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다들 너무 우울하면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다. 차라리 아무도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생전에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썼나?

닉스 경기 티켓. 살면서 마리화나나 마약을 한 적은 없지만 농구에는 중독됐다.

모비에에는 어떤 말을 새기겠나?

권력과 맞서 싸우라. 🗣️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올드 보이> 리메이크 작은 지만 1월 16일 국내 개봉했다.



KNICKS GOTTA HAVE IT

남남서서녀의  
발칙한  
연애 교습소

# 이른바 어대?



IT'S  
SO  
GOOD!!!  
유승민  
\*남성지 Maxim 에디터



HHO~  
서유리  
성우, V



AAARGH~  
가수 김동민



AH... AH...  
박은지  
MC, 전 가수캐스터



MMM... 데니안  
영화배우, 가수

AAHHH...  
박철민  
OCEN 기자



Sexy... 안영미  
개그우먼

O...OO  
더연희  
모델

성인 인증 필수!!



매주 목요일 밤 11시

### 麥心

### 세기의 불륜 넬슨 제독과 해밀턴 부인

BY 굽시니스트



### Nelson's Blood

넬슨의 피로 담은 럼주 ₩ 8,000



\* NTR(네토리, 네토라레): 여자가 딴 남자랑 놀아나면서 질투, 사랑을 유발하는 장르의 에로나 게임.

CREATED BY  
WANG YONG BEOM PRODUCTION

PRESENTED BY  
CHUNGMU ART HALL

2014년,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단 하나의 뮤지컬!

Musical  
프랑켄슈타인

2014. 3. 18 Grand Open  
충무아트홀 대극장

유준상 류정한 이견명 박은태 한지상 리사 안시하 서지영 안유진 이희정 김대중 외

[원작] 메리 셸리(Mary Shelley) | [극본] 윌리엄 | [작곡] 이성준 | [예술총감독] 이종덕 | [책임프로듀서] 김희철 | [공동프로듀서] 오동현 이상용 김석국  
[연출] 임용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인두] 서병구 | [무대디자인] 서숙진 | [조명디자인] 민경수 | [음향디자인] 권도경 | [의상디자인] 한정임 | [소품디자인] 임희정 | [분장디자인] 양희선 | [영상디자인] 송승규 | [특수효과] 박원남

주최  SBS kt media hub  인터파크 INT  SHOW TECH LINE 제작  충무아트홀 홍보마케팅  강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주) 1664-1662

[www.musicalfrankenstein.co.kr](http://www.musicalfrankenstein.co.kr)

# HOW TO

## 벌떼 수염 기르는 법

나만의 톡톡 튀는 스타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다면, 톡톡 쓰는 카리스마 벌복숭이로 변신하자! 이제 아무도 당신을 우습게 보지 않을 거다.  
(대신 친구를 잃겠지)

아... 귀가  
존나 따듯해..



몸살  
나갔네!  
누드  
양봉 소



### 1 여왕벌 납치 작전

벌떼 수염을 만들기 하루 전날, 벌집에 다가가다. 죽고 싶지 않다면 전문 양봉가의 협조를 요청한다. 여왕벌을 납치해 채집통에 넣어둔다. 여왕벌은 다른 벌들을 끌어 모으는 유용한 인질이다. 채집통은 다른 벌들이 여왕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면을 망으로 처리한 작은 나무 상자가 좋다.

### 2 완전한 사육

벌집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커다란 상자에 대고 탈탈 던다. 날지 못하는 육아벌(새끼 벌을 키우는 벌)이 굴러 떨어질 것이다. 설탕물을 뿌려준다. 육아벌은 열심히 설탕물을 쳐묵쳐묵하면서 동글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고혈당 효과로 행복감이 충만한 벌들은 당신에게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게 군다. 설령 당신에게 벌침을 쓰고 싶어도, 뱃살 때문에 제 발톱 못 깎는 비만인 신세라 침이 달린 공주니를 구부릴 수가 없다고!

### 3 초고속 수염 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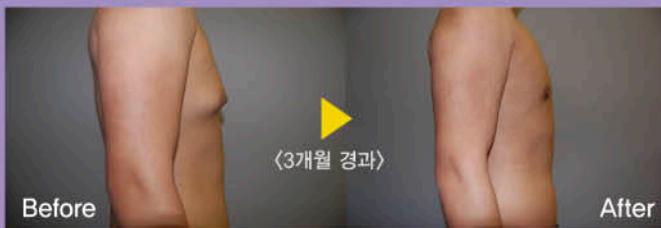
콧구멍과 귓구멍을 솜으로 막고, 눈 아래에는 바셀린을 바른다. 벌이 당신 몸에서 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진공청소기도 준비한다. 여왕벌이 들어 있는 채집통에 끈을 연결해 목에 건다. 넓은 편지를 준비해 육아벌이 들어 있는 상자를 탈탈 털어 쏟아 붓고 가슴께에 받쳐 던다. 육아벌이 기어올라 여왕 주변에 모여들고, 근사한 벌떼 수염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

### 4 스릴 만점 면도 타임

정든 수염과 헤어질 시간이다! 여왕벌 채집통을 테이블에 내려두고, 그쪽으로 헤드뱅잉을 한다. 얼굴에 붙어 있던 벌 대부분이 공장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남아 있는 벌은 부드러운 솔로 조심스럽게 쓸어낸다. 이 순간 평균 한두 방 정도 벌에 물리니 조심할 것. 벌써 쓰였다고? 카드 모서리로 살살 긁어 밀어내듯 벌침을 제거하고, 얼음찜질을 하면서 병원으로 직행한다. MAXIM 보고 따라하다 쓰였다고 끈지르진 말아줘!



남자가  
버려야 할  
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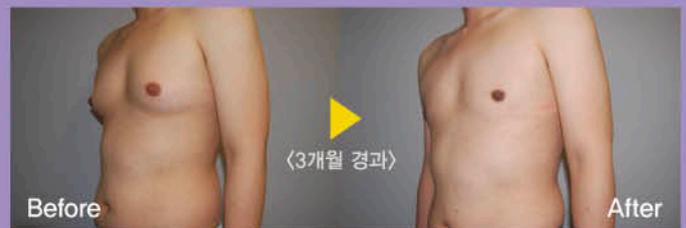


###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 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www.gynecomastia.co.kr](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 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 How To / Super Power



## 펼 펼 끊는 용광로에 손가락 집어넣는 법

디스커버리 채널의 인기 다큐 <호기심 해결사>의 아담 새비지와 제이미 하인먼이 화끈하게 담귀했다.



### 재료:

- 납 (공공장이나 카센터에 몰래 침투해 버려진 납 조각을 스틸하자)
- 무쇠 냄비
- 공업용 버너
- 마스크
- 핫도그 소시지
- 500°C 이상 측정 가능한 디지털 온도계

**1** 열심히 모은 납 조각을 무쇠 냄비에 넣고 공업용 버너에서 가열한다.

**2** 납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가스를 마시기 싫다면 마스크를 쓰자.

**3** 330°C 정도 되면 납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약 460°C 이상 돼야 '라이덴프로스트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액체가 끓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의 물체와 접촉할 때, 순간적으로 겉에 얇은 증기막을 만드는 거다. 납 물의 온도는 물의 끓는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둘이 만날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과학 원리를 이번 도전에 이용할 거다.

**4** 손가락을 넣기 전, 먼저 오동통한 소시지에 납 덩핑 소스를 찍어보자. 소시지가 충분히 촉촉한지 먼저보고 물기를 확인한 뒤 펼 펼 끊는 지옥의 용광로 속으로 넣었다 빠라(싸놓고 보니 무척 야한 것 같다).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소시지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면 때가 된 거다. 이제 손가락을 넣을 차례다.

**5** 손가락을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 끊는 납 물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재빠르게 넣었다 빠라. 크흠! 흠! 축하한다. 당신은 슈퍼히어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참, 이젠 "세상에 이런 법도 있다!" 하고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만, 절대 따라 해보란 소리가 아니다. 절대 따라 하지 마시오! 네베! 예베! 뭐? 벌써 담갔다고?



## 황소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법

당수 한 방으로 처리하고 싶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최배달이 아니다!

### 1. 눈치를 살피라

주변에 황소가 나타나면 일단 눈을 떼지 말고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직 가까이 있지 않다 해도 긴장을 늦추지 않게 좋을 거다. 시도 때도 없이 돌변해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친처럼, 어느 순간 성질이 나 당신에게 돌진할지 모른다. 아, 이미 화가 난 것 같다고? 서둘러 다음 방법을 시도하라.

### 2. 안전지대를 찾아라

한쪽 눈을 황소를 주시하며, 다른 한쪽 눈알을 열심히 굴려 숨을 곳을 찾아라. 소는 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연못이나 강이 있다면 거기서 뛰어라.

### 3. 옷을 벗어라

옷과 바지를 벗어서 가능한 한 멀리 던져라. 운이 좋다면 멍청한 황소가 필릭거리며 날아가는 당신의 옷가지들을 쫓아갈 거다. 그러면 도망갈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겠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응급실 의사가 수술 전에 당신 옷을 잘라내느라 걸리는 시간은 줄일 수 있다.

### 4. 마지막 발악을 하라

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황소한테 얻어터질 만큼 터졌겠지. 맞기만 하는 게 억울하면 반격을 해보자. 코푸레라도 잡고 비틀어라. 아아 조금은 아파할 거다. 죽기 직전에 죽은 척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면 할수록  
터지는



상상이나 했니?



반전연애 보고서 연극

# 스캐들

대학로 A아트홀 2013년 3월 1일 - 2014년 3월 23일 평일 5시 8시 / 토 2시 4시 6시 10분 8시 10분 / 일 2시 4시 6시 10분

제작·문의(주)악어컴퍼니 02-764-8760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How To

## Instant Chef

### 계란말이보다 쉬운 골뱅이 프리타타

언제까지 술안주로 계란말이만 먹을 텐가!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완성하는 초간단 레시피로 정통 이탈리아 오믈렛 \*프리타타를 재현해보자. BY 손안나

**7분  
완성!**

\*프리타타란?

이름만 보면 거창한 요리 같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계란찜과 비슷한 요리. 팬이나 오븐을 이용해 달걀을 두툼하게 익혀 먹는 이탈리아식 오믈렛이다.



**준비물**

- 달걀 3개(900원)
- 우유 50mL(800원/200mL)
- 골뱅이 5개(2,730원/1캔)
- 소시지 핫바 1개(1,500원)
- 방울토마토, 소금, 후춧가루 약간씩

합계 **5,930원**

- 1 골뱅이와 방울토마토는 이등분하고, 소시지는 얇게 썬다.
- 2 전자레인지용 접시에 소시지를 깐다.
- 3 볼에 달걀을 투척하고 웨치쉐킷 미친 듯이 젓는다.
- 4 샛노란 달걀물이 연노랑색이 될 때까지 한 우유를 조금씩 부어가며 젓는다.
- 5 소금과 후춧가루로 일맞게 간을 한다. 여기서 잠깐! 여자 속살처럼 이등분한 식감을 원한다면 식용유를 한 큰술 정도 섞어주자.
- 6 접시에 담은 소시지가 살짝 잠길 정도로 달걀물을 붓는다.
- 7 잘라놓은 골뱅이와 방울토마토를 토핑으로 올린다. 취향에 따라 피자 치즈를 한 움큼 뿌리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 8 전자레인지 가열 정도를 '중간'에 맞추고 5분 정도 데운다.
- 9 요리를 꺼내 피자 조각처럼 잘라 내면 씹는 맛이 끝내주는 골뱅이 프리타타 완성!

**Tip**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시금치, 양파, 김자, 고구마 등을 이용해 당신만의 프리타타를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 🍴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 0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커집니다.
- 0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 0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 [www.medoctor.co.kr](http://www.medoctor.co.kr) / 02-3445-4514

#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개리의 사랑법



이렇게 로맨틱한 19금 가사라니...  
어떤 여자가 안 넘어가겠어? BY 손안나



“모든 곡이 19금이다. 공식적인 방송 활동은 할 수 없다. 처음부터 활동할 생각으로 곡을 만들었다면 이런

앨범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데뷔 16년 만에 첫 솔로 앨범 〈MR. GAE〉 발매를 앞두고 개리가 한 말이다.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으로 확보한 어린이 팬들은 버리고 이번 앨범을 뮤지션 개리만의 색깔로 가득 채웠다. 포털 사이트에는 ‘개리 솔로 앨범 방송 부적합 판정, 앨범 홍보 비상’ 따위의 기사가 연신 올라오지만, 앞서 밝혔듯 개리는 모든 걸 예상하고 가사를 썼다고 말했다.

스스로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작업했기 때문인지 그 표현이 매우 참신하다. “얼마 전에 똥 싸다 갑자기 슬펐어”라는 생활 고백류의 가사(‘슬 취한 밤의 노래’)는 마치 홍상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 그가 평소 자주

쓰는 걸로 보이는(입에 짹짹 물더라고) 욕설은 아예 노래 제목으로 등장했다(‘XX몰라’).

백미는 역시 19금 가사다.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커튼을 치고 TV를 껐다”라고 말하는 게 리쌍의 19금 감성이었다면(‘TV를 껐네’) “사위는 조금 있다 하고 이대로 날 더 안아달라”고 말하는 건 개리의 19금 감성이다(‘조금 있다 사워해’). 더 직설적이고 뜨겁다. 대중의 반응 역시 그때보다 화끈하다. 음원이 공개될과 동시에 차트에서 두 개의 타이틀 곡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 누가 보면 ‘GARY’라는 이름의 아이돌이라도 등장한 줄 알겠다.

특히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이야기를 가사로 풀어낸 ‘조금 있다 사워해’와 마초남의 사랑 고백을 담은 ‘XX몰라’의 경우, 여자들의 반응이 더 열광적이다. 왜일까? 그 가사가 마치 침대 위의 남자 친구가 속삭이는 밀어 같은 현실감을 주기

때문이다. “작지만 귀여운 너의 가슴이 난 좋아 (‘조금 있다 사워해’)”라는 말은 대한민국 A컵 여성이라면 남자친구에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골 멘트 아니던가?

그의 가사는 늘 그랬다. 거칠고 욕설이 난무해도 여자를 표현하는 부분에는 엄청난 존중이 담겨 있다. “내가 못된 남자라면 여자를 울릴 남자라면 물러나는 게 좋아 다치기 전에 거부할 수 없는 걸 알지만(동방신기, ‘Something’)”이라고 말하는 남자보다 “너만 보면 난 헤쳐 자주 네 옷을 벗겨 미안(‘조금 있다 사워해’)”하다고 말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더 사랑스러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로맨틱한 잠자리 대화에 자신 없는 남자에게 개리의 가사는 그 어떤 연애 바이블보다 훌륭한 참고서다.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좀 놀아본 듯한 이 수컷, 확실히 여자를 안다.



격렬하게 사랑하고서  
 맘에 쫓은 채  
 돌이 누워서  
 오늘 여쭙냐고 묻는  
 너에게 난 끝내줘  
 끝내줘 끝내줘

우린 옷 벗고  
 사랑한 사이  
 더 이상 숨길 것 없어  
 세상 가장 친한 사이  
 학벌 배경 차이  
 그런 거 따위 신경 안 써  
 서로 딱 원하는 타입  
 서두르지마 오늘 밤은  
 깍지를 끼듯이 너의  
 허벅질 내 다리에 끼고  
 삶을 다 맞대고  
 삶을 말하고 싶어

조금 이따 사워해  
 이대로 더 나를 안아줘  
 이렇게 니 품에서  
 얘기 하고파  
 조금 이따 사워해  
 이대로 더 나를 안아줘  
 이렇게 니 품에서  
 장난 치고파

개리의 첫 솔로곡  
 '조금 이따 사워해' 중에서

IMAGE 리빙컴퍼니 제공

강개리 주연  
 MV 감상하기



# 일본 여자친구 사귀기

한국 여자랑은 도저히 힘들어서 연애 못 하겠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BY 김희성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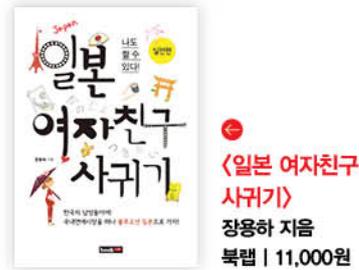
→ 몇 년 동안 연애 칼럼을 쓰고 있지만 연애 방법론이 담긴 서적에는 좀체 흥미가 가지 않는다. 남친이라는 존재가 유니콘처럼 여겨지던 시절엔 나도 연애 스킬이 담긴 책들을 종종 보곤 했다.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나도 연애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샘솟았지만 그 기분은 책장을 덮고 나서 10분 이상을 지속하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책들에게 속은 기분이다. 그 때 봤던 연애팁 중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연애에 대한 환상과 편견을 심어주고, 말장난에 불과한 팁을 알려주는 대부분의 연애 관련 서적은 '연애'라는 키워드만 봐도 자동 반사적으로 클릭질을 하는 수많은 솔로들에게 유죄다.

연애 서적을 믿지 않는 나의 눈에 <일본 여자친구 사귀기>라는 책이 우연히 눈에 띄었다. '일본어 회화 서적인데 제목만 이렇게 지었을거야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책에는 진짜 일본인 여자친구 사귀는 비법이 들어 있었다. 어디,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있는지 읽어나 보자는 심정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책 표지엔 '국내 연애 시장을 떠나 블루오션 일본으로 가자!'고 적혀 있다. 어쨌든 한국 여자인 나로서 반가운 책은 아니다. 일본 여자와 사귀기 위한 실전서라니, 우리 학교 여자애들 놔두고 옆 학교 담벼락에 붙어 다른 학교 여학생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남학생들을 보는 느낌이었을까. 한국 여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외국인 남자를 보는 당신의 분노와 같다고 하면 이해가 되려나?

게다가 저자는 한국 여자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한국 여성은 언제든 남자들을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할뿐더러 "일본 여자가 한국 여자와는 다른 점이, 남자가 바람을 피울 생각을 못 하도록 남자한테 질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자들은 화나고 짜증나면 남자 친구부터 잡고 본다", "선물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냥하고 친절할 당신의 일본 여자친구는 고마워해줄 것이다" 등 필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국 여자들을 일반화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글쓴이가 한국 여자와의 연애에 정말 지쳤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래도 이 책은 최소한 솔직했다. 저자는 실제로 팬팔 사이트에서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어 2년째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팬팔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아주 친절하게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알려준다. 어설픈 용어를 만들어 연애에 해박해 보이려는 공수는 부리지 않았으며, 어쨌든 연애 팁 몇 개로 제목과 표지 디자인을 꾸며 마치 엄청난 비법서인 것처럼 홍보하는 알뜰한 상술이 없다. 한국 여자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하지만 연애라는 신성한 사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가벼움이 이 책에는 없다. 글쓴이가 자신의 연애팁을 형, 동생,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런 어설픈 말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다.

적어도 연애 서적은 이래야 한다.



## 일본 여친 꼬시는 실전 작업법

레알 꿀정보가 가득하지? 이걸 시작에 불과하다. 더 궁금하면 QR 코드를 스캔해봐. 책 선물 받기 이벤트를 걸어놨거든.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자를 보낸 지 적어도 세 시간 이내에는 답장을 해주는 것이 예의다. 성격 급한 사람은 답장이 5분만 늦어져도 전화를 하는 등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답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바쁘면 늦게 답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므로 문자 답장이 늦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반드시 답장하게 되어 있다.

- <일본 여자친구 사귀기>, 106p  
'문자 답장이 늦는 이유' 중에서 -

일본 여자는 재밌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다. 개그로는 말로 하는 개그보다는 몸으로 하는 개그가 적격이다.

- <일본 여자친구 사귀기>, 152p.  
'사진 기술과 유머' 중에서 -

일본 여자들의 프로필을 들여다보면 스티커 사진 기계에서 찍은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중략) 한국에선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포토샵 기술을 기계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진행해버린다. 아무리 추녀라도 이 기계로 사진을 찍으면 단번에 연예인이 되어버린다. 많은 일본 여자들이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리는 주의하자.

- <일본 여자친구 사귀기>, 92p.  
'사진발을 주의하라' 중에서 -



#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웃음기 짝 뻥 뻥 스틸러표  
〈포레스트 검프〉. BY 손안나



미리 말해두자면, 이 영화의 제목은 잘못됐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작품은 제목처럼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된 월터(벤 스틸러)가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브루스 올마티〉류의 영화가 아니다. '상상'이 키워드건만, 이 영화에는 무릎을 탁 칠 만한 특별한 상상력이 없다. 지퍼에 거시기가 끼여 고통을 호소하던(〈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연기가 일품이던 벤 스틸러의 코미디도 없다. 차라리 "인생은 초콜릿 상자"라고 말하던 〈포레스트 검프〉와 더 달았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려 공감을 자아내는 훈훈한 드라마 말이다.

모하칸 헤어를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철부지 어린 소년은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을 맞으면서 철이 들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책임지기 위해 소년은 그 길로 머리를 깎고 파파존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살아온 몇 십 년. 철없는 여동생,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어머니,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연애, 뼈뚫한 월세, 정리해고까지... 마흔두 살 싱글남에게 여전히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뭐 하나 특별할 것 없어서 슬픈 이 남자의 이름은 월터 미타다.

\*월터 미타: 소심하고 예민한 중년 남자 월터가 아내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동안 머릿속으로 외과의사, 군인, 킬러 등 다른 인생을 몽상한다는 내용의 원작 소설 〈월터 미타의 은밀한 생활〉의 주인공. 이 소설로 월터 미타라는 이름은 몽상가의 대명사가 됐다.

그냥저냥 살면서 '다른 어딘가'를 꿈꾸는 이들이 그렇듯, 월터의 취미는 '멍 때리고 공상하기'. 현실에선 그저 그런 소심남이지만 상상 속 그는 짜증



거시기가 끼인 남자



나는 직장 상사에게 "네 수염 X나 구리다"고 쓰아붙일 줄도 알고, 뉴욕의 도로 한복판을 스케이트보드로 가로지르고, 짝사랑하던 그녀까지 먼저 달려들게 만드는 매력남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잡지사는 폐간될 위기에 처하고, 월터는 마지막 호 표지 사진을 찾아 그린란드로 떠난다. 프로필에 '가본 곳', '해본 것'을 채우지 못해서 인터넷 미팅도 거절당하던 이 남자. 난생처음 떠나는 여행지가 무박 3일 올빼미 동경 여행도 아니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히말라야라니... 후에 어떤 개고생을 하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예상대로 그는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상어와 혈투를 벌이고, 화산 폭발 현장에서 가까스로 도망치고, 스케이트보드로 초원을 횡단하는 등 온갖 모험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성장한다. 영화 초반부에 계속되던 상상 신은 그가 여행을 떠나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다른 어딘가'를 꿈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행동가기 때문이다.

"월터 미타는 벤 스틸러 당신인가? 이 영화는 일종의 소원 성취인가?" 지난해 4월, 뉴욕 트라이베카영화제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벤 스틸러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이다. 그래서 이 영화에 끌렸다." 총수입으로만 따지면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보다 잘나간다는 벤 스틸러도 '다른 어딘가'를 꿈꾼다니... 그렇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열매값에 시달리는 못난이 현실 도피자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현실은 당장 내일 아침 출근부터 걱정해야 하는 20~30대 직장인들이 '월터'에 폭풍 빙의한 채 이 작품을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개봉 일을 1월 1일로 잡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상상을 깨부수고 상상보다 더 멋진 현실을 일궈낸 월터처럼, 올해, 당신도 '다른 어딘가'를 떨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위너가 되기를 MAXIM이 기원한다. 국력

## 벤 스틸러의 거시기 연기 3 그곳 연기만큼은 아카데미 수상감인 이 남자. 도대체 얼마나 자신있길래...

###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지퍼에 거시기가 끼인 벤 스틸러와 그의 정액을 헤어젤로 착각하고 머리에 처발처발한 카메론 디아즈만큼은 생생하다.



### 쥬랜더

이 영화에서 그는 품쟁품사 최단신 톰요미 쥬랜더를 맡았다. 스테이지에서 라이벌(오웬 윌슨)과 마주치자 '바지 입은 상태에서 팬티 벗기' 배틀을 벌이는 이 상드라이트들... 실제로도 절친이다.



### 피구의 제왕

벤 스틸러가 연기한 체육관 관장 화이트 굿맨은 체육관에 여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시기에 공기 뿜을 잔뜩 주입한 채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짝짓기 합시다."



# Subscribe

**최대  
5만 원  
할인!**



야, 맥심 있나?

금주, 금연, 금욕

나오면 한 권에  
100대씩이다.

서점에 갔는데 지난 1월호가 없어서 허탈했다고? 미안하다. 원판이다. 이참에 정기 구독은 어때? 품질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6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MEGA TYCOON 안경

##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3개월	정가 17,700원	+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000원 할인 + 1,000원 적립	+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000원 할인 + 2,000원 적립	+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5,000원 할인 + 4,000원 적립	+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0,000원 할인 + 6,000원 적립	+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0,000원 할인 + 8,000원 적립	+	

###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하나은행 569-910012-00904  
KB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락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시 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 락=1 원)  
※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왼쪽 QR 코드 스캔 후 확인하세요!

# Game

CHARACTER OF THE MONTH

## 푸른 피부의 8등신 미녀 아인(Ain)

 미녀 캐릭터계의 맥반석 계란 같은 여자가 나타났다. BY 조용재

**← 아인**  
 〈엘로아〉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종족은 '카루트', '리루', '아인'의 세 가지로 나뉜다. 설정에 따르면 실제 인간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이 카루트, 꼬꼬마 요정은 리루, 형 누나 간지를 훔는 원숙미 넘치는 종족이 바로 아인이다.

피부색부터 아인은 (이바타)의 '나비족'과 꽤 비슷한 느낌이다. 이들은 공, 호랑이, 독수리 등 다양한 부족으로 나뉘어 부족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아인의 캐릭터 기획 단계부터 나비족의 '야생' 콘셉트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차용하지 않았나 싶다.

판타지 세계에 등장하는 이종(異種)스러운 느낌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밧뭇 떨어뜨린다는 푸른 빛깔 피부를 가진 아인족 역시 유저들의 호감을 사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당신이 이 페이지를 펴고 그녀의 온몸을 꼭 훑어본 것처럼, 아인족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냥 쫓나 예뻐서다. 다른 말이 필요한가? 커다란 눈, 짙은 쌍꺼풀, 오뎅한 코, 가슴은 기본 C컵, 코르셋으로 조인 듯 질퍽한 허리, 복숭아처럼 탱탱한 엉덩이. 전형적인 '미스녀' 캐릭터의 특징이다. 여기에서 단순히 헤어스타일, 피부색만 돌려도 수백, 수천의 캐릭터가 생성되며, 그 모두가 '미스녀'로서 조건을 이미 갖추고 태어나는 셈이다. 얼굴과 몸매로 이미 먹고 들어가는데, 피부가 파란 색이든 빨간 색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 

### 엘로아 온라인

캐릭터가 알아서 싸우는 '타기팅' 방식의 온라인 게임은 늘 지루하다. 마우스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똥 싸고 비데 바람까지 쐬고 와도 될 정도다. 하지만 볼특정 다수를 상대로 '눈 타기팅' 액션을 펼치는 엘로아 온라인은 〈디아블로〉 같은 손맛을 제대로 살렸다. 마약과 섹스에 찌들어 보이는 어두운 서양식 히어로의 정서 역시 과감하게 탈피해 한국 유저들의 입맛을 충족시켰다. 귀엽고 발랄한 캐릭터들의 화려한 액션에 많은 유저가 벌써부터 입이 마르게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장르	MMORPG
플랫폼	PC
개발사	엔픽소프트
일정	오픈형 테스트 일정 종료

호쾌한 게임 영상 맛보기!



# 제대로 된 삼국지가 나타났다 삼국지PK

전략과 전술, 장수 육성이 어우러진 삼국지 전략 시뮬레이션의 끝판왕 <삼국지PK> 광고 모델로 발탁된 모델돌 나인뮤지스, 그녀들이 활과 창, 방패를 들고 삼국시대를 평정하러 나섰다. BY 박정옥



전략시뮬레이션 <삼국지PK>의 광고 모델이 된 나인뮤지스의 경리, 세라, 그리고 현아, 세 명의 영웅호Girl과 가장 어울리는 삼국지의 장수는 누구일까? MAXIM이 그녀들과 가장 어울리는 삼국지 속 영웅을 매치시켜왔다.



포형천 아니다.

### 경리 ♥ 관우

경리가 들고 있는 청룡언월도는 관우를 연상시킨다. 동네 친한 형, 동생과 어울려 다니더니 술 퍼마시고 의형제가 되기로 맹세한 관우는 가정은 내팽개친 채 평생 밖으로 쏘다녔다. 관우의 부인이 절세미인 경리였다면 촉의 명장 관우가 탄생했을까? 집에서 경리가 기다리는데 자가 집에 일찍 안 들어오고 배겨?

해충 아니고 황충♡



### 세라 ♥ 황충

활숨씨만큼은 삼국지 영웅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흰 수염의 황충은 100보 밖에서 관우의 두건 끈을 쏘 맞춰 끊어버리지만 목숨은 거두지 않는 삼국지 속 최고의 촌데레. 활을 들고 있는 세라의 모습은 건곤궁을 들고 있는 황충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나인뮤지스의 맏언니 세라와 가장 궁합이 맞는 인물은 촉나라 오희대장군의 만형 황충이 아닐까? 웬지 이 두 사람이라면 검은 머리가 파 뿌리 될 때까지 싸우지도 않고 의젓하게 잘 살 것 같아!



우리 '조인' 할깁쇼?

### 현아 ♥ 조인

위나라의 리베로 조인을 묘사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방패다. 적벽대전 이후 강릉에 남아 그곳의 수비를 담당한 조인은 조조가 패전을 수습할 때까지 주유의 군대를 꽁꽁 묶어 '방어의 왕'이 됐다. 젊은 시절 무척 거칠고 난폭했던 조인은 군인이 된 후 늘 행동에 모범을 보여 천인(天人)으로 일컬어졌다. 지적인 커리어우먼 이미지의 현아와 강패에서 멋진 장수로 변신한 조인의 조합이라면 삼국지판 바보 운달과 평강공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삼국지 게임은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 '삼국지PK'

국가전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SRPG)으로 위, 촉, 오, 세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장수를 활용해 육성 시스템, 국가전, 세력 격파전 등 다양한 PVP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삼국지 게임의 집대성이다.



###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삼국지PK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국가전이다. 시스템에는 252개의 성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성지를 점령하는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 유저는 군사를 파견해 성지를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으며, 점령한 성지가 많을수록 보상이 크다. 여러 유저가 참여한 국가전 중 격파한 적의 수가 가장 많은 자만이 격파랭킹에 오를 수 있다. 전투 방식은 기존의 삼국지 게임과 달리 현장감이 넘친다. 전투 조작 시 전법을 배치해 실제 공격 방식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숫자 높음이나 하는 카드 배를 게임보다 훨씬 직관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 게다가 매회 전투에는 최대 다섯 명의 장수를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으니 장수를 고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 삼국지PK의 중독 포인트!

삼국지PK는 유저가 빠져들게 하는 중독 요인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스마트폰 게임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깔끔한 그래픽이다. 삼국지PK를 오픈한 이편컴퍼니는 고품질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을 스마트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수작업을 런칭해왔다. 이번 삼국지PK 역시 PC 화면에 그대로 가져가도 전혀 풀리지 않는 그래픽을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다. 가벼운 모바일 게임들과 달리 깊이 있는 콘텐츠 또한 유저가 쉽게 삼국지PK에서 손을 못 떼게 만든다. 세력 격파, 관직 상승, 경기장 랭킹, 장수 양성 등의 다양한 콘텐츠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순간부터 당상을 금단현상에 시달리게 만든다. 그야말로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프랑글스 같은 게임이다.

## 취향 따라 고르는 삼국지PK 여캐

고추만 득실대는 게임은 하기 싫잖아? 걱정할 필요 없다. 게임을 시작하며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할 때, 아리따운 미녀 세 명을 만날 수 있으니깐! 자, 골라 골라!



**1** 김태희 같이 우아한 여신 스타일



**2** 현아 같이 섹시한 여전사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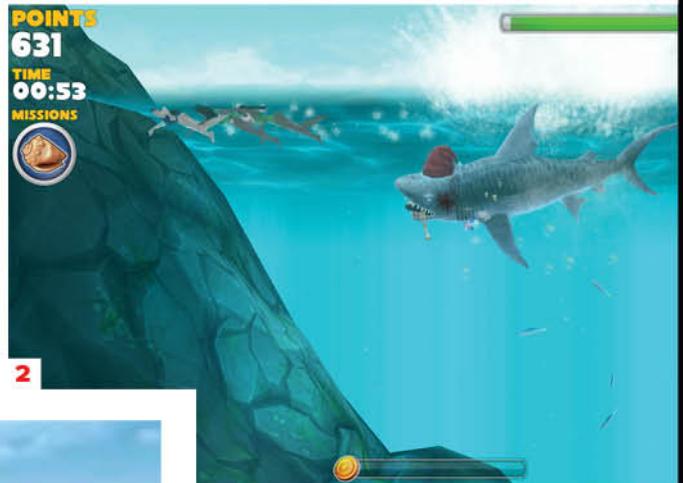


**3** 문근영 같이 귀여운 여고생 스타일



나랑 같이 할래?





## 인류 재앙! 대량 학살! 포식자 컨트롤 게임 4

하다 보면 손톱이 피로 물들 것이야. BY 조웅재

**1 UFO로 철푸덕 철푸덕**  
**GRABATRON**  
제작사 Future Games of London



〈그라바트론〉은 외계인이 지구 생명체를 납치해 훼손한다는 설정을

소재로 한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UFO의 바닥에 달려 늘어진 고추처럼 대롱거리는 집게로 사람, 건물, 자동차 등을 집어 흡수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공중으로 인간을 던지면, 자유낙하며하며 토마토 터지듯 “철푸덕”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무척 재미지다. 조작은 좀 까다로운 편인데 ‘왼손은 기체 이동, 오른손은 집게 조작’이라는 방식은 아마 인형 뽑기에서 차용한 듯하다. “아! 이 새끼는 술만 쳐마시면 인간 뽑는다고 고집을 부려.”

**2 식인 상어로 까드득 까드득**  
**HUNGRY SHARK**  
제작사 Future Games of London



바다의 포식자이자 심해의 캄패, 상어를 조작해 바다 생물들을 처먹는 게임이다.

벋속에 거지가 들었는지 체력이 계속 준다. 열대어, 참치, 거북이 등 닥치는 대로 섭취해주자. 많이 먹어서 몸집을 최대치로 키워놓으면 다른 상어를 구입할 수도 있다. 수면에서 헤엄치는 사람이나 다이버를 씹어 먹는 재미가 특히 쏠쏠한데, 오독오독 뼈 씹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이며 핏물이 퍼진다. 스피드가 빠른 상어는 수면 위로 점프해 갈매기를 먹거나 해변가로 다가가 사람을 원 없이 먹을 수도 있다. 현실 속 이 괴물이 다니라 날개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3 거대 지렁이로 남남 짹짹**  
**DEATH WORM**  
제작사 PlayCreek LLC



아우토판 위의 페라리처럼 현란하게 땅속을 휘젓고 다니는 거대 지렁이가 인류를

습격한다! 플레이어는 스마트폰의 틸트(기울이기) 기능 혹은 가상 스틱을 이용해 이 거대한 과수를 움직여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잡아먹어야 한다. 안 갠 고추처럼 생긴 지렁이는 레벨이 오를 때마다 스피드, 맷집, 크기, 특수 능력 중 하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굵기와 길이를 늘려 마찰 부위(?)를 넓히든, 스피드를 높여 빠르게 휘젓든 선택은 당신 마음이다. 에디터는 괜한 자격자심에 오랜 시간 버릴 수 있는 맷집을 마구 업그레이드하고 말았다.

**4 엄지 과수로 쿵방 쿵방**  
**THUMBZILLA**  
제작사 Soap Creative



엄지손가락을 의미하는 Thumb과 Godzilla (고질라)의 합성어다. 분주한 도시를

손가락으로 짊으면 액정에 닿은 부분에 과수의 발이 찍히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깔아뭉갬다. 인간은 케첩 바른 쥐포가 되고 건물은 잔해만 남는다. 플레이어는 고질라가 되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므로, 양 손가락을 아래로 쓸어내리듯 번갈아 스텝을 밟아야 한다. 곳곳에 설치된 대형 덫을 피하며 앞에서 총을 쏘는 인간과 탱크를 마구 짓밟자. 급하면 난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탭댄스를 추는 당신의 모습은 남들 보기에 매우 병신스러우니 혼자 암전히 즐기도록.

오늘은 게임이 현실에 끼치는 영향 대신, 현실이 게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총을 들고 화면에 쏘아 적을 맞추는 건슈팅 게임을 알고 계시죠?

이런 건슈팅 게임의 가정용 버전엔 건 컨트롤러를 같이 팔게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총 같이 만들었다가

세가 마스터 시스템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비디오 게임이 욕을 먹으면서

이 영향으로 컨트롤러를 진짜 총 같이 만들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99년 콜럼반인

요즘은 장난감총 같이 만듭니다.

PS3

일본은 개인총기가 흔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는 예외.

우습지만 실제로 이런 건 컨트롤러를 이용한 인질극이 브라질에서 벌어지기도 했죠.

재판과 추리를 소재로 한 게임 역전 재판 시리즈 중

역전재판4에는 이전에는 없던 배심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맞추다 보니

게임에 내용이 추가된 케이스.

플레이어가 배심원이 되어 선택함.

법제화가 된 사안은 아니어서 최근엔 다시 리얼 디자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이걸로 싸버릴꺼야!!

델타 식스 컨트롤러

세가 마스터 시스템 용 라이트건

돈만 훔칠 생각이었는데.....

무죄 유죄

콜린 맥레이는 랠리라는 유명 랠리 게임이 있는데,

이 아저씨는 아들과 친구들을 태우고 헬기를 운전하다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

최근에 F1레이서 슈마허도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혼수상태죠.

모터스포츠 선수들은 어째 다른거 타다 사고나는 경우가 많은 느낌.

콜린 맥레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랠리 드라이버.

어? 이거 왜이래?

이후 3탄부터 DIRT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발매됩니다.

2탄에는 추모의 의미로 이름 넣었음

뚝뚝

DIRT3

일본에서는 아동 포르노 규제 법안이 98년에 생기면서

이후 게임에서 등장인물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니라든가

우리는 이렇게 외계인과 연애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청법으로 잡혀가니 애들처럼만 보여도 주의하세요.

너 몇살이니?

제 혈액형은 A형이고 키는 154cm에 체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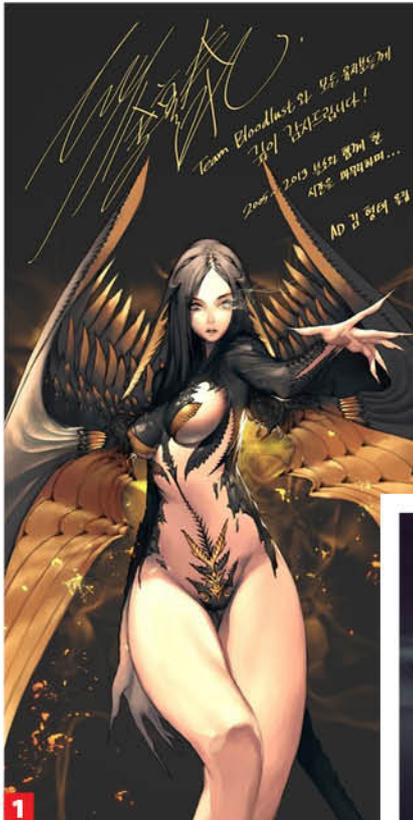
학교라는 표현 대신 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으로

이 게임은 실존 인물,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게임에서 미성년자의 성행위 묘사가 금지되었죠.

## 이달의 걸다리 게임 뉴스

썬랩도 알 권리가 있는 게임판 소식 이모저모.



### 1 김형태 AD, 언씨소프트 떠나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블레이드&소울〉의 아버지 김형태 AD(아트디렉터)가 언씨소프트를 떠났다. 김형태 AD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냈고, 지난달 그의 사표가 수리됐다. 〈블레이드&소울〉 시즌2 '지옥도' 티저 영상에서는 김형태 AD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표시됐다. 그는 티저 영상이 공개됐던 1월 8일 저녁 자신의 블로그에 가려야 할 곳만 가린 여성 캐릭터 일러스트와 함께 AD로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창세기전〉, 〈마그나카르타〉, 〈블레이드&소울〉 게임 일러에 등장한 육덕진 몸매의 활법은 여인네는 모두 김형태 AD의 작품. 그의 작품으로 여성의 몸을 공부했던 20대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 2 <리그 오브 레전드>, 2014 시즌 공식 돌입

라이엇 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2014 시즌 돌입을 공식 발표했다. 2014 시즌에서는 개편된 리그 시스템을 즐길 수 있다. 리그 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지난해와 같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챌린저 등 총 6개의 티어(Tier)로 구성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하위 티어의 강등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강등 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적에 따라 강등이 될 수 있다. 플레이어들의 랭크 점수 또한 재설정됐다. 티어 배치 경기 성적에 따라 본인의 2014 시즌 랭크 출발 위치가 결정되는 것. 자, 2014년엔 우리가 LOL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이 점을 애인과 부모님께 확실히 하도록 하자.

### 3 <서든어택> '꿀잼' 3탄 '도둑잡기' 업데이트

지난 1월 23일 게임하이아가 <서든어택>의 올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꿀잼' 3탄으로 '도둑잡기'를 업데이트했다. 도둑잡기는 보물을 차지하려는 도둑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대결이다. 티저 페이지에는 <서든어택> 홍보모델인 걸스데이 멤버 민아와 유라가 쫓고 쫓기는 모습을 담은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그런데 쫓기는 민아의 표정이 너무 밝아 이번 업데이트를 '나 잡아봐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편 게임하이아는 지난 12월부터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꿀잼'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눈싸움', '투명인간' 같은 특이한 게임 모드를 선보이며 악이라도 뻥 것 같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 누가 이 새끼들 좀 말려봐

목을 자를지언정 게임은 끊지 않겠다!



### 보건복지부, "중독법 통과에 힘쓰겠다"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4대 중독법안'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 이종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복지부 차원에서 중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못 게이머들의 욕을 잔뜩 먹고 무병장수 심장생이 되게 생겼다. 중독법은 지난해 4월 또 다른 심장생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 스마트폰 중독이면 게임 중독?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동일시해 수많은 게이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주제였는데, 정작 방송에서는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 스마트폰 중독을 게임 중독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것. 방송은 또한 게임에 빠져 부모에게 막말을 일삼는 청소년의 모습과 게임을 끊고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런 청소년은 대체 어디서 섭외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 2014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태프들과 함께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  
온라인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정규 월호 촬영

◆  
MAXIM PARTY 포스터 모델 및 MAXIM의  
PARTY GIRL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2014년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  
4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

◆  
우승 시, 2015년 MAXIM 매거진 정규 월호  
(1월~12월호 중 하나) 표지 모델로 선정

2013 MISS MAXIM  
최종 우승자 김소희

속옷 섹시쿠키

## 참가 신청 방법

MAXIM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을  
10장 이상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벌써 투표  
시작했다고?



## 콘테스트 진행 방식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MAXIM을 통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 1 인기 투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9일 간의 인기 투표 배틀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한다.  
예선 통과자에겐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화보  
촬영에 들어간다. '이달의 MISS MAXIM' 화보는  
MAXIM 한국판 정규 월호 매거진에 실린다.

이어서, 2014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한다.  
16강부터는 상금액수도 더욱 높아지니 숨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란다!

## 문의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missmaxim@maximkorea.net

## 박지성의 네버엔딩 스토리

홍명보호의 브라질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캡틴' 박지성의 한국 축구 대표팀 복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11년 1월, 그가 대표팀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온 세 가지 논란을 되짚어본다.

BY 김혁중(엑스포츠 뉴스 기자)

발로 쓴  
감동의 역사



장기부터 가야 되는데..



박지성(33, PSV 아인트호벤)의 한국 축구 대표팀 복귀 여부가 스포츠계 빅 이슈로 떠올랐다. 놀랄 것도 없다.

박지성의 대내외적 영향력과 한국 축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 사실 우리는 이런 반응에 익숙하다. 박지성이 대표팀에서 은퇴한 2011년 1월 이후 한국 축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늘상 수면 위로 떠오르던 이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만큼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직접 언급한 터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과연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는 성사될 것인가?

### 논란 1 과거의 박지성이 아니다?

'2014년의 박지성'을 바라보는 빼박한 시선이 있다. 대표팀에서 공식 은퇴한 지 3년이 흘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현재의 박지성은 전성기 시절과 견줘 경기력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 때문에 대표팀에 복귀한다고 해도 홍명보호에 전력적으로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구자철(볼프스부르크), 김보경(카디프 시티), 이창용(볼턴) 등 후배들의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될 것이라는 설부터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번 시즌 PSV 아인트호벤으로 팀을 옮긴 박지성은 여전히 건재하다.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 출전한 2013년 12월 16일, FC 위트레흐트전에서 팀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이 경기 전후로 PSV의 흐름이 확 바뀐 것을 보면 박지성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PSV는 이전 12경기에서 3무 9패로 극심한 부진을 겪다가 위트레흐트전 이후 3연승 행진을 내달리고 있다. 박지성에 가장 먼저 주목한 건 네덜란드 현지 언론이다. 네덜란드 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박지성의 이름이 올랐고, 현지 언론은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일부 포지션을 효과적으로 보강한다면

후반기 막판 스피드가 대단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서른세 살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다. 폭발적 스피드와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는 활동량, 체력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서른세 살은 어쩌면 축구에 대한 눈이 확 트일 나이기도 하다. 경기 전체를 읽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커팅' 능력도 한층 발전할 수 있다. 과거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자국 축구계의 요청으로 유로 월드컵에 참가한 지네딘 지단(프랑스), 루이스 파구(포르투갈), 파벨 네드베드(체코), 헨리 라르손(스웨덴) 등도 모두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 지난해 4월, 퀸즈 파크 레인저스(QPR) 소속의 박지성과 맞대결을 펼친 일본 대표팀 출신의 사우스 햄튼 수비수 요시다 마야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J 리그 선배로 아시아를 대표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박지성을 넘지 못하면 아시아 '넘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직접 부딪혀 보니 그는 여전히 큰 벽이었다. 박지성과 맞대결을 벌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라이벌 한국 선수에게 진 것도 모자라 박지성과 나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논란 2 후배들의 기회를 빼앗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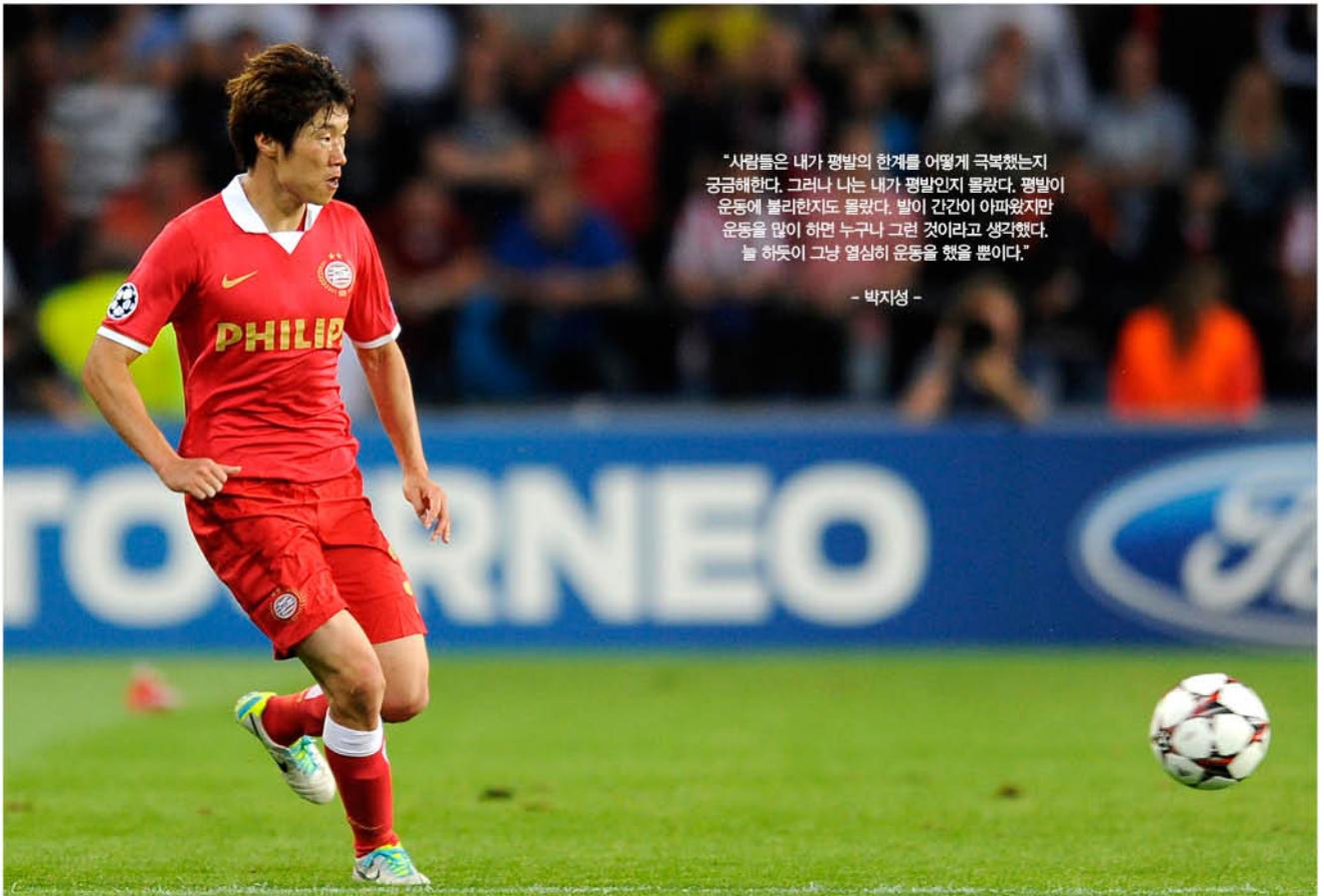
박지성이 대표팀에서 비교적 일찍 물러났고, 현재까지 복귀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박지성은 2011년 1월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 은퇴를 공식화하면서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을 드러냈다. 또 후배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대표팀과 한국 축구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후배 중 박지성과 포지션이 겹치던 구자철, 김보경, 이창용 등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8회 연속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현 홍명보호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만약 박지성의 복귀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이 중 한 명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박지성이 후배들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단정짓고 비난할 이는 아무도 없다. 박지성은 한국 축구 100년사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걸출한 영웅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려는 후배들의 의지가 강하다. 박지성의 존재만으로 개인주의에 물든 대표팀이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의 취임 일성이던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원 스피릿(One Spirit) 원 골(One Goal)"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 박지성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박지성이 아끼는 후배 구자철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 걸린 한일전에서 남다른 승부욕을 보인 뒤 이렇게 얘기했다.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선수로서 많은 점을 느꼈다. 당시 벤치에서 (박)지성이 형의 플레이를 지켜봐야 했는데, 당시 일본의 홈 텃세로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지성이 형이 상대에게 볼을 빼앗긴 뒤 쓰러졌는데, 그대로 다시 일어나 수비 진영까지 내달리며 태클로 상대의 공격을 저지했다. 그 당당한 모습에 나도 지성이 형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논란 3 명예로운 은퇴는 없다?

어쩌면 이 문제는 박지성을 너무 각별히 아끼는 마음에서 발생한 이슈일지도 모른다. 사실 박지성이 홍명보 감독의 복귀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팬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만큼 박지성은 한국 축구를 위해 충분히 헌신했고 희생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함께 '6월의 기적'을 물고온 주역이다. 이후 PSV로 이적해 왕중왕전 격인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국인 최초의 득점자가 됐고, 역시 한국 선수 최초로 '거대 클럽' 맨체스터



"사람들은 내가 평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평발인지 몰랐다. 평발이 운동에 불리한지도 몰랐다. 발이 간간히 아파왔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 누구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늘 하듯이 그냥 열심히 운동을 했을 뿐이다."

- 박지성 -



구자철의 활약에 기여하는 박지성과 이청용. 박지성은 2011년 1월에 있었던 대표팀 은퇴 기자회견에서 "내가 물러나야 좋은 기량을 가진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가 간다."라고 은퇴 사유를 밝힐 정도로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에선 그리스 격파의 일등공신으로 한국 월드컵 역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성과까지 이끌어냈다.

최근 10년간 축구 팬들은 박지성 덕분에 달라진 한국 축구의 위상에 감사해했다. 그 때문에 박지성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마지막 무대로 결정했다. 만에 하나 명예롭지 못한 은퇴 과정을 밟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복귀 자체가 박지성 본인에게 크게 득 될 게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다. 홍명보호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벨기에, 러시아, 일제리를 상대한다. 최악의 조는 피했고, 오히려 최상의 조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월드 클래스 32강이 격돌하는 월드컵 본선에서 민만한 팀은 단 하나도 없다. 평범한 조에서 자칫 16강 진입에 실패했다간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곳이 없다. 열쇠는 박지성에게 넘어갔다. 그의 선택에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만약 박지성이 대승적 차원에서 복귀 결정을 내린다면 얼마 남지 않은 선수 생명을 건 커다란 모험이 될 수도 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무릎 부상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선 모든 선수는 전력을 다해 피 튀기며 싸울 거다. 박지성이 또다시 대표팀 복귀를 거절한다 해도 비난할 이는 아무도 없다. 영원불멸할 아름다운 스토리를 남긴 박지성이니깐. 

## 네드베드의 네버엔딩 스토리

그와 박지성의 평행이론.



체코 대표팀의 미드필더 파벨 네드베드는 1972년생으로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의 '레전드'이며, 2003년 FIFA 발롱도르 수상자기도 하다. 박지성과 포지션이 같고, 심 없이 뛰여 '2개의 심장'이라는 똑같은 별명을 갖기도 했다. 지독한 연습 벌레라는 점도 둘의 공통점. 네드베드는 "하루 12시간씩, 그리운드의 조명이 아예 꺼질 때까지 훈련했다. 마침내 왼발과 오른발의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때 축구 선수로서 첫 희열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유로 2004'에서 네드베드가 왼쪽 미드필더로 나선 체코팀은 우승 후보로 손색없는 경기를 펼쳤다. 조별 리그에서 독일, 네덜란드와 한 조에 속했으나 조별 리그 3전 전승으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8강에서는 덴마크를 3-0으로 완파하며 준결승까지 기세 좋게 밀어붙였다. 결승 길목에서 만난 그리스와 벌인 대결이 처음이자 마지막 고비였다. 연장 끝에 0-1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 당시 네드베드는 후반 종료 직전 부상으로 쓰러지며 눈물을 쏟았다. 네드베드가 연장전을 뛰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 평가가 적지 않았다. 네드베드는 유로 2004 이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대표팀을 떠났다. 그러나 체코 대표팀이 크게 흔들렸다.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의 원동력이 되어주던 네드베드의 대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체코 대표팀은 급기야 네드베드에게 SOS를 청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린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2경기를 앞두고 네드베드가 은퇴를 반복하며 지원군으로 가세했다. '네드베드 매직'은 곧바로 효과를 봤다. 체코는 플레이오프 1, 2차전을 모두 1-0으로 승리하며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분리 독립된 이후 첫 월드컵 본선행이란 감격을 누렸다.



답배 한 개비만 빌려 줄래?

(...반전인데?)

# Sex

## 반전 매력 대해부



'밀고 당기기' 하지 않고도 그녀를 꼼짝 없이 당신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연애기술이 궁금해? 답은 '의외성'에 있다.

BY 손안나



### 의외성은 매력의 바로미터다

매력(魅力)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외모, 스타일, 정서적인 교감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요인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호감 요인과 관계없이도 우리는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느낀다. 바로 상대방에게서 '의외성' 즉 '반전 매력'을 발견한 순간에 말이다. 선머슴인 줄만 알았던 동기 여자가 애가 목도리를 쓰고 있다며 가방에서 탈실 뭉치를 꺼내는 모습, 양전해 보이던 동료 여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트로트를 불러 재가는 모습. 모두 남자로서 하여금 '어? 이 여자 의외인데?' 하는 신선함과 함께 '더 알고 싶다'는 본능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자의 의외성에 매력을

느낀다. 바른 생활 사나이의 외모를 가지고 정말로 바르게 사는 남자는 재미없다. 반면, 하고 다니는 건 순 날라리인데 의외로 행동거지가 FM인 남자에겐 호기심이 생기는 법이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 캐릭터도 여기에 기인한다. 여자들은 정말로 그 남자의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다. 그 나쁜 남자가 나한테만큼은 다정하게 구는 '반전의 순간'을 기대하는 것이다. 무뚝뚝한 그 녀석의 취미가 의외로 '요리'임을 알고 나면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어리게만 보였던 남자 후배가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연상녀와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면 평소에 관심이 없던 그 녀석이 갑자기 섹시하게 느껴진다.



근대 비자는  
왜 안 입은거래?

그게 반전  
매력이야

장이론(Field Theory)을 주창한 독일의 심리학자 커트 레빈은 '긴장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동그라미를 그릴 때 완벽하게 다 이어 그리지 않고 끝에 공백을 조금 남겨두면 끊어진 부분을 마저 잇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긴장 효과' 때문이다. 우리가 수수께끼의 답을 찾거나 책을 보기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심리도 마찬가지다. 흔히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심리적 긴장감이 필수라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의외성은 이 '긴장 효과'를 일으키는 최고의 부스터다. 긴장감 조성에는 밀고 당기기가 최고 아니냐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밀당'이 체득된 남자가 아니라면 선풍리 그걸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에디터도 주변에서 힘 조절에 실패해 너무 세게 밀거나 당겨 일을 그르치는 남자를 많이 봤다.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외의 면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면서 그녀를 끌어당기는 게 더 쉽고 깔끔한 방법이다.

###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 양파 같은 남자라면

반전 매력의 포인트는 언어, 행동, 몸짓, 표정 등을 통해서 평소 자신이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서 외적인 변신을 반전 매력에 포함하기도 한다. 평범한 인경 소녀인 줄 알았는데 콘택트렌즈를 끼고 초절정 미소녀로 변한다든지, 학창 시절 돼지라고 놀림 받던 비만남이 몇 년 후 동창회에서 만났더니 잘나가는 킹카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들. 하지만 에디터가 보기에 이걸 그냥 예뻐지고 잘생겨진 것일 뿐 반전의 매력이 될 수 없다. 외모가 매력이라면 성형외과를 권하지 내가 지금 왜 이 글을 쓰고 앉아 있겠나.

지금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이미지를 조금만 비튼다면, 그것만으로 당신의 매력지수는 200% 상승한다. 예를 들어 주겠다.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남자 후배가 한 명 있다. 우락부락한 외모에 별명이 '최흉만'이었던 이 녀석은 연애, 여자, 섹스에서만큼은 비상한 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중학교 이후로 단 한 번도

여자가 끊긴 적 없는 전설의 인물이었다. 어느 날, 그 녀석의 가방에 달린 자그마한 돌고래 인형을 보고 남자 선배들이 폭풍 비웃음을 시전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의외였다. 요즘 질때 가는 썸녀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달았다는 거다. UFC 파이터 안토니오 실바를 닮은 남자가 귀여운 돌고래 인형을 좋아한다... 과연 여자들이 이걸 좋아할까? 그랬다. 녀석은 그때 이미 '반전 매력'의 포인트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 좀 놀아 본 그녀를 무장해제 시키는 법

사실, 의외성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순진녀보다 남자끼리 만나봤다는 선수에게 더 잘 먹히는 코드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무수한 연애 실패를 경험하면서 남자 보는 눈 하나 만큼은 제대로 키워왔다고 확신한다. 그녀와의 소개팅 자리. 만난 지 3~5분 만에 벌써 그녀는 당신의 외모에 말투, 제스처를 조합해 "이 남자는 교회 오빠 스타일", "이 남자, 약간 선수 같은데?", "만나면 좀 지루할 타입" 등으로 당신을 분류하고 있다.

콧대 높은 그녀로부터 칼자루를 빼앗는 길은 이 분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미스터리 맨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건, 대화 내용이 당신의 외적인 이미지와 정확히 반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소엔 친구들로부터 양아스럽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오늘만큼은 최대한 어리숙하고 순진한 모습을 보이자. 그녀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사명감에 취해 너무 이빨을 떨지 않는 게 좋다. 그녀가 대화 내내 연신 '호호호' 웃으며 당신의 유머에 즐거워했다든, 집으로 돌아가서는 주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남자 너무 날리라 같아서 별로"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물론 당신이 범생이 타입이라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뽕뽕 터트리는 유머감각을 선보여도 좋다. 평소 정신줄 놓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명랑한 캐릭터라면 대화 중간중간 시려 깊고 서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어려울 것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고 약한 것들에 애정을 표하면 된다. 만약 부드러운 인상에 조곤조곤한 말투를 가졌다면 연애했 때만큼은 화끈하게 여자를 리드하는 타입임을 어필하라. 무뚝뚝한 말투에 마초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라면 숨겨왔던 귀염성을 살짝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다.

귀염성?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아양이라도 떨라는 얘기냐고?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자면, 에디터는 '바닐라 라떼' 하나 때문에 어떤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 적이 있다. 운동을 하는 명치 좋은 남자였는데, "제가 단 걸 좋아해서..."라며 수줍게 바닐라 라떼를 주문하는 모습이 어찌나 신선하고 귀엽던지!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는 헤어지는 날까지 카페에 가면 주야장천 바닐라 라떼만 마셨더라.) 100% 다른 사람에 빙의되어 연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 드러내기를 꺼렸던 당신의 의외성을 찾아내서 무기로 삼으라는 거다.

### 그녀의 반전 매력을 깨워라

당신의 의외성을 어필했으면, 이번에는 그녀의 의외성을 발견할 차례다. 여자는 자신 안에 있는 의외성을 남자가 '간파' 해주길 원하고 있다. "커리어 우먼일수록 그녀의 '여성성'을 계속 칭찬하라"는 말이 있다. 독립적인 여성일수록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고 여자로서 자신을 평가해 주는 남성에게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석심리학에서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이라 불린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결혼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여성일수록 결혼에 대한 소망이 강하고, '남녀차별'을 문제로 삼는 여성도 실은 마음속으로는 '남성에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친절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홍상수의 영화 <복춘방향>을 보면 여자들의 의외성을 찔러주는 것이 얼마나 괜찮은 직업의 기술인지 잘 나온다.

양쪽 극단을 찔러주면 여자들이 다 넘어와,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들한테 이러거든.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외향적이고 밝은 성격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우울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같이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나예요."라고 말하지. 극단을 짚어주면 믿게 돼 있어.

그럼 전 어때요?

음.. 겉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고 실용적인 사람 같지만, 속 깊은 곳에는 지나치게 감성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람...?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하다. 제가 정말 그래요!

그게 틀리든 맞든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 남자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의 이면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여자들은 충분하니까. 잘 모르겠다면, 그냥 그녀의 외모 혹은 성격과 반대되는 면을 짚어주면 된다. "사람들은 너를 털털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누구보다 여성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아닌데? 난 전혀 여성스럽지 않아. 네가 잘못 봤네!"라고 정색하는 여자는 없을 테니까. ☺



자, MAXIM을 정독하면 이렇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 It

 여성 전용 코너 For Ladies, 두 달 쉬었더니, 숨어있던 여성 독자들이 슬슬 궁금해하는군. 그러게 리액션 좀 해달라니까.

BY 유승민 MODEL 에디터K, 안재만 PHOTOGRAPH YuD

## ‘오늘, 어쩌면 이 남자와 하게 될 것 같다’

당신, 지금 걸로 내숭을 떨고는 있지만, 왠지 오늘밤은 이 남자와 만리장성을 쌓게 될 것 같은 감이 온다. 그리고 이왕 그렇게 된다면 그에게, 누구와 했던 것보다도 특별한 섹스로 기억되고 싶을 거다. 하지만 딱히 슛총각의 첫경험을 뺀 게 아닌 다음에야 어차피 그가 무수히 했고, 하게 될 섹스 중에 평범한 하나가 되기 십상. 아예 안 하면 모르되, 하고서 ‘그저 그랬다’고 기억되긴 싫지? 당신과의 밤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할 가장 쉬운 방법, 남자의 입으로 알려주마.



### 남자, 시각의 노예

분위기에 지배당하는 여자와 달리, 남자는 시신경의 노예다. 이런 수컷들에게 '특별한' 섹스를 선사하는 장치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거다.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 로망을 자극하는 속옷, 좀 더 나아가면 섹시한 T팬티나 가터벨트, 그들 스타킹까지 남자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 하지만 킬링 아이템을 장착하자니 이런 걱정이 들 거다. '작정하고 섹스하려 나온 여자처럼 보이진 않을까?' 만약 섹시한 미니 원피스를 차려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집에 돌아온다면... 자괴감이 밀려들면서 다신 그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수수한 겹옷 속에 속옷만 예쁘게 차려입는다면? 아무 일 없이 돌아왔을 때의 내상은 덜하겠지만, 만약 유혹에 성공해서 옷을 벗게 될 때엔 좀 창피하겠지. 그가 당장은 눈앞에 펼쳐진 '특별함'에 뜨겁게 반응하며 당신을 덮칠테니 애초의 목적은 달성하겠지만, 웬지 그러고 나면 그에게 '훗, 나를 때부터 나랑 할 생각이었군?' 하는 우월감만 심어주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집어든 필승의 속옷을 다시 내려놓게 된다.

### 고깃덩어리

당신의 성적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나 아한 속옷. 이러한 전형적인 유혹의 도구들은 보통 육체의 마지막 관문을 가리는 '베일'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베일은 벗기 위해 존재하고, 벗겨내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베일이 그에게 주었던 무한한 성적 상상력과 함께 말이다. 더 이상 상상력을 자극할 도구가 없는 원시의 몸이 된 순간, 궤도를 벗어났던 남자의 이성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당신이 주도하는 유혹의 시간은 끝나고 그가 주도하는 정복의 시간이 시작된다. "옷을 다 벗으면 고깃덩어리 같아." 유하 감독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 준영과 첫 관계를 가질 때 연희가 내뱉는 대사다. 영화 말미로 갈수록 연희를 뜨겁게 갈구했던 준영은 점차 식어가고, 마지막 베드신에서 연희는 '고깃덩어리'처럼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있다. 몇 년의 연애를 하든, 단 하루밤의 사랑을 하든 마찬가지다. 남자는 더 이상 상상할 것이 없어지는 순간 당신의 관능에 흥미를 잃기 시작한다. 몸매가 예일리 뽀찐대도 마찬가지다. 이제 남자는 눈앞의 것 외에 무언가를 더 상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상할 것이 없어진 수컷은 더 이상 당신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으로 그 말은, 당신을 향한 관능적 상상력을 계속해서 펼치게 할 수만 있다면 고깃덩어리가 된 후에도 그를 당신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어떻게? '절대 끝까지 내주지 말고 텅기라'든가, '옷을 입고 하라' 같은 공허한 얘기가 아니다. 남자로 하여금 당신을 향한 성적 상상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간단한 시각적 장치를 몇 가지 소개한다.

### '의외로' 자극적인 액세서리

유혹의 도구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상 속의 작은 물건이 침대 위에서 착용하면 가터 벨트 못지않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목걸이, 시계, 안경 같이 평범한 것을 말이다. 온전히 갖춰 입고 있을 땐 의복에 묻혀 눈에 띄지 않던 목걸이도 섹스할 때는 알몸에 걸친 유일한 치장이 된다. 아무리 작은 액세서리라도 남자의 눈이 안 갈 수가 없다. 아무 것도 없는 몸에 그것 하나만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 하나가 당신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한다. 남자에게 그 디테일이 당신과 했던 섹스에 일종의 '테마'를 심어주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그게 체크무늬 머리띠였다면 남자는 그날 밤 당신에게서 청순한 소녀의 풋풋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게 사무실에서 끼던 뿔테 안경이었다면 오피스 섹스 돈는 짜릿함을 120% 만끽했을 거다. 당신이 머리띠나 안경을 쓰고 나왔다고 해서 T팬티를 입었을 때처럼 '까진 여자'로 오해 받을 염려도 없다. 물론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하필 그날따라 알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왔다면, 그는 웬지 강남 명부자 아줌마에게 봉사하는 기분이 들어 썩 즐겁지 않았을 테니. '베일'처럼 여체의 주요 부위를 가리는 전형적인 유혹의 의복류는 벗겨내는 순간 사라지지만, 이런 장신구는 직접 성관계를 수행하지 않는, 예를 들면 손목이나 콧잔등 같은 부위에 자리하기 때문에 굳이

벗길 필요도 벗겨야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갈망하는 순간부터 욕정을 채우는 마지막까지 그의 눈앞을 어른거리며 끊임없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남자들이 로망하는 생활 속 아이템에 관해 썰을 풀자면 사실 잡지 한 권을 꼭 채워도 모자라니 이번 달은 당신의 '손'에 걸칠 수 있는 비장의 아이템들만 모아봤다.

## 1 MAGIC ITEM: 시계

'손에 걸치는' 아이템이라고 하니 당연히 팔찌를 상상했나? 하지만 기억해 뒤라. 남자들은 팔찌보다 시계에 더 반응한다는 사실을. 여자에게 시계나 팔찌나 목걸이 손목에 차는 장식품일지 몰라도, 남자는 기본적으로 손목 시계라는 거에 굉장한 관심을 보인다. 당신에게 유혹 당하는 중에도 이 작고 흥미로운 기계 장치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은 잃지 않지만, 팔찌는 목걸이와 차고 있어도 그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시계 욕심 내는 남자는 봤어도, 팔찌 욕심 내는 남자 본 적 없잖아.

당신이 만약 남자를 만날 때 어떤 시계를 차고 있었다면 그 남자는 분명, 식사를 하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든 온연중에 그 시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당신의 시계가 그 자체로



시계 issey miyake

**Sex** / **For Ladies**



남자에게 성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침대 위에선 다르다. 옷을 벗은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는 섹스하기 전, 그러니까 베일을 벗기 전의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도 사실은 당신과 너무나 자고 싶어 안달했던 밖에서의 욕망이 섹스를 하는 동안에도 그 시계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대로 이어진다. 이 방에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 공들였던 바로 그 여자와 지금 이순간 은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짜릿함이 극대화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순한(?) 목적을 극대화하는 시계는 어떤 걸까? 남자가 여자 시계의 브랜드 따위를 분다거나, 구동 방식이 오토매틱이나 쿼츠냐 하고 따지는 건 아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스타일의 시계를 찾는지는 분다. 여성 취향의blingbling한 주얼리 시계보단 남성적, 중성적 디자인이 남자의 주의를 끌기 쉽다. 여자 시계 중에도 심플하고 보이시해서 남성용 디자인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아예 유니섹스로 나온 것을 많다(그렇다고 조폭 톤의 금상 시계는 말고), 메탈 밴드보다는 심플한 가죽 밴드 시계가 더 예뻐 보인다.

매력적인 오피스룩의 직장 동료는 거의 모든 남성의 공통 판타지다. 견어붙인 흰 블라우스 소매 아래로 하얀 팔에 감긴 가죽 스트랩의 이날로그 시계는 남자의 눈에 묘한 끌림으로 각인된다. 만약 침대 위의 당신에게서 이 시계를 발견하게 된다면? 일에 열중하던 당신의 평소 모습이 아름답게 오버랩되며 '오피스 섹스'의 스릴을 느끼게 한다. 직장 동료와 비밀스런 관계 중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해보라. 분명 평소보다 더 흥분해 날뛰는 그를 보게 될 거다.

### EDITOR SAYS...

"이제 와서 하는 얘이지만, 전에 있던 우리 회사 중역 비서는 아예 남자 시계를 차고 다녔었지. 팔은 더 가녀리고 여성적으로 보이는데다, 왠지 '남자 와이셔츠 하나만 걸친 여자' 류의 로망이 솟더라..."



## 2

### MAGIC ITEM: 클럽 입장 팔찌

아찔한 옷차림과 관능적인 몸짓, 촉촉하게 젖어드는 술기운, 현란한 조명과 짙은 화장. '클럽'이아말로 짜릿한 불금을 꿈꾸는 미지의 남녀가 만나, 의미심장한 눈맞춤을 교환하는 욕정의 화개장터다. 처음 만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원나잇의 환상은 남자들로 하여금 소위 '클럽녀'에 대한 무한한 판타지를 만들어낸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평소보다 두 배 더 아릿해 보인다니까?

그저 종이 찌가리일 뿐인 클럽 입장 팔찌도 앞서 말한 직장 동료의 손목 시계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판타지의 대상이 '오피스' 대신 '클럽'이라는 차이 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당신의 몸에 라벨처럼 붙어있는 클럽 입장 팔찌는 섹스하는 내내 그가 상상하도록 해준다. 현란한 조명과 비트 속에서 처음 포착했던 당신의 매혹적인 모습이 자주 시야에 겹쳐 보이는 거다. 이 종이 팔찌는 클럽에서의 판타지를 침대 위에서 이어지게 하는 멋진 연결고리다. 아마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 스탠드를 해 본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당신이 옷과 함께 이 종이 팔찌를 뜯어버리려 하는 순간, "그거 풀지 말고 그냥 하자" 했던 남자를 한 명쯤은 기억할 거다 (뜨끔하지?).

아, 원나잇 같은 건 안한다고? 굳이 처음 만난 남자랑 자라는 건 아니다. 남자 친구랑 클럽을 가도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남친은 마치 당신을 그날 클럽에서 처음 만나 스파크 튀는 원나잇을 경험한

듯한 판타지를 충족하게 될 거다.

혹시 남친이 당신 몰래 클럽을 다니는 것 같아 걱정이면, 싸우지만 말고 함께 가 줘라. 남들 앞에서 짙은 애정 행각을 해도 눈총보단 부러움의 시선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공장소(?) 가 바로 클럽이지만, 남자에게 성공률 30%를 넘기기 힘든 정글이기도 하다. 아직도 들어왔다 까이기를 반복 중인 다른 수컷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며 남친은 묘한 우월감을 느끼게 될 거다. 그날 밤은 더욱 격렬해지겠지.

### EDITOR SAYS...

"록 페스티벌에서 처음 만난 그녀의 팔에 감겨있던 종이 입장 팔찌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참, 형광봉을 휘어 만든 야광 팔찌도 비슷하게 좋더군요."

## 3

## MAGIC ITEM: 뺱글

섹스할 때 남겨둬서 좋았던 손목  
아이템 중에 '뺱글'이라는 게 있더라.  
얇은 주얼리 팔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지막한 뺱글은 액세서리에 둔감한 남자의 눈에도 확  
띄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이 뺱글만 남겨둔 채 옷을  
벗었을 땐 말할 것도 없겠지. 이 또한 말실에 들어오기  
전과 후의 당신을 향한 욕망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남자가 특별히 좋아하는  
디자인까지 반영한다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 호피무늬에 환상하는 남자라면 호피무늬  
뺱글을 하는 것 만으로도 호피무늬 속옷을 입은 것만큼  
강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속옷은 결국엔 벗어 던져야  
하지만 이걸 끝까지 당신의 몸을 장식하며 그의 편타지를  
충족시켜주니 말이다.

또 한 가지. 이런 '일상적인' 액세서리가 속옷이나 성인용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내는 건 바로 섹스를 한  
다음부터다. 남자의 기억 속에 저 뺱글은 '그날 밤'을 다른  
수많은 밤과 구분지어주는 일종의 시그니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 EDITOR SAYS...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나, 취기에 둘이 빠져나와  
폭풍 섹스했던 그녀가, 두 달 후 아는 형의 여친이 되어  
나타났다. 좀 아해보였던 그날과는 달리 반짝이는 안경에  
청순한 스키니진 차림이었는데... 그녀의 팔에 '그게'  
있었다. 쿨한 척 얘기하던 내 아랫도리가 불끈해졌다."

# 4

## MAGIC ITEM: 네일 아트

클럽에 간 날도 아니고, 시계나 팔찌를 차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걱정마라. 당신에겐 손톱과 네일아트라는 무기가

남아있다. 흔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네일 아트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말하곤 한다. 기껏해야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 게 제일 낫다"고 할 정도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그게 예쁘다는 건 아니다. 그냥 '손톱 치장 같은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다.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10만 원을 덜컥 지르는 남자도 당신이 네일 슌에 가는 건 사치라며 이해할 수 없다 말한다. 남자는 그렇다. 여자의 신체 중에 '손 끝'은 평소에 자기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전혀 아니니까.

(암컷들 앞에서 "전 여자분을 처음 볼 때, 눈을 봐요, 손을 봐요, 목선을 봐요" 하는 새끼들 정말 입을 찢어버릴라) 하지만 당신이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침대 위에서는 손 끝의 네일 아트가 수컷의 둔한 눈에도 빛을 발하게 된다. 돌만이 있는 말실에서 당신이 그의 가슴에 살짝 손을 얹든, 그의 셔츠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주든, 내숨을 뿜며 살짝 그를 밀쳐내든, 그러다가 우악스러운 손길에 손목을 구속당하든, 남자는 두 눈 크게 뜨고 당신의 손 끝이 닿는 곳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니깐.

그렇다면 모든 네일 아트가 남자를 불끈 달아오르게 할까? 남자는 네일 아트가 너무 휘황찬란하면 혐오감을 느낀다. 형형색색에 번쩍번쩍 비즈가 박히고 난리인 그런 손톱말이다. 네일 아트를 보는 안목 따위가 있을 리 없으니 그런 건 싸잡아서 '마귀할멈 손톱'일 뿐이다. 게다가 당신의 손톱이 길고 화려할수록 '센 여자'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남자를 끈추서게 하긴 커녕, 주눅 들게 하기 심상이다. 흑시라도 얼굴이 좀 세보이거나 성깔있는 타입이라면 더더욱.

손끝에서 뿜어져나오는 당신의 성적 매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네일 아트는 최대한 단순하고 색채가 강하지 않은 귀여운 스타일을 택해라. 20대라면 파스텔 톤의 프렌치 네일 정도가 적당하다. 30대라면 좀 더 고혹적인 컬러를 선택해도 좋지만 디자인은 최대한 심플하게.

블랙에 가까운 짙은 컬러는 위험적으로 보이니 피하는 게 좋다.

### EDITOR SAYS...

그녀가 침대 위에서 귀엽게 무릎을 끌어안고 날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검정색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발톱이 보이길래 물었다. "버거씨 병"이나?" 그후로 그녀를 다신 만날 수 없었다. 

• 버거씨 병: 과도한 흥연으로 사지 멀단이 과사되는 병. 초기에 손발톱부터 강게 색이 들어간다.

# Smoke & Drink



아가씨의 다리에  
신의 축복을...

아멘.

**VALENTINS  
HEFEWEISSBIER**  
5.3%, 500mL  
1,750원  
(홍들러스 기준)

## 밸런타인데이 맥주 발렌티스 헤페바이스

발렌티누스 성인의 뜻을 받들어 오늘날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녀를 자빠뜨려라.  
준비됐다면 발렌티스 맥주 일발 장진! BY 손안나

오빠,  
나랑 한잔  
할까?



→ 많은 이들이 밸런타인데이가 1960년대 일본의 초콜릿 회사에서 만들어낸 상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의 문학가 찰스 램의 수필 <밸런타인데이>를 보면, 이미 19세기 영국에서도 2월 14일마다 연인들 혹은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이 편지를 주고 받았고, 이를 '밸런타인'이라 불렀다고 나온다. 그보다 앞선 14세기 영국의 국민 시인 제프리 초서는 "2월 14일은 모든 새들이 교미할 짝을 찾으러 오는 특별한 날"이라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밸런타인데이가 거사를 위한 스페셜 데이인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날 그녀와 마시기 좋은 데이트 맥주로는 어떤 게 적당할까? 밸런타인데이라고 어설프게 초콜릿이 함유된 맥주를 건네지는 말자. 그레 봤자 맥주라서 초콜릿처럼 달콤하지도 않거나 맛과 향도 꽤 낯선

편이다. 한 두 모금 시도해 본 그녀가 "오빠 나 이거 그만 먹어라" 하면서 GG치는 순간, 그날 밤 당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다. 차라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밀맥주를 공략하는 게 어떨까? 발렌티스 헤페바이스는 발렌티스라는 독일의 맥주 회사에서 출시하는 밀맥주다. 발렌티스는 맥주 라벨 전면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이다. 그렇다. 밸런타인데이의 기원이 된 성 발렌티누스 주교 말이다. 일단 맥주를 따본다. 기분 좋은 감귤 껍질 향이 은은하게 코끝을 자극한다. 잔에 따라내니 거품이 꽤 풍부하게 차오른다. 맛은 가벼운 편이다. 사람에 따라 '가볍다=싱겁다'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부담이 없다 보니 훌쩍훌쩍 들이키게 된다. 탄산 역시 강하지 않아서 그녀 앞에서 이빨 털다가 "고역" 트림으로 분위기 망치는 일도 없다.

"성인이 순교한 성스러운 날에 연인들이 시시덕거리는 게 가당키나 하나!" 이맘때면 항상 등장하는 뜬구름이다. 로마 시대에는 병사들의 결혼을 금지했다. 배우자가 그리워 군인들이 탈영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 발렌티누스 주교는 이들이 몰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나중에 이 일이 왕에게 발각되어 몰매를 맞아 죽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 성 발렌타인 축일이다.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연인들의 사랑을 응원한 그러면 자신의 순교일에 더 많은 연인이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꼭 그의 뜻을 받들도록 하자. 맥주를 앞에 놓고 한참 그녀에게 이빨 털다 보면, 먼 산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라벨 속 발렌티누스 주교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너 이 녀석, 지금 잘하고 있다"고. 🍷

### 불쇼하는 법

당신을 100배는 더 미남으로 보이게 할 불쇼 스킬을 난이도별로 전수해준다! BY 김희성

#### 1 입으로 불 뿜기 난이도 상

바카디151을 입 안에 머금는다. 바카디를 내뿜기 전에 반드시 입속 공기를 모두 빼야 하는데, 바카디를 조금 뱉으면 입 안 공기가 없어진다. 손에 불을 붙인 다음, 목을 살짝 빼 고개를 손가락 쪽으로 내민 뒤 뿜으면 된다. 너무 세게 불면 손가락의 불이 꺼지고, 약하게 불면 얼굴에 화상을 입으니 중간 세기로 불 것. 손과 입술의 거리는 대략 1cm 정도면 적당하다. 다같이 외쳐, 요가파이어!!!!



※이거 함성 아님.

#### Helper

신호민(a.k.a ALEX)

8년 동안 바텐더로 활동하면서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궁극의 칵테일 기술을 연마했다. 현재 국내 주류 회사에 근무하며 주류와 칵테일을 연구 중이다.

요가파이어

촬영장에 불쇼하는 법



빠... 빨리 짚어.

#### 2 손에 불붙이기 난이도 하

불 뿜기가 무서워서 차마 못 하겠다면 <킹 오브 파이터즈>의 구사나기 료라도 되어보자. 이걸 정말 당신도 할 수 있다. 왜냐면 겁많은 에디터도 금방 따라 했으니까. 바카디를 손가락에 찌고 살짝 떨어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불붙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어서 그나마 덜 뜨겁다. 보통 2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며 당신이 참을 수 있는 만큼 버티 봐도 좋지만 5초 이상은 무조건 화상 당함.



#### 3 불검 만들기 난이도 중

칵테일을 만들 때 쓰는 스텝으로 된 컵(전문용어로 틴)에 바카디를 소주 두 잔 정도 붓는다. 바카디에 불을 붙이기 전 수건을 적서 틴을 감싼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안 그러면 달궈진 틴에 손을 지지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사진처럼 칼을 기울인 다음 칼 손잡이 부분부터 불붙인 바카디를 조심스럽게 따른다. 지금 당장 골드 드래곤을 물리치러 모험을 떠나야 할 것 같은 굉장한 비주얼의 불검이 탄생한다.

#### Tip 불쇼 작업주 만드는 법

음료수랑 구분 안 되는 도수 약한 칵테일만 주문하는 그녀도 거부할 수 없는 화심의 불꽃 쇼! 쇼! 쇼!



밤에 오즘 싸겠어.

- 1 잔에 크랜베리 주스를 따른다.
- 2 틴 안에 바카디를 담고 불을 붙인 화주를 그 위에 붓는다. 그러면 크랜베리 주스잔은 활활 불타는 생배가 되고, 불붙은 잔의 비주얼을 본 그녀의 마음에도 당신을 향한 스파크가 된다.
- 3 그윽한 눈빛을 보내며 그녀에게 잔을 건넨다. 바카디에 불을 붙여도 알코올 도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 불 쇼는 페이크!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독한 술을 먹이는 꼼수다.

### 하드코어 금연 비법

금연을 다짐한 이들의 고군분투. 이럴 거면 그냥 피우지 그래... BY 김소윤



#### 1 담배 말고 두부를 달라!

2013년 5월,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31세의 한 여성이 교도소 앞에서 서성이다 다짜고짜 경찰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해 63일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철저한 계획된 사건이었다. 이 여성은 담배가 없으면 단 1시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웠다. 금연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고민하던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아이디어! 모든 게 통제되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 금연을 하는 거였다. 그녀는 교도소 앞을 몇 시간 동안 지키다가 경찰이 다가오자 미친년처럼 달려들어 불꽃 싸대기를 날리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담배를 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라고 외치면서...

#### 2 금연 두 번 했다가 꼴로 가겠네

2011년 중국에서는 군인들의 병신같은 금연법이 화제가 됐다.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병사들이 힘든 자세로 눈물을 흘리며 담배 한 움큼을 뺨뺨 피워대고 있다. 그들은 담배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해 담배의 'c' 자만 봐도 치가 떨리게 만드는 교육책을 선택한 것. 방법은 간단하다. 담배 여러 개를 입안에 옥여넣고 불을 붙인 뒤, 양손을 앞으로 내민 채 쉬지 않고 필터를 빨아들인다.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눈과 코로 모두 들어가고 중간에 공기를 마실 수도 없다. 사진의 게시자는 이렇게 한 번 피우면 한동안 담배는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휴. 저러다 뒤지지.

#### 3 한니발 렉터?

터키의 한 40대 남성은 금연을 위해 얼굴을 아예 새장보다 촘촘한 철장 안에 가둬버렸다. 열여섯 살 때부터 26년간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우는 그는 계속되는 금연 실패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고안하게 됐다. 그는 오토바이 헬멧에서 영감을 얻어 이 무시무시한 철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인육을 즐기는 살인마 한니발의 입 주변에 씌워진 철제 가면을 떠올리게 한다. 촘촘히 이어진 구리선 사이로 빨대를 쑤셔 넣어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는 매일 아침 헬멧을 쓰고 열쇠로 잠근 후, 열쇠는 부인에게 주고 회사로 출근한다. 근데 밥은 어떻게 먹을 거야?

### 눈길을 사로잡는 간지 패키지

끼끗웃 새로 사 입었쪄요?



#### 위트 있는 멋쟁이

타임에서 '도심 속의 편안한 휴식'이라는 콘셉트를 전달하기 위해 SNS 시인 하상욱의 단편 시를 패키지에 담았다. 2013년 6월호에서 MAXIM과 인터뷰를 하기도 한 하상욱의 단편 시집 <서울 시>는 30대 직장인의 격한 공감을 사며 지난해 SNS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에 리뉴얼된 허밍 타임, 타임리스 타임, 타임리스 타임 마일드 패키지에는 각각 <알렘>, <모기>, <출근> 등의 시가 실려 있다.



#### 뽀뽀뽀 해도 반전 매력

영화 <마스크> 속 짐 캐리가 가면을 벗기 전과 후 전혀 다른 매력으로 캐머런 디아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흡연자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제 나름의 반전 매력으로 중무장한 제품이 나왔다. 신사와 벌새를 주제로 한 보헤미안 미니 한정판의 패키지는 겉면에 메탈 느낌의 포장지로 한 겹 더 싸여 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포장지를 뜯는 순간 신사와 벌새가 쓰고 있는 모자가 벗겨지며, 그 안에서 작은 벌새들이 푸드덕푸드덕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 잘 커줘서 감사합니다

소녀에서 섹시녀로 폭풍 성장한 스칼렛 요한슨과 더원 오리지널 패키지의 평행이론이 궁금해? BY 손안나



.....



잘 커준 더원 하나가 열 담배 안 부럽다니까?



#### 남다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스칼렛 요한슨의 변신은 놀라웠다. <아이언맨 2>의 블랙 위도우 역할을 위해 탐스러운 금발을 새빨갈게 염색하고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전신 슈트까지 입었다. 뭘 좀 아는 어른 남자뿐 아니라 초딩 남자아이들까지 열광했다. <나홀로 집에 3>의 단발머리 소녀가 자라서 마침내 남자색 섹시 스타로 우뚝 선 거지. 2014년 2월, 더원 오리지널 역시 한층 더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새로운 변신을 선보였다. 떠오르는 태양과 바다에 비친 태양을 모티프로 표현한 더원 서클, 패키지의 서클에 빛나는 태양처럼 반짝이는 홀로그램을 새겼다. 과연 넘버원다운 고급스러움이다. THE ONE ORIGINAL, 아주 잘 컸네!



1997년, <나홀로 집에 3>



#### 1 떡잎부터 다르다

<나 홀로 집에> 시리즈가 몇 달 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새삼 누리꾼의 주목을 끈 이유는? 주인공의 누나로 나온 단발 소녀가 어린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 열네 살답지 않은 도도한 에티튜드, 5 대 5 가르마에 똑딱이 핀을 꽂아도 느껴지는 미모 아우라. 동생에게 꼬장부리는 모습이 전형적인 짜증 나는 누나 년인데도 그 허스키한 보이스에 몸이 녹는다. 질릴 뎀은 떡잎부터 알아본다잖아? 초창기 더원 패키지도 그렇다. 서클이 없는 패키지가 어쩐지 낯설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 측면에 부드럽게 흐르는 물결무늬가 지금까지 변함없는 더원의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



2003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2 본(Born) 아이덴티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영화로 꼽은 작품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다. 청순한 외모지만 눈빛에서 관능미가 철철 넘쳐흐르는 그리트를 연기한 그녀는 이때부터 대중에게 '스칼렛 요한슨 = 섹시'라는 영광스러운 이름표를 얻었다. 지금의 섹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을 있게 한 것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였다면, 지금의 더원 오리지널을 있게 한 것은 두 번째 업그레이드 패키지였다. 깔끔한 화이트 배경 한가운데 박혀 있던 더원의 화려한 심플 서클이 어찌나 인상 깊던지!



2008년,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 3 폭풍 성장

그녀는 이후 영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에서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매력녀 크리스티나를 연기해 남성 팬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심지어 페넬로페 크루즈와 과감한 레즈비언 키스신까지 불사했으니 영화 속 그녀가 얼마나 화끈했는지 감이 오지? 요한슨은 이 영화로 명감독 우디 앨런의 '뮤즈'로 떠올랐다. 가슴으로 하는 그녀의 연기에서 배우 포스가 술술 풍겼다. 더원 오리지널도 마찬가지. 요한슨의 풍만한 가슴만큼 더 커진 더원 서클. 덕분에 더원 오리지널이 더욱 위풍당당해졌다. 10년 연속 초저타르 1위 담배다운 당당함이랄까?



이렇게  
예쁘면  
반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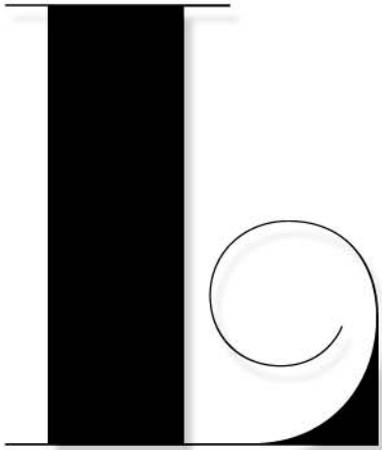
TOUCH OF

# FWA

인기 미드 <위기의 주부들> 시리즈로 역사상 가장 섹시한 이웃집 여자 반열에 오른 에바 롱고리아, 프로그램 제작자, 비즈니스 우먼, 자선가로 바쁘게 활동 중인 그녀를 MAXIM 미국판이 '2014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이 완벽한 여인이 못하는 게 있기는 한 걸까?(힌트: 답은 No다)

BY PATRICK CARONE  
PHOTOGRAPH RANDALL SLAVIN





라틴계 여배우들은 섹시하다. 그중 단연 손꼽히는 미모를 자랑하는 에바 롱고리아는 요즘 어머머하게 바쁘다. 그녀는 곧 개봉할 영화 <레퓨지오>, <프론테라>와 인디 드라마 <애니 데이>를 촬영하고 있고, 제작에 참여한 TV 시리즈 <디비어스 메이드>의 두 번째 시즌은 2014년 4월에 방송될 예정이다. 거기가 그녀가 설립한 회사 'UnbeliEVAbLe'은 현재 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계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도 한창이다. 게다가 밖에서 멋지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방 안에서는 속옷만 걸쳐도 이렇게 눈부시다니... 에바 롱고리아보다 '2014 올해의 여성'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축하한다! 에바, 당신이 바로 MAXIM 미국판이 선정한 '2014 올해의 여성'이다.**

감사해요! 처음으로 MAXIM 커버를 찍은 9년 전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동안 MAXIM과 여러 번 작업하며 참 즐거웠어요.

**우리도 당신과 만나는 일이 매번 즐거웠다. 이것으로 MAXIM 표지를 세 번이나 장식했다.**

세상에나! 처음 MAXIM 표지를 찍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였죠.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로 한창 바쁠 때라 정신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아주 좋았어요. 아름다운 황금빛 세트가 인상적이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번 촬영이 가장 특별해요. 그동안 저에게 섹시하다는 의미가 좀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변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섹시함'의 정의는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이번 촬영 동안 제게 섹시하다는 것은 '자신감', '성공'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촬영하던 첫 번째 경험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군. 그나저나 눈이 멀 정도로 아름답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원피스 Alexander Wang  
(왼쪽 페이지)  
슬리브 la perla

**이미 그런 것 같은데? 점점 더 예뻐지는 비결이라도 있나?**

요즘에는 달리기를 해요. 운동을 하니 먹고 싶을 때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달리기는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아주 좋죠.

**패스트푸드같이 살피는 음식도 먹나?**

텍사스 출신이라 텍스멕스(Tex-Mex, 텍사스식 멕시코 요리)를 좋아해요. 정통 멕시코 요리와는 약간 다르죠.

**배우 외에도 제작자, 비즈니스 우먼, 자선가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발표 때문에 인터뷰 스케줄도 조정해야 했다고?**

맞아요. 곧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에요. MAXIM 과 인터뷰를 하고 바로 열공 모드로 전환해서 논문에 집중할 자신이 없었어요(웃음). 고등학교 시절에는 카멜레온처럼 재빠르게 변하곤 했어요. 수학 동아리의 모범생 친구들과 어울리다 치어리더 연습을 하러 가고, 연습이 끝나면 밴드 음악에 심취한 과짜 소녀로 돌아갔죠.



“

*I feel like the  
definition of sexy  
constantly changes.*

섹시함의 정의는 늘 변하는 것 같아요.

”

속옷 Kiki de  
Montparnasse





“

*I was a band  
geek back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는 밴드에 꼭 빠진 소녀였죠.

”

당신이 제작에 참여하고 주인공 목소리까지 연기한 애니메이션 <마더 업!>에서 꽤나 무책임한 엄마를 연기하던데...

제가 맡은 루디 윌슨이라는 캐릭터는 **피터 그리핀\***의 여자 버전이에요. 여자도 그런 독특한 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죠. TV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은 늘 완벽해요. 루디처럼 엉뚱하고 부족한 어머니 캐릭터도 하나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패밀리 가이>에 등장하는 아버지 캐릭터. 산만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비만인이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재밌지만 어두운 면이 있는 블랙코미디인데?

날카롭고 어두운 유머를 좋아해요. <위기의 주부들>의 감독 마크 체리도 드라마를 통해 그런 유머를 아주 잘 그려냈죠.

요즘 엄청 바쁠 텐데, 긴장을 풀고 싶을 때 즐기는 취미가 있나?

요리요. 제가 얼마나 가정적인 여자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주변 사람들은 MAXIM 속 섹시한 제 모습을 보다가,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밀가루를 뒤집어쓴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모습마저 섹시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모든 남자가 알아야 할 스페인어 하나를 알려달라.

“Que rico(퀘 리코)!” 뭔가 엄청 좋은 걸 보거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을 때 외치세요. 예를 들어 이 MAXIM 화보를 볼 때 말이죠. “Que rico!” 



# Stuff

GEAR OF  
THE MONTH



## DIY 기기 시대의 도래 프로젝트 크리스틴(Project Christine)



“오빠가 우리 미영이네 가서 컴퓨터 좀 조립해줄까?”  
라는 개수작은 이제 안 통한다. BY 조용재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비장한 얼굴을 하고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진다. 강렬한 스트라이크를 쫓는 박찬호.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또 다른 박찬호가 나타나 퓨전을 하더니 좀 전보다 더 강력한 강속구로 포수를 날려버린다. 1999년,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한 '삼보 체인지업'의 광고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PC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구입한 지 1년 된 PC는 반값도 못 받고 팔아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그래서 삼보컴퓨터는 '구입 후 2년 된 PC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는' 조건으로 PC를 왕창 팔아먹기 시작했고, 1998년 터진 IMF 경제위기 상황을 무사히 모면했다.

이번 2014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미국 정보기술(IT)전문 매체 <엔가젯>은 '최고의 PC'로 레이저의 콘셉트 PC '프로젝트 크리스틴 모듈러'를 선정했다. 프로젝트 크리스틴은 하드웨어를 간단히 슬롯에 꽂는 구조의 모듈식 PC로, 입맛에 맞게 VGA, HDD, RAM 등의 모듈을 빈 슬롯에 끼우기만 하면 된다. PC 조립이나 업그레이드가 게임기에 게임팩 꽂듯 쉽게 해결되는 미래형 DIY PC의 대안인 셈이다.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케이블을 정리할 일도 없다. 각 모듈은 미세칼 오일이 담긴 유(油)방식 내장 쿨러를 탑재하고 있어 더 이상 '부품'이 아닌 하나의 완제품처럼 취급된다. 오버클럭 상태로 계속 두어도 과부하가 일어날 일은 없다고 하니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호환성을 따지며 최신형 모델을 찾고, 조립할 땐 공임비를 지불하는 소모전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 전, 노트북 하나 구매하려고 밤을 새우며 다나와를 뒤지던 유승민 선배를 생각하니 눈가가 촉촉해진다.

하지만 여자 후배의 자취방에서 PC를 조립해주며 "우리 이제 서로의 몸을 함께 조립해볼까?" 하는 개드립을 날리는 일도 이제 불가능하겠다. 사서 끼우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여러 브랜드의



### SPEC CHECK

디스플레이 LE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호환성 PCI-Express 인터페이스 규격  
오버클럭 지원 팩토리 오버클럭 적용  
그래픽 카드 Quad SLI 지원  
하드디스크 SSD + 레이드5 HDD 구성  
쿨러 미세칼 오일 유냉식 쿨러  
제조사 레이저(RAZER)

모듈들이 전자기기 대리점에 라면처럼 진열되어 있을 테니 '똑똑한 컴덕후 오빠'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다. 날 병신으로 만든 크리스틴 이 나쁜 X야. 나오기만 해봐라. 오빠가 SSD를 네 슬롯에 다섯 개씩 꽂아줄 거야. 🍷



진짜 작동하는 거 맞아?



## 네 멋대로 해라

니 골리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DIY 물건들.



### Keizus Quadropod

'쿼드로팟(Quadropod)'이란 다리가 네 개 달린 '사발이'를 뜻한다. 트라이팟(Tripod)이 '삼각대'인 것을 생각하면 대충 어떤

물건인지 상상이 갈 거다. 집게가 달린 대가리로 스마트폰을 집어서 원하는 각도로 관절을 꺾어대며 가시각도를 조절하는 물건이다.



### Motorola Ara

크리스틴에 앞서 모토로라가 먼저 발표한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 올해 출시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아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사용자가 각 하드웨어를 골라 장착하는 형식으로,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 위해? 어차피 케이스 씌우고 다닐 텐데.



### Modular Robotics MOSS

'모스'라 불리는 이 정체불명의 물체는, 작은 큐브들을 자성을 이용해 연결한 후

프로그래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퍼즐을 하듯 작은 조각들이 하나의 로봇을 이루어 움직이는데, 아마 현재 단계에서는 뺑셔를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씨가 못난 주인도 잘생겨 보이게 하는 만년필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고, 좀 있어 보이려거든 만년필을 써라. BY 박정욱



**1**  
그라폰 인튜이션 플루티드 / 600,000원

단조로운 레진 소재의 펜대에 실망했는데 백금으로 도금된 뚜껑을 여는 순간 펜촉의 화려함에 시선경이 황홀해진다. 수공으로 제작된 18K 투톤 골드 펜촉엔 그라폰의 왕관 로고가 새겨져 있어 더욱 귀티가 난다.



**2**

파버카스텔 엠비션 코코넛 / 210,000원

호피 무늬를 닮은 독특한 결의 코코넛 나무와 반짝이는 크롬 도금 메탈이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 독일의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파버카스텔 제품답게 펜촉에 한 땀 한 땀 수놓은 도트 무늬도 인상적이다.



**3**  
크로스 센츄리2 러스크롬 / 142,000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썼던 만년필로 유명하다. 메탈 소재라 손에 미끄러질 것 같다고? 미세한 세로 줄무늬 덕분에 손에 착착 감기는 그림감이 예술이다.



**4**

플래티넘 센츄리 #3776 / 220,000원

1978년 등장한 #3776은 플래티넘 만년필의 스테디셀러다. 14K 금으로 도금된 펜촉에 새겨진 #3776은 후지산 정상 높이 3,777m를 의미한다. 펜촉에 귀엽귀엄한 하트 모양의 무늬도 있어 밸런타인 선물로도 괜찮겠다.





# 5

## 워터맨 까렌 컨템퍼러리 / 460,000원

워터맨 만년필은 1883년 뉴욕의 보험외판원 워터맨이 불량 펜 때문에 중요한 계약을 날리고 빠져서 직접 만년필을 만들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18K 백금으로 도금된 펜촉이 펜대 안에 숨어서 정수리만 빼꼼 내놓은 후드납\* 디자인이 세련됐다.

\*펜대 손잡이가 펜촉을 감싸 펜촉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



## 펠리칸 M400 / 450,000원

# 6

14K 투톤 골드 펜촉이 보이에도 고급스럽다. 펜촉에는 펠리칸이 그려져 있으며, 펜 뚜껑에 달린 클립의 모양은 펠리칸의 부리를 모티브로 만들어 재미있다. 펠리칸의 펜촉은 축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한자 또는 필기체를 쓸 때 편리하며, 왼손잡이도 쓰기 쉽다.



## 파카 뉴쇼넬트2 / 300,000원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핑크골드 컬러가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럽다. 뉴쇼넬트2에 쓰인 파카의 18K 백금 펜촉은 필기감이 부드러워 쓰기도 편하다. 게다가 붓으로 거칠게 칠한 느낌의 펜대 질감 덕분에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다양한 환자가 써도 문제 없겠다.



# 8

## 쉐퍼 타라니스 / 240,000원

미국 출신 유명 건축가 찰리스 데바스가 디자인한 만년필. 모던한 곡선의 펜대와 쉐퍼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진 크롬 손잡이는 이 만년필이 미래에서 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펜촉이 보일락 말락 한 세미 후드납이 적용돼 잉크가 쉽게 마르지 않는다.



## 만년필 만년 동안 쓰는 법



### 1 매일 필기하고 세척한다.

만년필은 매일 사용해 잉크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게 좋다. 쓸 게 없으면 낙서라도 해라. 만년필 고장 원인의 80%가 정기적인 세척을 하지 않아서다. 만년필을 세척할 땐 캡 안에 튀어 묻은 잉크도 면봉이나 타슈로 깨끗이 닦아줘야 한다.

### 2 필기 시 각도는 45~55° 정도가 좋다.

고추든 만년필이든 각도가 중요하다. 펜을 너무 세워서 필기하면 알갱이 필기할 수 있고 잉크 소모도 줄지만 끊길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글씨가 두꺼워진다. 대부분의 만년필 제조사는 45~55° 각도에서 시필한 후 제품을 출시한다. 이 각도가 최적의 각도이기 때문이다.

### 3 필압을 빼고 사용한다.

너무 손에 힘을 주고 글씨를 쓰면 축이 벌어져 잉크가 많이 흘러 글씨가 두꺼워지거나 잉크가 샌다. 필압이 강한 삼손 같은 인간은 펜대의 뒤편을 잡도록 하자. 자연스레 힘이 빠질 것이다.

### ‘병만족’도 반할 캠핑 아이디어 용품 8가지

캠핑 고수들이 즐겨 쓰는 이 신기하고 편리한 용품들이 당신을 아웃도어의 세계로 인도한다. BY 김소윤

지금 당장  
침을 싸시오



#### 신개념 입는 침낭

##### 셀크백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출출하다. 하지만 따뜻한 침낭 속에서 나가는 게 너무나도 싫다. 이런 내적 갈등 상황에 짜증나 본 적이 있는 캠핑족이라면 지금 당장 장만해야 할 신개념 침낭이 있다. 입는 침낭 셀크백에는 지퍼와 목 부분에 보온재가 달려 있어 안락한 꿀잠을 보장하고,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 자다가 침낭을 입은 채로 텐트 밖으로 나가 활동하기 편하다. 불일을 볼 때 무릎 위로는 거의 할벗은 상태가 되는 것만 빼면 완벽한 제품. 누가 바지에 지퍼 좀 달아주오 문의 셀크백([tipitent.co.kr](http://tipitent.co.kr)) 가격 198,000원

####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한끼

##### 바로쿡

번거롭게 불붙이느라 애먹지 않아도 산 정상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 이 마법의 그릇에 담긴 발열체에 물을 부으면 열팩이 부풀어 오르며 물이 뜨거워지고, 그 열로 스테인리스 용기를 데워 조리하는 거다. 인체에 무해한 발열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최근 재난이 발생한 미국, 일본 등에서 불티나게 팔린 핫 아이템이라고.

문의 바로쿡([barocook.net](http://barocook.net))

가격 1,200mL 43,000원



#### 매고 다니는 의자

##### 오프로드 의자 배낭

산행 중 잠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아무 데나 막 주저앉았다간 찌꺼기무시병에 걸려 피를 토하게 될 수도 있다. 오프로드의 의자 배낭은 접이식 의자와 캠핑용 배낭을 합쳐놓은 형태로, 언제든 원할 때 펼쳐 앉을 수 있다. 의자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볍고 튼튼하다. 또한 가방 외부에 의자가 달려있어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이 가방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록페스티벌, 스탠딩 공연장, 심지어 지하철 탈 때도 매고 가고 싶어질 거다.

문의 오프로드([shop.offroad-korea.co.kr](http://shop.offroad-korea.co.kr))

가격 139,300원



#### 등 뒤의 에어백

##### 백컨트리 액세스 플로트

눈 덮인 겨울 산은 언제나 위험하다. 언제나 눈사태가 날지도 모르고, 얼음 바닥에 미끄러지면 굴러서 하산하는 고라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게 겨울 산을 즐기고 싶다면 이놈을 꼭 챙겨 가져. 이 백팩에는 자동차에만 달린 줄 알았던 에어백이 달려 있거든. 바위에 쳐박기 직전에 이 백팩이 기적처럼 부풀어 올라 당신의 대가리가 터지지 않게 지켜줄 거다.

문의 백컨트리 액세스

([backcountryaccess.com](http://backcountryaccess.com))

가격 584,000원



**포개 쓰는 조명**  
**콜맨 퀘드 LED 랜턴**

크고 좋은 건 나눌수록 좋은 법. 콜맨의 퀘드 LED 랜턴은 하나의 랜턴이 4개의 패널로 분리되기 때문에 각각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75시간 동안 연속으로 쬐 수 있고, 각각의 패널은 충전식 전지가 들어 있어 본체에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된다. 거대한 덩치와 어울리게 밝기는 379lm(루멘)으로 콜맨 랜턴 중 최대 광량을 자랑하는, 꽤나 밝히는 녀석이다.

문의 콜맨 코리아(coleman.co.kr)  
가격 132,000원



**로맨틱한 캠핑의 화용점점**  
**통나무 버너**

모닥불 앞에서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대찬 바람 때문에 장작불이 불기도 전에 불쏘시개가 꺼져버리기 일쑤다. 개고생 그만하고 낙엽송으로 만든 친환경 통나무 버너를 준비하자. 통나무 안쪽으로 이어진 심지에 불을 붙이고 공기 흡입력을 높여주는 연통을 연결한 후 조금만 기다리면 어느새 불꽃이 솟는다. 나무 안쪽부터 타오르는 불에 고기를 구우면 나무 향이 제대로 밴 훈제 별미를 보너스로 맛볼 수도 있다. 고기는 역시 불맛이제!

문의 통나무 버너(logbn.com)  
가격 17,000원



**초간편 냄비**  
**플래포트**

야외에서 직접 해먹는 꿀맛 같은 음식은 모든 아웃도어 활동의 꽃!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라 공간만 잡아먹는 조리용품 대신 손쉽게 접어서 사용하는 플래포트로 캠핑의 화용점점을 찍자. A4 용지보다 약간 더 큰 판의 네 귀퉁이를 접어서 버너 위에 올리면 순식간에 냄비가 완성된다.

은박지 같이 생겼다고 무시하지 마라. 포스코의 특수 연질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들어 환경 호르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열전도율이 높아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

문의 플래포트(flaptop.com)  
가격 16,500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힐랜더 루프탑 텐트**

오토캠핑이 유행인 가운데 차 위에 텐트를 쳐 이색적인 숙박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텐트가 인기다. 야생에서 캠핑할 때 동물의 습격을 피해 안전하게 잠을 자기 위해 고안한 루프탑 텐트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OK! 울퉁불퉁한 돌밭도 몇 분 내에 훌륭한 잠자리로 바뀐다. 힐랜더 루프탑 텐트의 두께 6cm 매트리스 위에서 제대로 신선놀음을 해보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문의 힐랜더 코리아(hillandermall.com)  
가격 3~4인용 2,145,000원



### Snow Jobs

이제 당신은 이놈들을 사용해 보고 싶은 욕심에 예정에도 없던 겨울 산을 타게 될지도 모른다.

#### Leatherman Hail

여러 용도의 칼이 한데 모여 있으니 가방에 걸어놓고 사용하기에 딱이다. 최소한 필요한 칼을 찾을 때마다 가방 속을 뒤적이는 수고는 안 해도 된다. 드라이버, 대패 역할을 하는 스크레이퍼, 렌치 등 각종 장비가 당신의 옆구리에서 항시 대기 중이니 맥가이버가 된 느낌이 들 거다. 병따개 기능도 있으니 술을 입에서 멀리할 수 없는 당신에게 딱이겠지? 가격 26,500원, leatherman.com



#### Ski-Doo Renegade Adrenaline E-TEC 800R Snowmobile

스노모빌의 킹은 단연 이 제품이다. 눈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썰썰 내달리면서도 당신의 핸들링을 섬세하게 감지하니 설산에서 안전하게 여자를 태우고 달리는 데는 이게 최고다. 등에 자꾸 가슴이 닿네. 헤헤. 가격 1,316,000원, ski-doo.com



#### GoPro Hero3+Black Edition POV Camera

액션캠 제조사 고프로의 가장 작고 가벼운 모델로, 기존 히어로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이전 모델에 비해 20%나 중량이 준 반면 배터리 성능은 30% 향상된 이 시리즈는 더 선명하게 찍힐 뿐 아니라 어둠 속에도 더 강해졌으며 광각 앵글 촬영도 가능하다. 인터넷에 간지 영상 좀 뿌려봐? 가격 599,000원, gopro.com



#### Oakley Airwave 1.5

오글리에서 GPS와 블루투스를 통해 기온, 속도, 경사도 등의 정보를 화면에 비춰주는 스마트한 고글을 출시했다. 이걸 끼면 보드를 타다가 갑자기 사라진 친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길을 잃었을 때 슬로프의 지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눈밭에서 미아가 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쉽게도 예쁜 여자를 추적해 주는 GPS 기능은 없다. 가격 1,017,360원, oakley.com

#### Never Summer Industries Proto HD Snowboard

츨스러운 보드 때문에 간지가 안 난다고? 'Proto HD 스노보드'를 타는 보더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시크한 검정색 보드에, 에지를 세울 때 나타나는 에메랄드색 발판이 당신을 설국 왕자로 만들어 줄 거다. 게다가 특수 처리한 데크는 오철이 많은 눈길에서도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한다. 가격 584,000원, neversummer.com



# MAXIM 봄부질

올해 세뱃돈은 절대  
뺏길 수 없어요! 맘!

## 스마트 밴드, Razer Nabu(레이저 나부)

글로벌 게이밍 기어의 리더 레이저가 스마트 밴드 레이저 나부를 공개했다. 레이저 나부는 손목에 착용하고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저장된 개인 정보와 알림 메시지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나의 위치 정보와 이동 거리 보기, 만보기 기능이 있어 계획적인 운동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 또 밴드 간 통신 기능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된다. 모델 앞을 지나가는데 건물 안에 여친 위치가 딱 뜨네...

가격 미정, 레이저(kr.razerzone.com)



## 매의 눈 올림푸스 M.ZUIKO DIGITAL ED 21-40mm F2.8 PRO 렌즈 단품 출시

2013년 OM-D E-M1과 함께 출시되며 큰 인기를 얻은 표준 줌 렌즈 M.ZUIKO DIGITAL ED 12-40mm F2.8 PRO를 이제 단품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초고속 AF는 매의 눈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피사체를 잡아낸다. 포커스링을 앞으로 당기면 하만 수동 초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동시에 전환할 수 있다. 방진, 방한 기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일본 사진 전문지가 2013년 베스트렌즈로 선정하며 호평 받은 명기 중의 명기다. 명기 만나는 게 쉬운지 알아?!



1,150,000원.

올림푸스(1544-3200, www.olympus.co.kr)



Mando Send To Car

최소 사이즈의 컨트롤박스

## 어디로 모실까요? 말귀 알아듣는 내비게이션 만도 SR100

이제 내비게이션을 손가락으로 찍지 말고 말로 하자. 유통 서비스 전문기업 한라마이스터가 개발한 Mando Send to Car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텍스트나 음성으로 검색하면 자동으로 만도 SR100에 연동돼 목적지를 검색한다. 8인치의 고해상도 맵핑형 내비게이션인 SR100은 3D 고해상도 지도와 2GHz급 CPU를 탑재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어라운드뷰는 차량 외부의 모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499,000원, 한라마이스터(www.meister.co.kr)



## 연결은 간편하게 소리는 웅장하게! 아마하 미니 오디오 3종 출시

아마하뮤직코리아가 크기는 작지만, 대단한 성능을 지닌 미니 오디오 3종을 내놓았다. 블루투스로 간편하게 스마트 기기와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하고 저음을 강화하는 SR-BASS 기술을 탑재하여 깊고 풍부한 음향을 제공한다. 0.5k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NX-P100은 스피커폰 기능이 탑재된 내장 마이크가 있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TSX-B72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량 조절과 라디오 선곡이 가능하고, NX-B55는 케이블을 이용해 PC와 TV에 연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디자인까지 훌륭하니 실내 장식 소품으로도 간지 작살!

248,000원(NX-B55), 278,000원(NX-P100, TSX-B72),

아마하뮤직코리아(02-3467-3300, kr.yamaha.com)



## 같은 게임인데 소리가 달라!

젠하이머가 게이밍 최고급 헤드셋 G4ME™ ONE과 G4ME™ ZERO를 출시했다. 오랜 시간 게임을 해도 통풍이 잘 돼 착용감이 좋아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마이크 잡음 제거 기능이 있어 다른 게이머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기분이 든다. 특히, G4ME™ ZERO는 이어패드메 메모리폼이 삽입되어 외부 소음을 효율적으로 차단한다. 근데 꼭 이거 끼고 게임만 할 필요는 없잖아? 야구 동영상 볼 때 더 큰 빛을 발하겠는데?

329,000원(G4ME™ ONE), 359,000원(G4ME™ ZERO),

SDF 인터내셔널(02-711-9275, www.sdfint.co.kr)

# Style

## NOTIME FOR SINGLES

추울 때 더 빛을 발하는 커플 시계를 소개한다. 꼭 세트로 안 사도 되니까 너무 화내지는 마.

BY 조용재 PHOTOGRAPH Zoo

### 1 ZASPERO SG401-01 / SG401-71

묵직한 블랙과 로즈 골드 컬러의 조합이 장현승 몸에 감긴 현아처럼 조화롭다. 나전칠기 장인도 울고 갈 고급스러운 자개 다이얼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포인트를 준 이 여성용 시계라면 그녀도 좋아하겠지? 아, '그녀'가 없다고? 가격 735,000원(남) / 435,000원(여) 문의 자스페로코리아(1688-8907)

### 2 ISSEY MIYAKE 'TWELVE'

유명 디자이너의 집에는 왠지 이런 벽걸이 시계가 하나쯤 있을 것 같다. 문자판 대신 모서리에 포인트를 주어 시인성을 높인 독특한 디자인 시계. 그녀와 함께 손에 차고 다니면 존 레넌과 오노 요코가 된 느낌이 들 거다. 가격 389,000원(개별) 문의 삼정시계(02-511-3182)

### 3 J.SPRINGS BLD017 / BLD022

무난하고 심플한 컬러를 선호하는 커플이라면 올 블랙 컬러의 제이스프링스를 추천한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블랙 메탈 스트랩이 당신 커플을 북유럽의 흑마법사처럼 신비롭게 만들어줄 거다. 가격 250,000원(개별) 문의 성원시계(02-3445-4603)





**4 LUMINOX  
3057.WO / 7057.WO**

젊어 보이고 싶은 커플, 혹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이라면 스트리트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 순백의 루미녹스를 착용해 좀 더 영계인 척하자. 기존 형광 시계보다 100배 이상 밝은 트래이저(Traser) 발광 시스템이 특징인, 그야말로 '광 나는' 시계다.

가격 440,000원(개별)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5 BRAUN  
White Steel Mesh Watch**

〈리니지〉를 하다 고중수를 만나면 이런 기본일까. 면도기만 만드는 줄 알았던 브라운이 만들어낸 심플한 커플용 스틸 시계. 전기면도기 망처럼 생긴 메시 소재의 시곗줄이 매우 독특해 남자의 수집욕을 자극한다.

가격 288,000원(남) / 196,000원(여)  
문의 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6 INGERSOLL  
'Santa Rosa'**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잉거솔의 무브먼트형 손목시계. 역시 시계는 내장 기관을 훤히 드러내야 기품 있어 보인다. 두 가지 컬러의 가죽 스트랩과 메탈 스트랩을 선택할 수 있어 남녀가 같은 모델을 함께 차도 잘 어울린다.

가격 665,000원(메탈), 610,000원(가죽)  
문의 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 Style

## Sneakers

# Step Right Up

날도 슬슬 풀리니 운동화 끈을 조여야지?



1



2



3



4



5



6

### 1. 아디다스 스프링블레이드

밑창에 고무 스프링이 16개나 달려 있는 미친 탄성의 러닝화. 191,520원, adidas.com

### 2. 뉴발란스 1010v2 트레일

산행에 적합하게 고안된 깔창 덕에 거친 들산도 문제없다. 117,000원, newbalance.com

### 3. 푸마 멜 에스 슈가

발등 부분에 거미줄 같은 망사가 있어 바람이 잘 통한다. 스파이더맨도 피자 배달할 때 이런 걸 신었을 거야. 85,000원, amazon.com

### 4. 나이키 에어맥스 1 바치 오브 리우 스니커즈

신발 깔창의 디테일이 모래 사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고보니 신발 전체가 해변 컨셉이잖아? 147,000원, at nike, 21 mercer St., N.Y.C

### 5. 리복 서브라이트 듀오 체이스

밀도가 다른 두 개의 깔창이 아래에 붙어있다. 바깥 쪽 폼은 단단하게 발을 보호해 주고, 안쪽 폼은 폭신해서 발을 편하게 해준다. 109,000원, reebok.com

### 6. 스케이처스 시닉스 러닝 얼도

런닝화가 너무 가벼워서 맨발..까진 아니고 마치 양말을 신은 것 같은 착화감마저 든다. 74,200원, skechers.com

# Watch out!

## 사막 위 하늘을 나는 비행기?

### ALBA Active Gents AT3523X

고급 패션 워치 브랜드 ALBA가 정교한 디자인의 문자판과 심플한 형태의 케이스가 어우러진 스포츠 워치 AT3523 모델을 선보인다. 항공 시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검정색 케이스에 사막의 낙타와 비슷한 카멜 색상의 가죽 밴드와 시계 침을 넣어 깔끔하면서 럭셔리한 느낌을 준다. 부드러운 가죽 밴드로 착용감이 뛰어나고 24시간 표시와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었다. AT3523은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모든 패션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아이템이다. 멀티 플레이어는 따로 있었네!  
270,000원, 삼성시계(02-511-3182)



### 볼수록 매력, 헬다이버 SB2C-2002BK

패션에 '패'자도 모르는 사람도 안다는 인기 시계 브랜드 헬다이버가 따뜻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워치 SB2C-2002BK를 가지고 돌아왔다. 얼마 전 여자들의 로망 이민호가 드라마 <삼속자들>에서 차고 나와 큰 인기를 얻으며 품절 사태가 벌어진 바로 그 모델이다. 헬다이버만의 청량한 블루코팅 글라스와 세무 재질의 천연 가죽 밴드로 디자인되어 모든 이에게 잘 어울린다. 5기압 생활 방수 기능은 기본. 다가오는 졸업과 입학 선물로 이만한 선물이 없다. 착한 가격에 디자인까지 좋으니깐!  
159,000원, 헬다이버  
(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 단단한 만큼 든든하다. 자스페로 투파토레 아쿠아 프로퐁데 TG101-02

자스페로가 남자의 단단한 힘을 상징하는 투파토레 아쿠아 프로퐁데(Acque Profonde) TG101-02를 출시했다. 검은색을 매트 타입의 베젤과 밴드는 돌처럼 묵직한 남자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작아진 버튼과 그 위를 덮은 세련된 디자인의 플라이 커버는 방수 기능까지 향상시킨다.



가독성이 높은 Super Luminova 코팅 시계 침을 탑재해 기능과 실용성까지 든든하다. 저 플라이 커버 꼭 날개처럼 생긴 게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 놓치지 않게 꼭 붙잡아야겠네!  
747,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 하늘의 사나이가 탐낼 워치, 루미녹스 F-35 Lighting II 9382

스위스 아웃도어 워치 루미녹스가 전투기의 계기판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F-35 Lighting II 9382를 출시했다. 전투기 계기판에서 착안한 세련된 문자판 디자인에 비행기의 실제 비행 거리와 비행 시간, 연료 소비량까지 계산하는 기능을 넣었다. 또 크로노그래프와 수심 200m 방수 기능뿐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가스 캡슐까지 내장하여 으스스한 곳에서도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홍콩행 비행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런~연료가 모자라네. 더...강한 걸로 넣어주세요!  
1,430,000원,  
미림시계(02-757-9866, www.luminowatch.co.kr)



### 깔끔남의 필수 아이템, 아부투스 AR713-SUB

곧 다가올 치열한 취업 전선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고지에 깃발을 꽂기 위해선 깔끔한 이미지로 면접관을 유혹해야 한다. 맞춰 입은 듯 똑같이 깔끔한 검정 정장용 입을 경쟁자들 사이에서 면접관의 눈에 들길 원한다면 클래식함과 단디함이 조화를 이룬 아부투스 AR713-SUB를 팔에 둘러보자. 손목에 차고 움직이면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기계식 무브먼트 방식. 시계 뒷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시계 내부의 기계식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요 녀석..어디 속살 좀 볼까~?  
552,000원,  
글로벌타임(02-778-1590, www.globaltime.co.kr)

### 시간은 금이다. 금을 담은 시계 잉거솔 오키즈 국내 상륙

역사가 살아 숨 쉬는 120년 전통의 기계식 시계 명가 잉거솔이 오키즈(Okies)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번엔 처음 소개되는 오키즈 IN4511RSL 모델은 아름다운 장미색 연상시키는 로즈골드 색상에 진한 갈색의 가죽 밴드를 접목하여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날짜 표시와 3기압 방수 그리고 타키미터 기능이 있어 기능성과 스포티한 감성까지 담았다. 금을 담은 시계 잉거솔 오키즈 IN4511RSL로 새해 계획을 세워보자. 2014년엔 그만 작심삼일 해보는 것이 어때?!  
751,000원,  
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 Style news

**침대보다 폭신해, 리복 JETFUSE RUN(젯퓨즈 런) 출시**  
부드러운 솜이불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부드럽고 폭신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운동화 리복 젯퓨즈 런이 출시된다. 발 움직임에 맞춰 신발 안에 압축된 공기가 앞뒤로 순환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준다. 고무창을 최소화하고 가벼운 3D 폼 소재로 제작된 젯퓨즈 런은 산소만큼 가벼워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스파이더맨의 거미줄보다 튼튼한 그물 모양의 나노 웹 섬유로 만들어져 내구성과 통기성이 뛰어나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야! 신발도 과학이야.  
150,000원대, 리복([shop.reebok.co.kr](http://shop.reebok.co.kr))



**킬리만자로의 정기를 받아라! 블랙야크 Y-G 백 출시**  
킬리만자로의 검은 소 블랙야크가 도시로 내려와 트렌디한 멋이 있는 Y-G 백 7종을 선보인다.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교복부터 일상복까지 모든 패션 스타일에 잘 어울리니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탐낼 만하다. 등에 딱 달라붙는 기본 좋은 착용감이나 안정적인 어깨 당김 끈 등 아웃도어 백팩의 장점도 접목시켰다. 스퀘어형부터 상단에 지퍼가 달린 탑지퍼형까지 디자인도 다양한 Y-G 백, YG패밀리량은 상관없다.  
70,000~140,000원.  
블랙야크(02-2027-0800, [www.blackyak.co.kr](http://www.blackyak.co.kr))



**황소와 코끼리의 만남, 뉴에라 Elephant Hook!**  
성난 황소와 코끼리가 만나 뉴에라로 태어났다. Elephant Hook는, 에어조던 3에서 쓰던 코끼리 패턴(Elephant pattern)의 코끼리와 갈맞춤(Hook up)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이름으로 에어조던 3만의 독특한 조합을 뜻한다. 59FIFTY 실루엣에 NBA 시카고 볼스 팀의 성난 황소 로고가 박히면서 코끼리와 황소의 만남이 한층 강렬하게 다가온다. 검정과 파랑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고전 NBA의 클래식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아... 조던 형 보고 싶다. 뽕뽕~ 슉!  
59,000원, 뉴에라(02-540-8891, [www.neweracapkorea.com](http://www.neweracapkorea.com))



**밸런타인데이에는 야시빨로 SWEET NIGHT!**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받고 좋다고 히죽거려다 뽕! 차이지 말고 그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자. 고가의 액세서리나 명품은 부담스럽지만 그럴싸한 생색은 내고 싶다고? 그렇다면 야시빨을 만나보자. 야시빨은 10대의 발랄함과 20~30대의 세시함을 콘셉트로 한 여성 트렌드 의류 브랜드다. 어디에나 매칭이 가능한 아이템들을 완벽구비하여 남자도 쉽게 그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고를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은 기본이지. 이번 밸런타인데이, 여친에게 점수 따고 달콤한 볼빨!  
야시빨([www.yasibbal.co.kr](http://www.yasibbal.co.kr), 070-8899-6268)



**빨아줄래? Marmot Precip(마모트 프리시프) 재킷**  
지금까지의 아웃도어 옷들은 세탁하면 방수, 방풍 기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모트가 출시한 프리시프 재킷은 나노프로 소재를 이용해 세탁해도 탁월한 방수 코팅을 유지한다. 또 나노프로 소재는 물과 바람을 완벽히 차단하면서도 공기는 원활히 투과해 습기를 배출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남성용 7종, 여성용 8종의 색상으로 출시되어 취향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빨면 기능 떨어질까봐 냄새 풀풀 나도록 입지 말고... 좀 빨아봐.  
180,000원대, Marmot(02-2027-0854, [www.marmotkorea.com](http://www.marmotkorea.com))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클릭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챙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MAXIM**  
 과월호  
 증알 배송!  
 (증알을 드리진 않아요)



정인영 / 노라즈 128호 2014. 01

# Motor

CAR OF THE MONTH

## Aston Martin V12 Vantage S

창문 닦아드릴까요?

특단의 다이어트를 거쳐 몸무게를 줄이고,  
100년 전통의 역사에서 얻은 노하우를  
집대성한 애스턴 마틴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녀석이 등장했다. BY SIMON CLAYS

괴물의  
질주 분능



땀이요.

SPEC CHECK	가격	엔진	마력	제로백	최고 속도	배기량	최대 토크
	약 2억 4,100만 원	6.0L V12	565bhp	3.9초	330km/h	5,935cc	63.3kg.m



그래서 차에다 뭘 짓을 한 거냐고? 원리는 간단하다. 훨씬 크고 강력해진 엔진을 더 작고 가벼워진 쿠페 새시에 장착한 거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V12 벤티지 S가 달고 있는 애스턴 마틴의 신형 6.0L 12기통 엔진은 전작보다 최대 출력이 56마력, 최대 토크는 5.1kg.m 이상 더 높다. 또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등에 카본 파이버(탄소소재) 사용을 늘려 차체 무게를 15kg이나 줄였다. 성능은 높이고 무게는 줄이니 당연히 스피드가 빨라질 수밖에. 업그레이드된 V12 벤티지 S는 애스턴 마틴 역사상 가장 빠른 330km/h까지 뽑아낼 수 있다.

겁낼 거 없다. 애스턴 마틴은 이 맹수를 다루기 위해 벤티지로서는 처음으로 조절이 가능한 완충장치 시스템을 도입했다. 운전자는 서스펜션과 스톱을 반응, 기어 변경 속도, 엔진 노트 등을 주행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센터페시아에 있는 '스포츠 버튼'을 새끼손가락으로 콧 누르기만 하면 신사처럼 안전하던 엔진이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라도 된 듯 요란하게 으르렁댄다. 비아그라를 먹은 듯 강력해진 서스펜션과 비온세 허벅지보다 탄탄한 새시도 이 녀석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 덕에 운전자는 로드킬당한 지 1주일 된 동물의 시체처럼 도로에 딱 붙어 한 몸이 되는 안정적인 승차감을 맞출 수 있다. 거기다 기존 6단 수동 변속기보다 25g 가벼워진 수동 7단 변속기 III 덕에 제로백은 3.9초 안에 이뤄지고, F1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얻어 적용한 카본 파이버 바퀴와 세라믹 로터 브레이크도 엄청나게 향상된 속력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능이 괴물 같다고 생긴 것까지 못생길 필요가 있나. 카본 파이버로 도배한 내관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애스턴 마틴에 제격이다. 게다가 매끈한 차체 라인과 보닛에 시원하게 뚫린 4개의 환풍구 그림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언제 헐크로 변할지 모르는 브루스 같은 매력을 내뿜는다. 레이싱 트랙에 적합한 슈퍼카지만 그 저력을 완벽히 컨트롤하니 도심 주행에 무리가 없고, 그와 동시에 디자인은 스포츠카의 본성을 그대로 살렸다. 이러니 우리가 애스턴 마틴을 찬양하지 않고 배기겠어? 🐉

# **BORN TO RACE** **PEUGEOT ONYX**

이래도 푸조가 만만해 보이냐?  
BY 박정욱





페라리, 람보르기니, 파가니,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이탈리아와 슈퍼카. 이제 프랑스 대표 자동차 브랜드 푸조를 떠올려보자. 사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푸조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유럽 프리미엄이 독일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성능과 연비가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차를 만들지만 괴물 같은 녀석은 만들지 못할 거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한마디로 푸조는 '고급'이나 '슈퍼'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푸조가 2012년 파리 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 카 오닉스(Onyx)는 편견을 가지고 푸조를 바라보던 이들의 색안경을 벗긴 다음 뺨을 후려칠만한 녀석이다. 이 녀석은 세계적인 자동차 내구 레이스 대회 르망 24시를 제패한 908의 디젤 엔진을 달고, 고급스러운 극치를 보여주는 블랙과 골드 컬러의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프랑스가 만든 디젤 슈퍼카.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닉스가 푸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녀석이라는 것이다.



파리  
모터쇼에  
등장한  
오닉스



# Motor / Super Car

**SPEC CHECK**

엔진 형식 V8 3.7	배기량 3,700cc	연료 디젤	최대 출력 600마력	승차 인원 2인승	구동 방식 후륜구동	변속기 자동 6단
-----------------	----------------	----------	----------------	--------------	---------------	--------------



매년 6월 자동차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는 레이싱 대회가 열린다. 바로 프랑스 르망에서 열리는 자동차 내구 레이싱 대회 르망 24시(The 24 Hours of Le Mans)다. 이 대회는 다른 경주처럼 누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는지를 겨루지 않는다. 독특하게도 이 경주는 자동차 내구성 비교를 위해 세 명의 드라이버가 교대로 24시간동안 레이싱을 벌여 어느 팀이 더 멀리 갔는지를 가리는 방식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을 겨루는 르망 24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프랑스에 가장 어울리는 레이싱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르망 24시의 제왕 자리는 늘 독일의 몫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르망 24시는 독일 차 아우디의 독주 무대였다. 지난 10년 동안 아우디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9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2009년, 아우디가 우승하지 못했던 그 해 르망 24시 우승 트로피는 아지자기한 차만 만드는 줄 일었던 프랑스의 자동차 브랜드 푸조의 것이었다.

2009년 르망 24시 대회에 푸조는 총 세 대의 908 HDI FAP 머신을 출전시켰다. 그중 마르크

제네와 알렉산더 부르츠, 데이비드 브라밤 등 세 명의 드라이버가 핸들을 잡은 넘버9 908은 총 382랩을 돌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3위에 오른 아우디 R15를 6랩이나 따돌리는 기록이었다. 2위 역시 넘버 8 908이 차지했다. 푸조의 머신 두 대가 보기 좋게 제왕 아우디의 무릎을 꿇린 것이다. 푸조로서는 1993년 푸조 905의 우승 이후 16년 만의 쾌거였다. 인방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인방마님의 우승을 한동안 보지 못했던 프랑스에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만큼 기쁜 소식이었다.

2012년, 푸조가 르망 24시 대회에서 철수했다. 푸조의 철수로 908이 사라진 르망 24시는 조금 김이 빠졌다. 하지만 그 해 푸조는 대회 성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감을 알렸다. 2012 파리 모터쇼에서 푸조가 새로운 콘셉트 카 '오닉스(Onyx)'를 선보인 것이다. 르망 24시에서 철수한 푸조 스포츠팀이 주도해 제작한 오닉스는 2009년 르망 24시 우승의 영광을 누렸던 푸조의 레이싱 머신 908의 엔진이 장착됐을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차체 등 차량 전반이 908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미드십에

위치한 엔진룸에는 908이 2009년 우승 당시 달고 나왔던 3.7리터 V8 HDI FAP 디젤 엔진이 장착됐다. 이 엔진은 최고 출력 600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더불어 디젤 하이브리드 시스템(리튬 이온 배터리팩, 전기 모터)을 통해 80마력의 힘을 더 얻을 수 있다. 특히 전장 4,650mm, 전고 1,130mm의 길고 납작한 차체 대부분과 대시보드 등 실내 인테리어에도 카본 파이버(탄소 섬유)가 사용돼 무게가 1,100kg에 불과하다. 게다가 신문을 재활용한 '뉴스페이퍼 우드(Newspaper Wood)' 실내 마감재는 친환경을 우선시하는 푸조의 철학을 담았으며, 에그 박스(계란판)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는 독특하고 재미있다. 그리고 양쪽 손잡이가 돋보이는 스티어링 휠과 천장에 달린 엔진 스타트 버튼은 항공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푸조 RCZ 후면에 사용돼 엠보싱 같은 디자인을 완성한 공기역학 디자인 '더블 버블루프' 디자인도 그대로 적용돼 날렵하지만 듬직한 차타의 등짝을 보는 듯하다.

하지만 디젤 엔진을 얹은 슈퍼카는 왠지 어색하다. 보통 엔진의 회전수(rpm)를 높이기 힘든 디젤 엔진은

고속에서 상대적으로 가솔린 엔진보다 높은 출력을 발휘할 수 없어 슈퍼카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우디가 TDI 엔진으로, 푸조가 HDI 엔진으로 르망 24시를 제패하면서 고성능 머신에 디젤 엔진이 제법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르망에서 디젤 머신으로 경쟁했던 푸조와 아우디가 슈퍼카로도 겨루기에 나섰다. 푸조가 디젤 엔진을 장착한 슈퍼 콘셉트 카 오닉스를 선보인 2012년, 아우디도 르망 머신 R18 e-트론 콰트로에 적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디젤 엔진 V12 TDI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디젤 슈퍼카 제작을 예고했다. 비록 푸조가 현재는 오닉스 양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아우디의 디젤 슈퍼카도



2017년쯤이나 돼야 등장할 예정이지만 바야흐로 디젤 슈퍼카의 시대가 올지 기대가 된다.

“푸조가 슈퍼카를?!” 분명 놀라는 사람이 많을 거다. 사실 푸조의 슈퍼카는 반짝 이벤트가 아니다. 1885년에 설립된 푸조는 벤츠와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브랜드다. 푸조는 설립 9년 만인 1894년 최초의 자동차 경주인 파리-루앙 도로경기에서 첫 우승을 거두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푸조의 전성기는 설립된 지 100년쯤이 지난 1980년대였다. 파리-다카르 랠리에서 연승을 거둔 푸조는 ‘사막의 라이언’이라는 애칭을 얻고, 네 대의 슈퍼 콘셉트 카를 내리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다. 푸조가 이어온 슈퍼 콘셉트 카 족보엔 케이사(1984), 프록시마(1986), 옥시아(1988) 등이 있다. 비록 환경 문제와 경기침체로 슈퍼 콘셉트 카 시리즈는 중단됐지만, 푸조의 피에는 폭발적인 성능의 슈퍼카 DNA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다. 



파리 모터쇼에 등장한 실제 오닉스의 위용.



## 오닉스 1+2 이벤트

푸조가 오닉스 콘셉트 카와 더불어 콘셉트 자전거와 콘셉트 스쿠터 3종 세트를 함께 선보였으니.



### 1 오닉스 콘셉트 자전거

돈없이 안 어울리게 자동차 회사에서 웬 자전거냐고? 푸조는 자동차로도 유명하지만 자전거 회사로도 이미 명성을 떨친 브랜드다. 특히 클래식한 느낌의 시티 바이크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푸조는 이미 1998년 스노우 다운힐에서 자전거로 212.139km/h의 기록을 세운 바 있는 자전거 명가다. 오닉스 콘셉트 자전거는 카본 프레임으로 무게를 줄였으며,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됐다.



### 2 오닉스 콘셉트 스쿠터

앞바퀴 두 개와 뒷바퀴 한 개의 특이한 생김새로 주목을 끈 오닉스 콘셉트 스쿠터는 400cc 엔진을 달고 45kW의 출력을 낸다. 스쿠터답지 않게 최고 속력은 150km/h에 달한다. 독특한 점은 이 스쿠터가 스포츠 모드와 어반 모드, 이 두 가지를 선택해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시트의 가장 뒷부분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탑승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되며, 어반 모드로 달릴 때는 전통적인 스쿠터 포지션을 취하면 된다. 그래, 체위도 한 가지만 고집하면 지겨운 법이니까.

Motor

Test Drive

MAXIM  
시승기  
#43

# 2014 JEEP GRAND CHEROKEE SUMMIT

신사? 야수? 녀석의 진짜 정체가 궁금하다. BY 박정욱

너... 넌 대체 뭐냐?



녀석의  
거침없는  
돌진 분능





지난 1월 12일, <탑기어 코리아 시즌5>에서는 '로망'을 주제로 한 자동차를 시승하고 파워 테스트를 했다. MC 알렉스는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내 발보다는 여성들의 발을 더 소중히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엔 내 발이 원하고 내 발이 만족하는 로망을 쫓아보기로 하겠다" 그의 로망이 뭐였냐고? 바로 지프 그랜드 체로키다. 문득 잊고 있던 로망이 떠올랐다. 거친 바위산도 성큼성큼 오르는 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 길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타이어 자국을 남기겠노라는 그런 로망. 눈 쌓인 산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그랜드 체로키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반해 잠을 설친 다음 날, 이 녀석에 올라타기 위해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찾았다. 그리고 그날 오전, 잊고 싶었던 로망 '그랜드 체로키' 열쇠를 손에 쥐었다.

**1월 13일 13:00 강남대로**

차 반 사람 반이라는 강남의 지옥 같은 도로에서 그랜드 체로키를 운전하는 건 여간 고역이 아니다. 거친 오프로드를 질주해야 할 녀석을 꼭 막힌 아스팔트 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만드니 저도 답답하겠지. 그런데 이 녀석, 오프로드만을 위한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도심 운전에도 적합할 정도로 세심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계기판은

LCD 디스플레이로 무장했고, 인포테인먼트의 모든 컨트롤은 터치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방에서 충돌 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FCW PLUS)과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초보 운전자도 이 큰 차를 어렵지 않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열선 스티어링 휠, 앞좌석 통풍 시트, 전 좌석 열선 가죽 시트, 블루투스 무선 핸즈프리 등도 갖췄다. 각종 스마트한 편의 장비로 무장한 세단에 뒤지지 않는다.

반 년 전, 2013년 7월호 MAXIM 시승기를 위해 지프 랭글러를 시승했다. 오로지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 모든 편의 장비를 들어내고 그 무엇도 랭글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도록 하체에 모든 기술력을 집중시킨 녀석이었다. 랭글러는 열선-통풍 시트는 고사하고, 투박한 인테리어와 뒤로 젖히지도 않는 뒷좌석 때문에 함께 타는 사람마다 욕지거리를 하게 만들지만, 운전자만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차였다. 반면 그랜드 체로키는 차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탑승자를 배려한다. <탑기어 코리아>의 MC 데니 안은 "적당히 타협한 체로키가 과연 남성들의 로망이 될 수 있을까?"라며 평했다. 한때 고집불통에 각을 강조하던 마초남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더니 동글동글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된 느낌이었을까?

랭글러를 운전할 때는 "뭘해 이 새끼야, 냐다 밟아"라며 차가 나에게 호통을 치는 기분이었다면 그랜드 체로키는 "자, 갈 수 있지? 내가 도와줄게!"라며 격려하는 듯하다. 에디터 역시 그랜드 체로키와 같은 정통 오프로드 SUV가 굳이 각종 편의 장비로 치장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자 그런 의문과는 상관없이 체로키는 남자의 로망이 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1월 14일 22:00 서해안 고속도로**

늦은 밤 서해안 고속도로는 순한 양도 야수로 만드는 매력이 있다. 스포츠카를 타게 될 때면 늦은 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했다. 그랜드 체로키 같은 덩치 큰 SUV는 보통 산으로 데려갔지, 고속도로로 데려가 본격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녀석이라면 고속도로에서도 스포츠카 못지않은 쾌감을 선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역시 그랜드 체로키는 의외로 꽤 실력 있는 스프린터였다. 에디터가 시승한 차량은 3.0L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 중 최상위 등급인 서밋(Summit)이다. 이 녀석은 최대 출력 241마력에 최대 토크 56.0kg.m를 발휘하는 녀석이다. 1,800rpm의 저회전 구간에서 터지는 강력한 토크벨 때문인지 100km/h로 달리다가 엑셀을 사뿐히 즈려밟자 순식간에

<b>SPEC CHECK</b>	엔진 형식	배기량	연료	연비	승차 인원	최대 출력	최대 토크	구동 방식	변속기
	V6 직분사 디젤	2,987cc	디젤	자동 11.7km/L	5인승	241hp	56.0kg.m	풀타임 4륜구동(AWD)	자동 8단



튀겨져나가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듯 은몸이 좌석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다. 고속 주행에서의 가속도도 디젤 엔진답지 않게 훌륭했다. 100km/h가 훌쩍 넘어가는 속도에서도 운전자가 밟는 대로 직관적으로 속도가 반응하는 느낌이 경쾌하다.

그랜드 체로키는 80km/h 이상으로 주행하게 되면 에어로다이나믹(Aerodynamic)을 위해 자동으로 기본 지상고에서 15mm 하강한다. 운전하다가 시야에 보이는 보닛 끝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크루즈 주행 상태에서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시스템이 앞차와의 간격을 미리 설정해 그 거리를 알아서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녀석, 전천후 만능 엔터테인먼트다.

오늘날 수많은 SUV가 도심의 온로드를 달리기 위해 오프로드의 기능을 거세시켰다. 반대로 지프는 철저히 오프로드를 위해 온로드에서의 편안한 주행 기능을 거세시켰다. 그런데 그랜드 체로키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했던 '윌리스 MB'를 뿌리로 둔 랭글러는 군용차 특유의 강력한 기동력을 지켜왔다. 지프의 양대 산맥 그랜드 체로키 역시 전쟁통에 낳은 자식이다. 지프는 2차 세계대전에 쓰였던 롱 보디 스테이션 왜건 타입의 군용차를 '왜고니어'라 부르며 자동차 시장에 내놨다. 그랜드 체로키는 바로 이 왜고니어의 혈통이다.

1987년, 크라이슬러와 합병한 지프는 아직 군바리 냄새를 빼지 못한 왜고니어를 더욱 고급스럽게

바꾸기 위해 고민했으나, 결국 1991년을 마지막으로 단종시킨다. 그 자리를 대신해 그랜드 체로키가 등장했다. 지프는 1992년 7월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디자인과 인테리어, 편의장비까지 완전히 민간인이 된 1세대 그랜드 체로키를 데뷔시켰다. 그랜드 체로키는 4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2014 뉴 그랜드 체로키까지 이어져 오며 많은 변화를 이뤄왔다. 그랜드 체로키는 모델 변경이 거듭될수록 오프로더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온로드에서도 절대 풀리지 않는 SUV로 거듭났다.

### 1월 15일 10:00 영종도 토사 채취장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토사 채취장에 들어서자 비로소 그랜드 체로키는 물 만난 고기가 됐다. 마치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다가 집 밖에 산책하러 데려나가면 좋아서 미쳐 날뛰는 할머니 집 똥개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발자국을 남기고 다닌다. 눈이 다 녹지 않은 영종도 토사 채취장은 눈발, 진흙, 모래, 바위를 모두 채취할 수 있는 최적의 오프로드 코스였다. 그랜드 체로키 서밋 모델에 탑재된 쿼드라-리프트(Quadra-Lift)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기본 지상고에서 차체를 최대 56mm 높이거나 최대 41mm 낮출 수 있다. 오프로드 1 모드에서는 26mm, 오프로드 2 모드에서는 56mm까지 지상고가 올라가 장애물 극복과 험로 주파가 쉽다. 에어로다이나믹으로 주행할 땐 지상고가 15mm 낮아지며, 주차 시에는

41mm까지 낮아져 탑승자의 승하차가 편리해진다. 게다가 쿼드라 드라이브 2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오프로드에 최적화됐다. 센터 콘솔 바로 앞에 위치한 셀렉트 터레인(오프로드 모드 변경 다이얼)을 돌리면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오프로드 모드는 SNOW, SAND, AUTO, MUD, ROCK 등 총 다섯 가지다.

온로드에서는 친절한 신사 같은 녀석이 오프로드에 들어서자마자 야수의 발톱을 꺼낸다. 앞바퀴가 들려 눈앞엔 하늘만 보인다. 네 바퀴 중 하나가 떠서 험토는 것은 예상일이다.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오장육부가 함께 요동을 친다.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는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 그랜드 체로키의 쿼드라 드라이브 2 사륜구동 시스템은 네 바퀴 중 하나만 바닥에 접지해도 기적처럼 험로를 탈출시킨다. 오프로드를 실컷 달리고 나니 바퀴는 진흙투성이다. 20인치 거대한 휠과 56mm까지 높아지는 지상고 덕분에 험한 오프로드를 휘젓고 다녔어도 차체에는 상처 하나 없다.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젼들함, 날렵함을 선보인 그랜드 체로키는 사실 그 어떤 장애물도 자신에게 상처 하나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녀석이었다. 햇빛은 근육질의 헬크에서 멀끔한 수트 안에 근육을 감춘 슈퍼맨으로 변신해오며 오프로드, 온로드에서 모두 그 가치를 발휘하는 그랜드 체로키. 그 양면성이 남자의 로망을 더욱 강하게 자극한다. 

# 이달의 걸다리 모터 뉴스

토크니, 마력이니 관심 없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자동차 핫 이슈.



## 1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짝쳐서 만든 맥라렌 F1

63만 5천 파운드(약 11억 원짜리) 자동차를 만드는데 겨우 2만 파운드(약 3천 5백만 원)밖에 안 들었다면 믿을 수 있겠나? 한 자동차 마니아가 단돈 2만 파운드로 맥라렌 F1을 직접 만들어 화제다. 맥라렌 F1은 1998년 372km/h의 최고 속력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로 명성을 떨친 슈퍼카다. 짝통 맥라렌 F1을 만든 폴란드의 기계공 야척 마주르는 "맥라렌 F1을 사기엔 너무 비싸서 직접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우디에서 엔진을, 벤츠에서 브레이크를 공수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8년에 걸쳐 짝통 맥라렌 F1을 완성했다. 320km/h의 최고 속도에 운전석이 중앙에 위치한 인테리어까지, 진통을 빼다 박은 듯 달은 이런 S급 짝통은 홍콩 짝통 시장에서조차 못 구해.

## 2 히터나 온열시트는 꿈도 못 꾸는 얼음 자동차

캐나다의 자동차 배터리 회사 캐나다인 타이어(Canadian Tire)가 세상에서 가장 쿨한 자동차를 만들었다. 얼음 5톤을 이용해 얼음 자동차를 만든 것. 그들이 얼음 자동차를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2005년식 GMC 실버라도를 중고로 구입한 후 새시만 남도록 뼈와 살을 분리한다. 새시만 남은 자동차에 커다란 5톤 가량의 얼음을 덩지덩지 붙인 후 실제 실버라도의 차체 모양으로 조각을 하면 얼음 자동차 완성! 이 얼음 자동차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20km/h로 1.6km를 운행한 후 40시간 만에 완전히 녹아 사라졌다. 캐나다인 타이어는 자사의 배터리가 극한의 온도를 얼마나 잘 견디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3 CES 2014에 등장한 스마트 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전시된 적이 있을까? 이번 CES 2014의 화두는 단연 '스마트 카'였다. 지난 1월 6일 포물러 E카를 세계 최초로 공식 시연했던 퀄컴의 부스는 아우디 A3와 포물러 E카의 인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엔비디아는 모바일 AP(비메모리 반도체)인 '테그라K1'을 선보였다. 테그라K1은 보행자 발견, 사각지대 모니터링, 탈선 경고 등 카메라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인텔은 전기 자동차 BMW i3를 부스에 배치했다. i3에는 인텔 칩이 들어있어 운전자에게 자동차 정보, 운전 정보 및 사고 정보 등을 알려준다. 거창, 이렇다기 운전하면서 자동차와 농담 따먹기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 2014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빛낸 스포츠카



### KIA GT4 Stinger

지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기아 GT 콘셉트 카를 베이스로 제작된 후륜 구동 방식의 스포츠카. 2+2 시트 레이아웃을 가진 쿠페 모델로, 315마력을 발휘하는 2L 터보 GDI 엔진이 탑재됐다.



### TOYOTA FT-1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도요타의 디자인 부서 '칼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스포츠카. 레이싱 비디오 게임 <그란투리스모6>에 등장하는 자동차를 실물로 제작했다.



### CHEVROLET CORVETTE Z06

배기량이 큰 머슬카가 뿜어내는 묵직한 엔진, 배기음이 매력 포인트인 콜벳. 그 중 Z06은 V8 6,200cc 슈퍼차저 L1엔진을 달고 최대 출력 625마력을 발휘는 괴물 같은 녀석이다. Z06은 콜벳의 여러 등급 중에서 가장 고성능을 자랑한다.

WELCOME TO THE

# KIMCHI FACTORY



진짜 이제 별 걸 다 하는구나.

BY 조웅재 PHOTOGRAPH 김도훈

(특A/노모)  
맥심에디터  
섹시감장  
유출.avi



노모 보고 싶지?  
페이지를 넘겨.



“  
나는 김치 공장에  
가고 싶다.  
배추를 찌를 수 있으니까.  
”

한국의 인기 잡지 MAXIM 에디터 조동세(1985~)는 김치 속을 진득 파헤친 후 이런 말을 남겼다.



동치미가 플레인 김치 스무디로 변한다는 한파의 계절, 1월. 회사 근처 장어 전문점에서 5천 원짜리 회덮밥을 한 그릇 비워낸 에디터는, 밥상머리에 쓸쓸하게 남겨진 김치 한 조각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 어린 시절엔 유난히 '김치'라는 음식이 몸에 좋다며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이 강제 식사를 권하곤 했다. <TV 유치원>에서는 짝퉁 조영남 아저씨가 김치를 먹자며 노래를 불러줬고, 학교에서는 김치를 먹고 천하장사가 된다는 동시를 지어 상을 타는 어린이들도 많았다. 올버린이 따봉을 외치고, 세계 5대 건강식에 선정되었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대단한 음식을, 우리는 그저 평범한 고추 양념 절임 배추 정도로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언제부터가 라면의 사이드 메뉴로 전락했으며, 그마저도 짜장면과 파스타 때문에 단무지와 피클에게 큰 지분을 내어 준 비운의 음식. 게다가 무한 리필의 희생자로 그 가치를 점차 잃어가는 이 위대한 유산의 몰락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밥 잘 먹다가 갑자기 분노에 휩싸인 에디터는 그날로 최고의 시설을 갖춘 김치 공장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MAXIM 독자들에게 김치의 위대한 탄생을 보여주고자 말이다.

# MAXIM Report



정액도 얼어버릴 영하 10도의 날씨에 양평의 김치 공장을 찾은 에디터.



에디터는 우스꽝스러운 위생복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명예의 전당을 방불케 하는 담당자들의 포스 넘치는 사진들이 준비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에디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돌아왔다.

## 김치 공장에 어서 오세요!

에디터가 쿡수염을 휘날리며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CNC'라는 김치 공장이었다.(Cimchi & Cimchi인가. 사실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다.) 공장 정문에 들어선 에디터는 일단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명 뒤쪽에서는 예바 초호가를 생산하고 있지 않을까. 아스카짱이 이곳 어딘가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젓갈을 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일전에 미리 연락했던 CNC 홍보 담당 매니저가 모습을 드러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와 빨레 안경을 끼고 있는 사프한 외모의 매니저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 건물 안으로 에디터 일행을 들였다. 유리창에 비친 에디터의 모습이 마치 고려의 선진 문물을 답사하러 온 거란족 사신마냥 초라했다.

아주머니들의 수다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할 것 같았던 에디터의 상상 속 김치 공장은 없었다. 대신 비타민 D를 잔뜩 머금은 햇볕과 고요한 정적, 모던한 실내 분위기가 에디터를 어색하게 맞이했다. 어쩌면 이 회사, 구굴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걸까. 설마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굴 본사까지? 그런데 어쩌서 이 건물 간판에는 '뉴욕 김치'라고 써 있는 것일까. 온갖 쓸데없는 상상을 하다가, 한쪽 벽으로 시선이 꽂혔다. 현재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각 재료 담당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일렬로 걸려 있다. 부농의 포스를 뽐고 있는 장인들의 사진 중에서도 특히 '고추'를 담당하고 계신 음성 성기남 선생님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왜 충북에는 양성 지방이 없는가를 탄식하고 있던 중, "안으로 들어오시죠"라고 말하는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무실로 들어온 나는 그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MAXIM이라고 하셨죠? 전에는 에디터들이 어떤 일을 체험했나요?" 순간 허 위에서 드라이빙을 하던 '노숙자 체험, 귀지방, 키스방, 성인 PC방, 고양이 탈 알바, 군밤 팔이' 같은 단어들 이 입술 안쪽에서 가까스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아, 신종 아르바이트와 유기농 푸드 세일즈, 그리고 아웃도어 라이프 체험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하!" 어쭙잡게 둘러대던 에디터는 '이번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집었다'는 입에 발린 소리도 적당히 버무렸다. 벌써부터 양념 치는 쪽으로는 도가 튼 에디터였다.



몸을 청결하게 만드는 과정은 무척 길고 복잡했다.



요걸 밟아야 물이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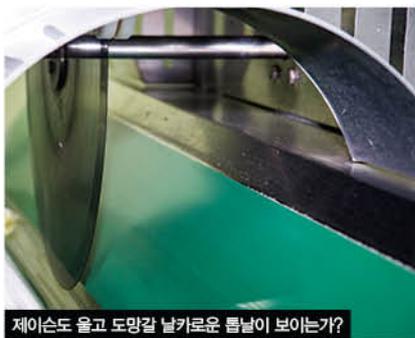
위생을 위해 수도꼭지도 발로 조작해야 한다.



시작부터 철저하게 자동화된 전처리실의 내부



제이슨도 울고 도망갈 날카로운 톱날이 보이는가?



미안하다. 금방 끝날거야.



마치 사형장에 친구를 떠밀어버린 죄수가 된 기분이다.

### 플러그 수트 장착

긴 이야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장 내부를 체험할 기회를 맞았다. 은빛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에디터는 흰 위생복과 장화를 입은 사진에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건네주시는 위생복을 받아 조용히 탈의실로 향했다. 위생 복장에 열외는 없었다. 위생 캡과 위생복 상의, 그리고 하의까지 총 쓰리 피스와 일회용 마스크까지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위생복을 착용한 에디터를 더러 일행들은 돌발이 의사 같으며 놀려댔다. 저것들이 내장에 메스 좀 넣고 다녀봐야 정신을 차릴랑가.

위생복을 입는다고 해서 바로 공장 안으로 투입되는 건 아니다. 위생복의 청결도 역시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장 체험 어시스턴트를 자칭하신 아주머니께서는

손수 먼지 제거 롤러를 에디터의 몸 위에서 굴리기 시작했다. 사지가 뻗고 몸을 롤러에 맡기고 있으니 공항 검색대에 선 아랑게 테러범이 된 기분이었다. 쓸데없는 긴장감이 실내를 휘감고 있었다.

공장 내의 모든 급수시설에는 발로 누르는 레버가 달려 있다. 이는 손을 씻고 난 뒤 수도꼭지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세균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다. 같은 이유로 수건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곳에는 우리에게 '장風'으로 잘 알려진 손 건조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행안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화장실'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그 에어 타올 말이다. 기계에는 분명 '손을 넣은 후 천천히 들어올리세요'라고 쓰여 있었으나, "손을 비벼야지"라고 말씀하시는 아주머니 역시 이 기계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았다.

### 너의 몸을 열어 주겠어

김장의 첫 스테이지. 소금물이 배추의 모세혈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배추를 반으로 자르는 작업이다. '전처리실'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많은 양의 배추를 빠르게 반토막 내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와 커다란 전기 톱날이 비치되어 있다. 물론 안전한 절단을 위해 톱날은 완벽하게 철판 지붕으로 가려져 있다. 만약 이런 안전 시설 없이 톱날에 스쳤다면 팔이 기생수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시범을 위해 에디터가 배추 한 포기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톱 하고 올려 보았다. 순간 잠시 동안 공회전을 하던 배추는 급발진을 하며 순식간에 터널을 지나 입을 짹 벌리며 반으로 갈라졌다. 이를 지켜보던 에디터 일행은 로드맨의 덩크슛을 본 김정은처럼 연신 박수를 쳐 댔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배추를 올리는 잘못된 예



반드시 경사진 부분에 걸쳐 물을 충분히 빼 주어야 한다.



드루와 드루와  
이 배추새끼들아

물이 충분히 빠진 배추는 건너편 세척실로 넘긴다.



부러더 다메오!  
광과광광광!

갈고 닦은 검도 실력으로 생강을 깎는 에디터. 실력은 그닥...



그 정도면  
그만해도...

어푸푸! 어푸!

과도하게 몰입한 에디터를 이우고 밀리는 아주머니



진지하게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민폐 에디터.

## 에디터의 김장 TIP #1

### 어째서 기껏 절인 배추를 씻나요?

배추는 원래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간을 하려면 양념을 하기 전에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속에 있는 물기를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절인다' 또는 '숨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인 배추는 안에 소금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로 적당히 씻어주어야 염도가 적당한 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 벌써 이렇게 폭 젖었네?

전처리실을 나서자 여러 개의 소금물 통이 줄지어 서 있는 '절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소금물에 충분히 절여진 배추는 수작업을 통해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져 다음 방으로 넘어간다. 열심히 배추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옮기던 직원과 에디터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가이드 아주머니께서 "잠깐만, 이 기자분이 직접 체험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을 건네자 직원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다. 서태웅을 처음 마주한 강백호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비장한 모습으로 빈자리에 선 에디터는 배추를 하나씩 꺼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시크하게 올렸다. 하지만 에디터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소금물이 잔뜩 먹은 배추를 그냥 올려 보내면 벨트가 흥건히 젖어 기계에 좋지 않고, 다음 과정인 세척실의 물 역시 쉽게 오염된다.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와 소금물 통 사이의 공간에 올려 몇 초간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도록

놔두어야 한다. 그 공간이 경사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철었던 시절, 가수가 되겠다던 에디터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며 "모든 사들이 그렇게 생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 자기야 일단 씻고 와

다음 방으로 이동하자 온천수처럼 기포가 올라오는 커다란 통이 보인다. 절임실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들어오는 배추를 씻는 '세척실'이다. 90년대 초 유인촌이 광고하던 공기방울 세탁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 같다. 누가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에디터는 이미 세척통 앞에서 다가오는 배추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무 커튼을 걷고 배추가 들어오자마자 에디터는 공항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일주일 만에 찾은 통 톱크스마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녹색 머리칼을 한 움큼 쥐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배추를

물에 넣고 있으니 "그걸 그렇게 그냥 넣고만 있으면 어떡해"라며 아주머니가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아무리 혼다의 백열장처럼 기포가 배추를 연타해도 속 깊은 곳까지 씻어낼 수 없는 법. 따라서 배추를 거꾸로 잡은 뒤 물에 담갔다 건졌다가 반복하며 총 세 번에 걸쳐 씻어내야 남은 소금기가 속까지 말끔히 씻겨 내려간다. 마치 70년대 중앙정보부 직원이 되어 물고문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 그리고 우리는 이리저리 뒤쫓았지

연이은 물고문에 정신을 잃은 배추가 탈수실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우리는 양념을 만들기 위해 '양념 제조실'로 향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안쪽에서 양념을 만들고 있던 직원은 내게 칼과 생강 봉지를 내밀었다. 소신적 등촌동 노승대 검도장에서 죽도 좀 흔들어 본 에디터는 칼자루를 쥐자마자 미칠듯한 스피드로 생강을 빻기 시작했다.



## 에디터의 김장 TIP #2

### 속을 고르게 잘 넣는 방법이 있나요?

김치 속을 넣을 땐 잘린 단면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둔 후, 여자 머리카락 움켜쥐듯 위쪽으로부터 차례로 들어 올리며 속을 발라야 합니다. 바닥까지 다 바른 후에는 다시 단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 역시 위쪽에서부터 입을 길어가며 차례로 바릅니다. 양념을 옥여넣는다는 느낌보다는 골고루 쳐바른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발라야 나중에 너무 짜지 않고 아삭한 김치를 맛볼 수 있지요.

장미칼을 든 롤로노아 조로도 거침없이 썰어버릴 기세로 생각을 뺀고 있자니 오른쪽 어깨가 결려온다. 불과 한 달 전, 회사의 세부 워크샵 때 받은 리조트 마사지가 생각났다. 그녀는 잘 있을까?

양념 제조실의 한 구석에는 물레방아처럼 회전하는 양념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한 번에 배추 수십 포기용 양념을 만들어야 하므로 재료의 비율은 철저히 정해져 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맛이 확 변해요.” 직원은 “사내 크비 사항이므로 재료와 양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무리 양념을 잘 섞는 통이라도 무채의 좌심방 우심실까지 고춧가루를 고루 스며들게 할 수는 없는 법. 에디터는 통 속에 손을 뻗어 재료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가는 양념을 어시스트했다. 이윽고 통이 돌아가며 양념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오오! 정녕 이곳은 인간과 기계의 힘이 어우러지며 하이브리드 소스를 생산하는 공간개!



아주 그냥 시벨개  
양념을 뒤섞는 김치 속 뒤섞센서(가칭)



제조실에서 만들어진 배추 속.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얼굴에 좀 튀었네. 어허허허허.  
모든 제조 과정을 끝내고 나니 한층 수척해진 에디터.

### 네 속을 짹 채워 줄게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관문, ‘속넣기실’에 입성했다. 이곳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직원들이 함께 배추에 속을 넣는 작업을 한다. 에디터는 벌써부터 ‘무슨 얘기를 하지?’, ‘웃는 게 부자연스러우면 안되는데’, ‘노래는 뭘 부를까’라는 생각을 하며 머릿속으로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었다.

〈체면 살의 현상〉의 워자지컬한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작업장은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이모님, 저 잘 넣고 있지요?”라고 은근슬쩍 묻자, 이모님은 슬쩍 눈길을 주고는 “예, 예.”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순간 에디터의 눈이 이모님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모습을 캐치했다. “더 하실 거예요?” “아.. 하나만 더..” “그래요, 하나 더 하시던가.” 하지만 에디터가 만든 김치는 왠지 아주머니들의 김치와 다른 통에 담기고 있었다. 곧 이모님은 “이거 배추에 한 번 싸 먹어 봐”라고 말씀하시며 배춧잎을 한 장 뜯어 주셨다. 에디터는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다.  
참지 못한 에디터가 배춧잎에 속을 싸서 사식하고 있다.

조심스레 양념을 배춧잎에 얹고 한입에 우겨 넣었다. 순간 허를 타고 들어오던 촉촉한 배춧잎이 입안에서 터지며 삼태기 메들리를 방불케 하는 풍부하고 다이내믹한 맛의 향연이 펼쳐졌다. 밥 생각이 간절해진 에디터는 법안카드를 꺼내두고 화를 내며 김상수 영상 에디터에게 당장 햇반을 사오라고 했으나 포토그래퍼의 민류로 포기해야만 했다.

## Epilogue

피곤에 젖어 로비에서 눈을 붙이고 있자니, 아까 옆에서 속을 함께 넣던 아주머니가 스티로폼 박스 세 개를 건네준다. “이거 수고했으니까 주는 거야.” 순간 에디터가 몇 분 전 파마 약 바르듯 양념을 처발라 떡이 된 배추가 떠올랐다. “저기.. 이거 제가 아까 담근 건가요?” “그거 아냐. 이게 더 맛있는 김치니까 가서 아껴 먹어.” 에디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고급 시설을 갖춘 공장이 제조하는 김치라도 결국 김치 맛은 팔 할이 손맛이다. 기계만으로는 그 맛과 풍미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신비의 유산, 김치. 그 ‘손맛’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직접 김장을 담그시던 아주머니들의 노고에 자못 숙연해진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어떤 노래가 떠오른 에디터는 그 아름다운 가사를 흥얼거리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

너무 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 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김치 짜 짜 많이 많이 짜짜~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 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김치 짜 짜 많이 많이 짜짜~  
시골에서 담가 온 깊은 손 맛  
우리 할머니 손길의 내공의 맛  
결절한 상콤해서 신김치는 아쌔해서  
라면을 꿀일 때는 역시 너야  
짜개 팔팔 꿀일 때도 역시 너야

-노라조 〈김치〉

# ICON



## Ero Maestro 봉만대



그는 완벽한 '에로 예술가'였다.

BY 조용재 PHOTOGRAPH Zho

대님 셔츠 커스텀멜로우  
비지 제로언더스크어



**에로 거장과 MAXIM. 드디어 우리가 만났다. 기분이 어떨까?**

음... 좀 의아했다. 일단 MAXIM은 전면에 섹시한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 난 왜 백커버일까. 나도 전면에 자신 있게 나와도 좋은데(웃음). 혹시 변태 성욕자들을 위해서 그런 건가...?

**응? 당신이 변태 성욕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나?**

'변태 성욕자들은 책을 뒤에서부터 읽는다'라는 설이 있거든. 아주 오래 전부터 알려진 얘기다. 개네는 신문을 볼 때 정치면 말고 뒤쪽 광고면부터 본다고 하더라.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태 같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생겼다. 멋부리려고 콧수염까지 길렀군?**

아, 이거 그냥 내 맘대로 길렀다 말았다 한다. 그냥 가끔씩 까칠해지고 싶다가나 변화가 필요할 때? 작성하고 기르는 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날 굉장히 마초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외모만 봤을 땐 완전 상남자인데?**

아니, 상남자는 아니다. 구별을 좀 하자면 나는 '가짜 남자'일까?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남자를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관찰하고 싶은 마음부터 든다. 당신처럼 멋진 남자를 보면 말이다.

**하하! 당신이 늘 훌륭한 신인을 발굴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만. 사람 보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나랑 작업한 배우들은 어디 가서 꼭 주연 한 자리씩 꿰차더라고. 그런 게 자주 있다 보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기분도 든다.

**당신과 작품을 했던 신인들 중 잘 풀린 케이스를 좀 꼽아 보자.**

톱스타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다. 일단 <TV 방자전>의 '황단이' 민지현은 작년에 영화 <노리개>에서 주연으로 등장했고, '춘향'이었던 이은우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뢰비우스>에서 여주인공을 맡았지. 김서형이야 뭐 여기저기서 활약 중이고,

**말도 마라. <TV 방자전>을 보고 나서 하드에 저장한 민지현 사진만 수십 장이다. 캐스팅이 참으로 적절했던 것 같다.**

그러게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민지현이나 이은우 둘 다 내 취향은 아니었다. 민지현 같은 경우는 신기할 정도로 남자들이 좋아했다. 극적 분위기를 위해서 그녀가 희생해야 했던 노출 신 같은 것들이 꽤 많았으니 충분한 댓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난 내 취향의 여배우와 작업해 본 적은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취향이라 함은 어떤 스타일인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수애를 꼽겠다.**

에로틱한  
포즈  
감상하기!





← **봉만대**

생년월일: 1970년 1월 21일

데뷔: 1999년 <도쿄 섹스피아>로 에로게 입성

대표작: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TV 방자전>, <아티스트 봉만대>, <신데렐라> 등 다수

자켓 인터메조  
셔츠와 비지 브라운브레스  
신발 탐스

**수애라니? 청소미의 대명사인 수애가 어딜 봐서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땐 뭔가를 꼭꼭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분명 도발적인  
매력이 있던 말이지, 그 부분을 아직 표현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러 감추고 있는 거다. 언젠가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가서 공손하게 제안할 생각이야(웃음).

**수애가 쉽게 응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 내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그리고 배우도 '이제는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라는 타이밍이 딱 맞아야지.

**작품 제작에 참고 자료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아동  
같은 걸 꾸준히 보는 편인가?**

참고용으로 보는 건 아니고, 하하. 내 성적 만족도를  
위해 감상하는 경우는 있다. '잠깐의 판타지를 위한  
일탈을 꿈꾼다' 정도가 되려나? 근데 그걸 꾸준히  
보는 사람이 있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냐?

**헬씬 자주 보지 않나? 내 얘기는 아니다.**

에이. 중독자도 아니고 얼마나 자주 본다 그거시냐.

**중독자라니! 그러는 당신이 생각하는 '아동 중독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루에 두세 번? 근데 목적이 중요하지. 한 손에는  
마우스, 한 손에는 살을 잡는 건 수컷의 본능이니까.  
민약 중년 남자가 하루에 서너 편씩 아동을 보고  
있다면 그건 중독이지, 젊은 헬기로 보는 것도 아니고.

**청년 때의 당신은 어땠나? 아동도 흔치 않았을 텐데.**

정말 그랬다. 아동을 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할 정도였으니, 한때 여관방에서 아동을 틀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친구들과 돈 모아서 여관비 내고 방에  
들어가면 채널 3번에서 볼 수 있었다. 카운터에서  
VCR로 틀어주는 방식이었지. 그러다 보니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주구장창 보는 거다.

**거기서 다 같이 바지를 내리나?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지. 그거 다들 침을 삼키며 조용히 감상할 뿐  
다른 짓은 안 한다. 하지만 그게 더 긴장감 있고 보는  
재미가 있다. 요즘처럼 혼자 방에서 좋은 오디오와  
모니터로 느긋하게 아동을 보면 그게 무슨 재미야!  
섹스와 마찬가지로 아동을 감상할 땐 긴장감이 좀  
필요하다.

**요즘 세대들은 당신 세대 젊은이들보다 아동용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요즘 아동은 아동 같지도 않다. 아동이란 건  
너저분해야 하고 좀 울드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젠  
뭐 UHD에 음성도 고음질이나 아닐로그한 맛이 없지.  
8mm 영상은 그 자체로서 매력이 있다. 여자 살결이  
뜨뜻하게 보이는 요즘 아동은 젊은이들의 상상력(?)  
을 너무 저해하는 게 아닌가 싶다.

**성인용 미디어를 처음 접한 것은 언제인가?**

중 2 때다. 당시에는 <플레이보이>와 <하슬러>라는  
성인 잡지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슬러가 굉장히 하드코어했다. 삽입하는 사진도  
있었으니까. 대부분 백인들이 나오는 잡지였다. 뽀얀  
살결을 가진 여자들을 보면 흥분지수가 올라갔지.

**피부가 흰 여자를 보면 흥분이 되나? 백인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있었나 보다.**

그건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에도  
피부가 흰 여자들이 인기가 많았지. '백옥 같은'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땀 이런 말도  
있었다. "말은 흑마를 타고 사람은 백마를 타라."

**당신의 차기작으로 알려진 <오색등산전> 역시 배경이  
조선시대라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오색이란 '백, 청, 홍, 녹, 적'으로 비단의 다섯 가지  
색을 의미한다. 각각 사랑과 죽음 등 다양한 은유적  
의미를 갖는데, 이를 소재로 여자들이 사는 밀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아마  
사극이다 보니 제작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담야 널  
메시지도 고려해야 하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섹스란 내가 없는  
무아(無我)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모 라디오에서 애기한 <떡국  
열차>. 대체 이젠 무슨 생각으로 기획한 건가?**

그건 그저 우스갯소리였는데 파급효과가 너무 컸잖아.  
예능이다 보니 개그를 친 거다. 정말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물론 패러디 장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사장됐고, 물론 만들면  
이슈가 되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 근데 누가  
제작비 들고 찾아오면 어떡하지?(웃음)

**우리가 낚였군! 그럼 <떡국 열차>의 스토리만이라도  
즉석에서 대충 만들어 본다면 어떤 내용일까?**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할 거다. 원래 패러디 장르라는  
것은 천만 히트작의 플롯을 그대로 따라가되, 다양한  
불(?)거리들을 가미하는 것 뿐이거든. <람보>와  
<못말리는 람보>, <탑 건>과 <못말리는 비행사>  
처럼 말이다. 생선과 칼을 든 괴한들이 등장하는  
칸에서는 괴한들이 떡메를 들고 있거나, 과수원처럼  
농사를 짓는 칸에는 뽀얀 비닐하우스가 둘러져 있고,  
그 안에서 뭐... 아하하! 거기서 갑자기 이대근이  
등장하는 거다. 뭐 대충 이 정도?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도 현재로서는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보니 옛날엔 <떡국 열차>처럼 제목이 주는  
잔재미가 꽤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

<은행나무 침대에서 하디>, <헨젤과 그레타>,  
<죽 쉬리> 뭐 이런 거? 내 작품 중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아파바>라는 작품인데, 이젠 <아름다운  
파도와 바다>의 줄임말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겠다. 섹스 실력은 어떤가.  
기준이뭔가? 그러는 당신은 어떤데.**

나... 나는 뭐, 어디 가서 풀리지 않는 정도?  
누가 그래. 여자가 질한다고 그러던가? 예의상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섹스를 잘한다'라는 남자들의  
자신감엔 항상 오류가 있다. 착각하는 거다. 여자가  
'잘했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 아닌가?  
세상에 어떤 정사 신에서 여자가 섹스 후 '잘했어'  
라고 말하냐?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남자들은 뭔가?  
물론 내 얘기는 아니다.**

여자가 용기를 주는 거지. '잘했어' 뒤에는 '다음엔  
힘내. 그리고 다음부터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웃음). 아니면 돈 많은 여자 아냐?

**그러니까 당신 얘기를 하란 말이다. 자꾸 피하는 걸  
보니 자신이 없는 모양인데?**

당신보다 잘할 것 같다. 섹스란 무아(無我)다. 섹스의  
대상에 나는 없는 거다. 오로지 상대의 만족만이 있을  
뿐. 그걸 '독도'라고 하는 건데, 한 평 남짓한 침대에서  
도를 닦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예로 영화  
감독에게 '섹스를 잘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겉레다.  
못하는데 영화를 만들진 않을 거 아냐?

**갑자기 당신 머리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다. 큰  
가르침을 줘서 감사하다.**

그래. 앞으로 어디 가서 누가 당신처럼 '섹스 잘하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줘라. "무아(無我)  
입니다."라고.

**좋은 거 배워 간다. 끝으로 MAXIM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다. 요즘 잡지들은 뭔가  
'긴장감'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 예전엔 책 속에  
끼워진 대형 브로마이드가 궁금해서라도 잡지를 사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뭔가가  
없다. 그래서 말인데 표지를 복권 굵듯이 동전으로  
긁게 만드는 건 어떨까? 긴장감을 주는 거지. 혹은  
책을 반반으로 나눠서 백커버부터는 뒤집어 읽게  
만드는 거다. 책은 여자좌와 같다. 그런 반전의 매력이  
필요하거든. 정사위만 고집하는 건 재미 없듯이  
말이다. 후배위로 적당히 섞어 가야 재미있지 않겠어?

**좋은 제안이다. 조만간 우리가 당신의 '후배위 커버'  
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해보지. ☺**



**Sexiest Diva Ever**

# NAVI

거침없는 입담으로 라디오를 평정하고, 이제 예능 셋별로  
등극한 가수 나비. 가창력은 이미 전부터 화자되어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섹시한  
보디까지 장착했으니, 이 처자 때문에 오늘 집에 못 가게  
생겼다. 나 오늘 집에 안 갈래요.

BY 김희성 WORDS 박정욱 PHOTOGRAPH Zho  
LOCATION 부띠끄 호텔 빠세(032-888-9972)



시계 헤이즈 by 갤러리어블락  
구두 슈즈원

몸매가  
이 정도였어?



**MAXIM 화보는 처음이지? 어땠나?**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촬영이 정말 재미있었다.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이런 섹시 화보를 찍게 돼 기쁘다.

**평소 MAXIM을 즐겨보나?**

MAXIM 엄청 유명하잖아! MAXIM 화보를 꼭 한 번 찍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무려 커버를 장식하다니! 대한민국에서 섹시하기로 손꼽히는 여성들은 다 MAXIM 커버를 거치지 않았다.

**촬영을 위해 무슨 준비를 했나?**

섭외 연락을 받고 너무 긴장돼서 급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왔다.

**에이, 다이어트 같은 건 평생 안 해도 될 것 같은 몸매다.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나?**

한 끼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나머지는 두 끼는 조절한다. 운동은 요가와 걷기를 한다. 걷기로 땀을 짹 빼고, 요가로 라인을 잡아주는 거지.

**당신의 뽀얀 피부는 광채가 난다. 조선백자 같아서 하마터면 '자기~'라고 부를 뻔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자주 묻는다. 솔직히 말하면 내 피부는 타고난 거다. 할머니와 엄마의 피부가 정말 좋은데 그걸 물려받았다.

**얼굴뿐 아니라 촬영할 때 보니 보니 피부가 더 예술이다.**

잘 봤다. 몸 피부도 하얗고 매끈하다. 블로그에 피부 관리 노하우를 소개할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결국 피부는 타고나야 한다.

**그나저나 당신의 몸매가 얼마나 좋으면 전신 성형 의혹까지 있었다. 몸매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딘가? 어딘지 짐작은 가지만 본인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

가슴이다. 자신 있게 자연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타고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끼리 투표를 했는데, 전교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로 뽑혔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남자 친구들이 교복을 입은 모습을 놀리니까 오히려 큰 가슴이 콤플렉스인 적도 있다.

**트리플 A급 여자들이 들으면 분노하겠다.**

지금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600만 원을 번 것이나 다름없잖아? 돈 안 들이고 큰 가슴을 가졌으니까.

**본인 몸매에서 이젠 좀 아쉽다 하는 게 있나?**

허벅지는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요즘은 꿀벅지가 대세잖아!

**근데 지금 꿀벅지 애길 할 때가 아니다. 건강부터 챙겨라. 당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 수치가**

**높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마실 시간도 없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다음 날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마시게 되더라.

**그래도 기본 주량이 있겠지.**

그렇다. 여전히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술병을 세지 않고 마신다. 그래서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다.

**라디오 고정을 네 개나 하고 있어서 '라디오계의 전지현'이라고 불린다. 입담이 아주 걸쭉하고 찰져서 당신 목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듣게 된다. 그 입담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선천적이다. 라디오에서는 많이 자제하는 편이다. 남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 원래 내 모습대로 하면 방송이 안 된다. 19금 음담패설이 난무할 테니까. 보통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음담패설 좋아하잖아?

**본인을 '나비'가 아니라 '불나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

내숭 떨고 조신한 성격이 아니라 솔직하고 거침이 없다. 그래서 불나방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남녀공학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남들과라도 스텝없이 음담패설을 즐긴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거고 아름다운 거잖아! 오히려 숨기는 애들이 뒤에서는 더 음란하더라.



슬림 게스 언더웨어

**솔직한 성격답게 K리그 고양 Hi FC의 수비수 여효진과 열애 중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남자 친구와도 음담패설을 하나?**

당연하지. 연인끼리든 뭐 어때. 연인끼리는 솔직한 게 좋다. 그런데 남자 친구가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 신여성이 여기 있었군. 밸런타인데이에 남자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 생각인가?**

그때는 남자 친구가 전지훈련을 가 있을 때다. 영상 통화나 해야지. 뭐.

**남자 친구 때문이라도 K리그를 즐겨보겠군.**

경기장에 가서 보긴 하는데, 잘 몰라서 재미없다. 경기를 보는 건 잠깐이다. 그냥 스마트폰 만지면서 셀카 찍고 논다. 그런데 남자 친구가 멋진 플레이를 할 때마다 나를 봤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많이 섭섭해한 적도 있다.

**남자 친구의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 역시 축구 선수니까... 굵은 허벅지?**

처음에는 외모에 반했다.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

그래서 여자도 많고 바람둥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보기와 달리 정말 순수하고 단 한 번도 여자나 술 문제로 속을 썩인 일이 없다. 바른 생활 사나이다.

**남친이 이해심도 많은 것 같다. 한 달 만에 방귀와 트림을 뱉다고?**

원래 성격이 뭔가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못 해서 그것도 숨기기가 힘들더라. 그런데 오히려 남자 친구가 귀엽게 봐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한 거지. 그러다 문득 이러다가는 남자 친구가 나를 여자보다는 친구처럼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자제하고 있다.

**MBC <라디오 스타>에서 조세호와 트림 대결을 벌인 걸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다. “일부러 하는 트림, 건강에 안 좋다.”**

아, 정말? 이제 자제해야겠다. 어렸을 때 별명이 용가리였다. 1반에서 트림을 하면 14반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성량이 커서 그런 걸로 생각해달라. (웃음) 그렇게 적어달라.

**성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성량이 너무 커서 스피커가 망가진 적도 있다면서?**

행사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스피커가 픽 나가버리더라. 사실 성량이 성량이지만 그 스피커가 어지간히 싸구려기도 했다. 내 노래가 음이 워낙 높은 점도 한몫한다. 노래방에서 내 노래를 부를 때는 키를 항상 낮춰 부른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라디오에서 소속사 사장님 욕은 왜 그렇게 자주 하나?**

면전에서든 욕할 수 있다. 불만이 있으면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일깨워주고 싶어서 가감 없이 말한다. 물론 웃기려고 오버한 면도 있지만 정말 불만이 있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사장님이 라디오를 안 듣나 보더라. 계속 말하는데 나아지는 점은 없다.

**라디오를 하다가 말실수한 적은 없나?**

멘트가 너무 세서 국장님께서 몇 번 연락하신 적은 있다. 어린 친구도 많이 듣는데 자제해달라고 하시더라. 국장님 호출 받아서 담당 PD가 넥타이를 매고 국장실로 몇 번씩이나 가야 했다.

**멘트가 도대체 어땠길래?**

밥 때리고 왔어요, 잘못하면 턱 날라가요... 뭐, 이 정도?



구두 슈즈원

“

내 진짜 모습대로 하면 방송  
안 된다. 19금 음담패설이 난무하니까.

”





“

솔직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뭘 숨기질 못한다.

”

브라 캠퍼블라인 언더웨어  
기타 프리버드

“

자신있는 신체 부위는 가슴이다.  
6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한다.

”





HAIR MAKEUP 씨니 송무데(연스.후 02-3448-3007) VIDEO 김상수 ASSISTANT 김소은 정혜민

**애개? 겨우 그 정도? 나중에 가수 그만 두면 MAXIM으로 와라. 개고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웃기려면 가족도 팔 수 있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내가 눈을 성형한 병원을 엄마한테 소개해 가족 할인 받고 엄마도 눈을 성형했다. 이걸 라디오에서 얘기하면서 '엄마가 성형 중독'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엄마가 많이 창피해 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고정 게스트를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DJ 중 공감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고정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DJ가 전현무, 김신영, 유인나, 정선희 이렇게 네 명이다. 가장 코드가 잘 맞는 DJ는 현무 오빠와 신영 언니다. 선희 언니는 대선배님이다 보니까 나를 많이 다독여주신다. 인나 언니와는 여자끼리 수다를 떠는데, 나는 그건 잘 안 맞는 것 같다. 수다를 떠는 것보다는 이빨을 터는 게 좋다.

**요즘 예능계의 셋별로 불리고 있다. 탐나는 자리가 있다면?**

MBC <라디오 스타> 게스트가 아닌 MC로 들어가고

싶다. 규현 씨 자리에서 독설을 내뿜고 싶다. 음담패설을 좋아하니까 JTBC <마녀사냥>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몸매도 훌륭하고, 말도 재밌게 잘하는 다재다능한 당신도 탐내는 다른 사람의 재능이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박정현 선배님을 엄청 좋아해서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다. 내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난 술을 마시면 다음 날 목이 아파서 노래를 못 한다. 그런데 박정현 선배님도 술을 많이 마신다고 들었는데 목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입담은 신영 언니를 뺀다고 싶다. 신영 언니를 통해 배운 게 많다. 신영 언니와 사석에서 얘기할 때 더러운 토크를 많이 한다. 신영 언니가 음담패설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올해 스물아홉 살이다.**

나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여전히 스무 살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결혼은 언제 하고 싶나?**

스물아홉 살이면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다. 이루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아서 결혼은 천천히 하고 싶다. 서른세 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내 필자가 서른 전에 결혼하면 결혼을 두 번 할 필자라고 하더라.

**그 말을 믿나?**

여자 범피가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나도 범피다. 1986년생 모임 '86라인'에서 활동하면서 미친 인맥을 자랑한다고 들었는데, 끼워줄 수 있나?**

86라인에는 2AM의 이창민, 슈퍼주니어의 은혁, 주얼리의 하주연, 김은정, 씨야의 김연지 등이 있다. 물론 매니저, 헬스 트레이너 등 연예인 아닌 사람도 있다. 다음 모임 때 부를 테니 꼭 와라. MAXIM 스태프는 다들 미남, 미녀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 잘생긴 회사 동료 있으면 함께 와도 좋다. 공연 기획하는 예쁜 친구가 있는데 당신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당신을 오늘부터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겠다.** 



“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술병을 세지 않고 마신다.

”



## 나비

본명: 안지호

출생: 1986년 3월 22일

신체: 165cm, 50kg

특기: 운전, 스노우 보드,  
웨이크 보드

취미: 블로그 포스팅

추천 영화: 최근에 본  
<어바웃 타임>

추천 음악: 남자 친구와  
싸운 후에 직접 작사·작곡한  
자작곡 '싸우지 말자'

시계 로즈몽 by 갤러리아블락  
반지 엘린지



## 누구하나 빠짐없이 잘생겼다 리듬파워

 유쾌함을 전파하는 세 남자, 신개념 힙합 트리오 리듬파워가 드디어 MAXIM과 만났다. BY 손안나



이 녀석들, 나만큼 까리한데?



고등학교 동창으로 처음 만난 행주, 지구인, 보이 비. 한 명은 인천 바닥에 소문난 전설의 싸움쟁이였고, 한 명은 귀마개를 꽂고 열공하던 전교 1등. 나머지 한 명은 교실 한편에서 이어폰을 꽂고 '힙합 음악'을 듣던 소년이었다. 취향도 성격도 너무 달랐지만 셋이 어울려 다니면 이상하게 신나고 즐거웠다. 이들이 뽐어내는 긍정적 에너지는 음악에 고스란히 전달됐고, 작년 한 해도 리듬파워의 '리듬파워'는 많은 사람을 웃고 춤추게 만들었다. 힙합은 언제나 간지나고 풀나는 것이어야 하는 걸까? '뽕작 랩'이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한 이들의 일갈은 꽤 의미심장하다.

GO리듬  
GO리듬  
GO!





원래 팀명이 '방사능'이었는데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름을 바꿨는지? 방사능 1집은 더 이상 음원 사이트에서 만날 수 없는 건가? 당시 앨범을 그리워하는 팬이 많다.

**행주:** 물론 아쉽지만, 덕분에 당시에 앨범을 구매해준 팬들에겐 더 특별한 앨범이 된 것 같다.

**보이 비:**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돼서 그 CD값이 좀 오르는 거다. 소장한 사람들이 덕 좀 봤으면 좋겠다. 널 1집처럼.

**행주:** 우리 것은 아직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우리 집에도 한 서른 장 있나?

**보이 비:** 한 장에 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공개 오디션을 통해 레이블 아메바컬처에 입사했다. 다이내믹 듀오 사장의 눈에 들 수 있었던 비결은?

**지구인:** 우리가 언더그라운드에서 공연하는 걸 많이 봤다고 했다. 아직 덜 익었는데 투닥거리면서도 파이팅 있는 모습이 씨비매스(CB Mass) 때 자기를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더라. 사실 지금이야 개코 형도 멋있어지고 최자 형도 잘생겨졌지만, 그때는 워... 우리랑 닮긴 닮았다.

**행주:** 노래방에서 다듀 노래 나올 때 뒤에 걸리는 옛날 영상 보면...

아메바컬처에 입사하고 나서 음악 색깔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회사의 간섭이 심한 편인가?

**행주:** 전혀 없다. 회사랑 계약하고 낸 첫 번째 앨범은 타협했다며 욕도 많이 먹었는데 사실 그거... 우리가 밀어붙인 거였다. 회사에서는 반대했는데, 나중에 "그래 너희한테 주는 선물이야. 첫 앨범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내주고 싶어." 이렇게 마무리된 거거든.

**지구인:** 망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망해야 후회가 없더라. 사실 그땐 그 앨범 수록곡이 다 다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 다 똑같아. 당시에 우리 셋 다 복고에 너무 꽂혀 있었다.

'리듬파워 = 뽕짝 랩'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구인:** 솔직히 열받지. 언더그라운드 시절에는 우리 멋대로 해도 늘 호의적인 반응이었는데, 회사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등졌다. 알고 지내던 힙합 뮤지션도 앨범을 내고 만나면 느낌이 전이랑 달랐다. 우리를 약간 변절한, 혹은 뜨고 싶어 발악하는 놈들로 보는 게 느껴지더라.

**행주:** 맨 처음 안 좋은 댓글을 봤을 땐 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만 보는지 억울한 마음이 컸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다른 모습을 안 보여준 거였다. 그런 비난을 인정한다. 그래서 더 싫은 거겠지만, 악에 받쳐 있었는데, 그런 감정을 이번 앨범에 다 풀어놓았다. 앨범 제목도 <월미도의 개들>이다. 어때, 파이팅 넘치지?



**보이 비**

· 치명적 베이비 보디(베이비 페이스 말고)의 소유자.  
"김선신 아니운서 MAXIM 표지 모델로 어떻게 안 될까?"



**지구인**

· 가끔 최다니엘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다.  
· 현재 9살 어린 동생들과 학교에 다니는 복학생 형.



**행주**

· 리듬파워의 목소리.  
· 눈웃음이 비를 닮았다.  
· MAXIM 유튜브 채널에 자주 접속한다.

# Music

**정통 힙합 운운하면서 '가오'만 찾으며 당신들을 비난하는 힙합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행주:** 너나 잘하라고 말하겠다. 나는 그냥 내 음악 할 테니 너도 그냥 내 음악이나 잘해...

**지구인:** 그런 뮤지션들도 결국엔 감성 팔이 랩을 하더라. 아니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랩 레슨을 하든가. 랩 가르치면서 돈 버는 거 너무 꼴 보기 싫다.

**보이 비:** 다 필요 없고 그냥 랩 대 랩으로 붙여도 슬직히 안 저.

**행주:** 누구든 초청만 해주면 바로 가서 다이다이 뜨는 걸로.

**공연장에서 보니까, 팬들이 엄청나게 열광적이었다.**

**행주:** 우리를 좋아하는 이들은 정말 화끈하게 좋아해준다. 보다시피 우리가 마니아적인 외모라... 팬들도 마니아적인 것 같다.

**지구인:** 확실한 수요층이 있지.

**행주:** 그래, 수요층! 역시 배운 놈이라서 다르네.

**행주는 고등학교 때 인천 지역에서 싸움판으로 유명했다며?**

**보이 비:** 사실 고딩들은 싸움 잘 안 하잖아? 모든 명성은 중학교 때 오는 거다. 고등학교 때 만났지만, 나도 이미 중학교 때 행주의 소문을 익히 들어왔지.

**지구인:** 난 중학교 때 애 눈도 못 마주쳤다.

**촬영하면서 지켜봤는데, 행주의 힙업이 굉장하더라.**

**지구인:** 고등학교 통학할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애는 리더기 앞을 지나만 가도 자동으로 교통카드가 찍힐 정도였다.

**행주:** 그래서 허리가 안 좋다. 너무 솟아올라 있어...

**허리가 안 좋다니...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막 애기해도 되나?**

**행주:** 상관없다. 그건(?) 허리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어차피 보통 사람보다야 훨씬 좋다.

**지구인은 서울대는 당연히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던 전교 1등이었다며?**

**지구인:** 그렇다. 파이팅 있게 열심히 하다가 고3 때 힙합 음악에 빠지면서...

**행주:** 얼마 전에 좀 놀랐다. 애가 나한테 'Swimming' 이라는 단어에 m이 하나 들어가는지 두 개 들어가는지 물어라고, 나한테는 지구인이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였거든. 아, 이래서 사람은 꾸준해야 하는 거구나... 느꼈다.

**둘에 비해 보이 비는 안전한 성격이라고 들었다. 여자 만날 때도 그렇게 수줍은가?**

**행주:** 완전 성시경이다. 달콤하다. 보이 비가 여자 친구한테 "누구누구 양"이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부터 애가 전화 통화할 때는 우리 둘 다 밖에 나간다. 죽어버릴지도 몰라서.



착정한 듯한 세 남자. 에디터가 아무런 포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점점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각자 필살기를 시전했다.



‘DDR’이란 노래가 참 재밌더라. 이걸 듣고 순진무구한 얼굴로 “오빠,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묻는 여자와 피식 웃으면서 모르는 척해주는 여자가 있다면 어느 쪽에 더 끌리겠는가?

**보이 비:** 가장 끌리는 건 피식 웃으면서 아는 척하는 여자다.

**행주:** 도대체 일면서 왜 모른 척해? 진짜 모르는 여자는 좀 별로다. 그럼 나를 얼마나 변태로 보겠어!

DDR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순간을 들킨 적이 있다면?

**지구인:** 숙소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뉴에라 딱 쓰고 태양에 빙의한 채 춤을 추고 있었다. 그때 보이 비랑 눈이 마주쳤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DDR 하다가 걸린 것도 아닌데 얼굴이 시뻘게졌다.

2012년 발표한 미니 앨범 제목처럼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잘생겼다. 선글라스를 벗고 활동할 생각은 없나?

**행주:** 안 그래도 앞으로는 많이 안 쓸 생각이다. 쓴다고 더 멋있지도 않고.

**지구인:** 잘생겼단 소리는 못 들었어도 그렇게 심~하게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듣고 몰 흐르듯 살아왔다. 선글라스를 끼고 활동하니까 벗었을 때 그 반전 효과가 더 커서 얼굴이 더 못생겨 보이더라고.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너희 선글라스 좀 안 쓰면 안 되느냐고 묻더라.

멤버를 한 명 더 영입할 수 있다면 누구랑 같이 활동하고 싶은가?

**보이 비:** 우리랑 달리 비주얼이 좀 되는 여성분.

**행주:** MAXIM 스타일 노래할 필요도 없고 랩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무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리듬파워에게 MAXIM이란?

**보이 비:** 내 성공의 척도.

**행주:** 섭외 연락받고 희열을 느꼈다.

**지구인:** 집지 인터뷰 몇 번 해봤지만, 드디어 친구들한테 Respect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뷰 내내 배꼽을 잡았다. 이 유쾌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행주:** 친구라서?

**지구인:**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데 이상하게 셋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되게 신나고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더라. 앞으로는 즐겁고 유쾌한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풀기 넘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보이 비:** 어차피 음악 길게 할 건데 한 번 정도는 사고를 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 리듬파워가 추천하는 Best Song 3

일단 한 번 들어보시라니깐요?

### 1 사나이

“이 곡을 듣고 다들 트리트나고 묻지만, 사나이의 애환을 담고 싶어서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만든 곡이다.”

### 2 인천상륙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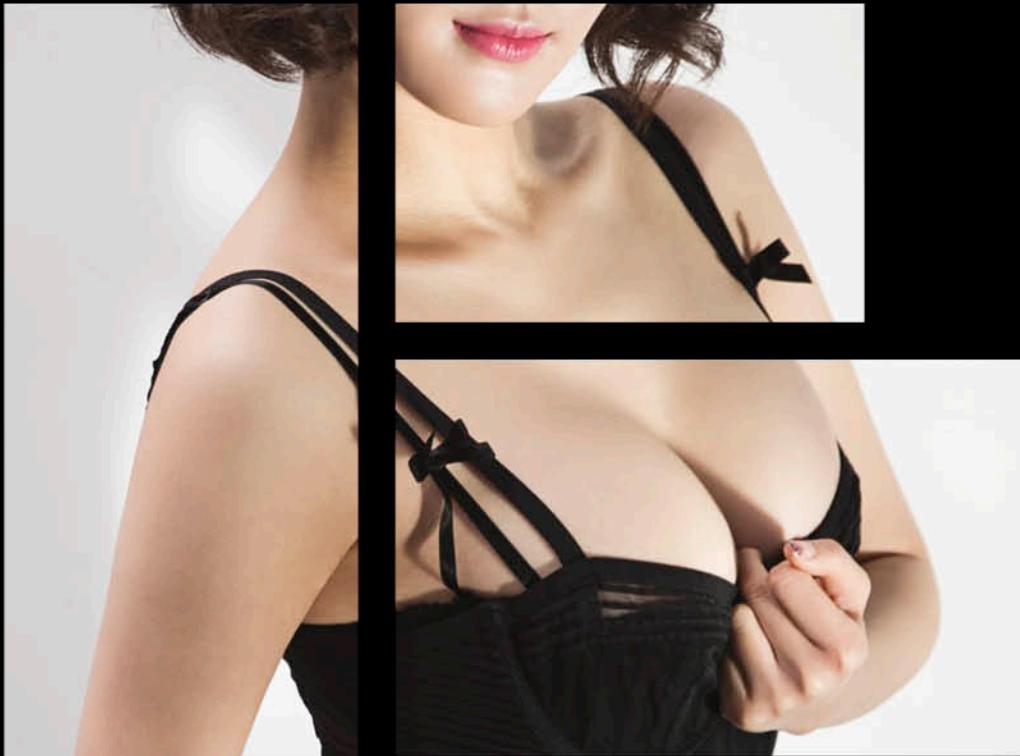
“외국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래퍼가 많다. 당시 국내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서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



뒤처기가 핵심이나라.  
-맥아더 장군-

### 3 왕좌의 게임

“미드 제목에서 따왔다. 힙합 신의 왕좌를 노린다는 내용 같지만 사실 왕게임 노래다. 들어보면 많이 공감할 거다. 커밍 슌!”



## *5 Ways To Unlock Her*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그녀의 란제리를  
능숙하게 제거하는 스킬을 알려 주마. BY 손안나



호리병  
몰매란  
이런 것!



## CORSET

코르셋은 여미는 방식에 따라 운동화 끈  
뭉뚱 허리를 조이는 코르셋과 혹은  
여미는 코르셋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코르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가  
됐든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당신이 직접  
그녀의 코르셋을 풀어주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이걸 벗기기 위해 여자의 배나 등에  
매미처럼 달라 붙어 갱강대는 사나이의  
모습이라니...  
여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코르셋을 풀자마자 드러나는 애교 뺨살은  
절대 남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존재거든.

“ 코르셋을 벗길 타이밍이라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벗은 몸을 보여줘. 넌 그게 더 예뻐.”

> 코르셋 야장 프루보카퇴르

< 신발 슈즈원

## BRASSIER

“ 달려들과 동시에 브라 끈부터  
풀어버리지는 마세요.  
그녀도 오늘 밤 거사를 위해  
필살 속옷을 준비한걸요.”

브래지어는 대부분 뒷부분에 달린 2단 혹은  
3단 훅을 이용해 채운다. 그녀와 마주 본  
상태에서(물론 키스 중이겠지)에서 손을  
훅으로 가져간다. 가운데 손가락을 브라 끈  
안으로 넣어 끈을 풀기 좋게 살짝 들어준다.  
그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훅을  
위와 아래로 분리한다.



브라와 팬티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 STOCKING

살결이 살짝 비치는 여자의 스타킹을 보면 일단 찢고 싶어지는 게 남자의 심리. 하지만 세상에는 찢어도 되는 스타킹과 안 되는 스타킹이 있다. 전자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0~2,000 원대의 기본 팬티스타킹. 워낙 얇은 데다가 한두 번 신으면 금방 울이 나가버리는 재질이므로, 짐승으로 빙의한 당신이 이걸 착착 찢어놓는다고 해서 그걸 나무라는 여자 친구는 없다. 다만 그를 스타킹이나 화려한 패턴을 수놓은 망사 스타킹,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을 위해 그녀가 큰맘 먹고 구입했을 전신 스타킹은 함부로 찢으면 안 된다. 생각보다 꽤 고가의 제품으로 최소 몇 만 원 이상이다. 찢지 말고 세심한 손길로 벗겨주자.

“손톱이나 반지 따위에 걸려 울이 나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전신스타킹 허슬러 by 부르크



## FRONT HOOK BRA

**“ 그녀의 가슴이 풍만할수록 한 손으로  
훅을 푸는 게 힘들거예요. ”**

허와 허가 뒤엉키고, 당신의 손은 그녀의 가슴 위에 닿았다. 달큰 숨을 내쉬는 그녀를 보니 그래. 타이밍은 지금이다.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고 브래지어 훅을 찾는데... 찾는데... 훅이 없다! 당황하지 말고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등을 한 번 쓸어주고 그녀의 가슴골로 컴백하자. 그녀의 브래지어가 혹시 앞으로 여미는 프론트 훅 브라는 아닐는지? 참고로 말하자면 훅이 앞에 달려 있는 이 브라는 맨 처음 비만형이나 임신부를 위해 개발한 속옷이니만큼 가슴 사이즈가 평균 이상인 여성이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냥... 그렇다고...

브라와 팬티 아장 프로보카퇴르



## GARTER BELT

“ 한 번에 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능숙하게 풀어내면 오히려 선수로 보일 거예요. ”

사워하러 들어간 그녀가 가터벨트를  
갖춰 입고 나와 당신을 놀라게 했다고?  
축하한다. 일단 그녀를 충분히 감상하고 난  
후 가터벨트 해체 작업에 들어가자. 먼저  
허리 뒷부분에 있는 벨트의 훅을 푼다.

그다음 스타킹 밴드에 고정된 동그란 고무  
버튼을 찾는다. 버튼을 위로 밀면서 동시에  
가터벨트의 잠금장치는 아래로 내린다.  
잠금장치가 풀리면 스타킹 밴드에서 가터를  
분리한다.



브라 야장 프로보카퇴르  
팬티 미싱도로시  
가터벨트와 스타킹 세트  
일렉트릭 라제리 by 부르르



## 본격 밀리터리 배틀 “누가 더 세냐?”

슈퍼맨과 배트맨, 손오공과 벼지터,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 '누가 더 세냐?' 다. '죽어야 사는' 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밀리터리 분야의 대표적인 네 가지 라이벌 구도를 파헤쳐본다. BY 김민석



남자들은 보통 '가슴이나 엉덩이나, '현아나 효성이나' 같은 비생산적인 논란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 엄마, 섹파, 마누라, 담임선생님이 보기에는 그저 쓸모없는 논쟁에 불과하다. 이런 배틀에서 누가 이겨봤자 지구온난화가 해결된다거나 AV 배우 사쿠야 유아가 은퇴를 반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AV 안 해요.



더군다나 이런 A와 B의 대결 구도는 항상 싸움과 다툼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라는 웅얼이를 시작하자마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 대답을 강요받던 우리의 유아기 경험상, 누가 이기든 상처받던 승리만 남을 뿐이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는 허세질을 위해서 뭐가 더 센지 남들과 치열하게 입으로 다투는 것은 남자의 본성이다. 이왕 다들 거면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이번 달에는 MAXIMI이 꼼꼼하게 참사 지도를 해주겠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디펜스 타임즈> 객원기자
- <월간항공> 객원기자
- <밀리터리 리뷰> 객원기자
- <디펜스 21> 객원기자
- 미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리포터
- KBS 다큐 <사사기획 창: 차세대 전투기> 기술자문



돌격 소총과 방탄 장비들은 현대판 창과 방패라 할 수 있다.

### 총 vs. 방탄복

고사성어에서 유래한 논리학 용어 모순(矛盾)에서 알 수 있듯이, 무기와 방어구 중 어떤 것이 더 강한지에 대한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했다. 그렇다면 현존 최고의 실력을 가진 특수부대원들이 장착하는 돌격 소총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탄복을 뚫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탄복은 돌격 소총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방탄복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미 육군 보병이 사용하는 방탄복인 IOTV(Improved Outer Tactical Vest)나 미 육군 레인지가 사용하는 SPCS(Soldier Plate Carrier System) 방탄복의 경우 AK-47이 사용하는 7.62mm 소총탄까지 막아내는 방탄 플레이트를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동 소총에 한해서다. 방탄복은 더 큰 7.62mm 탄을 쓰는 저격총, 기관총, 유탄 발사기 등의 총알을 막아내지 못하거나, 겨우 치명상을 줄이는 수준밖에 안 된다. 특히 보병의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씌어 먹기 위한 전용 총기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ENEL PAW-20 Neopup, 미국의 XM-25, 한국의 K-11 복합 소총과 같은 놈들에게는 현재의 방탄복은 대책이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크라이시스>의 나노 슈트나 <아이언 맨>과 같이,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로봇 갑옷인 '외골격 강화복(exoskeleton)'이 등장하기 전까지 방탄복의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HULC(Human Universal Load Carrier)나 DARPA의 WarriorWeb 프로젝트 등 동력을 갖춰 병사들에게 더 무거운 방탄복을 입히려는 연구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가까워졌다.



후덜덜한 미국의 초창기 방탄 조끼 실험

### 스텔스기 vs. 대공 미사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는 미국에 도전하는 양아치 독재자에게 주는 최고의 '채찍'이었다.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라크의 후세인,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리비아의 카다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까지 세계 곳곳의 독재자들은 스텔스기의 공습에 무력하게 당하거나 공포에 떨며 지하 bunker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1991년, 일명 '나이트 호크'로 불리는 F-117 스텔스 전투기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대공미사일과 레이더를 갖춘 바그다드를 폭격했다. 이 때 44대가 출격하여 단 1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이후 스텔스기는



전국구 경패 천하무적 미군이라면 남심 방탄복은 기빈

그 어떤 대공미사일과 레이더도 방어할 수 없는, 마치 서울에서 시골 다방으로 갓 이적한 에이스 오봉순이 같은 절대 무기로 거듭났다. 중국의 J-20과 J-31, 러시아의 PAK-FA, 인도의 FGFA, 터키의 TF-X, 한국의 KF-X 같은 차세대 전투기는 모두 스텔스 기술을 탑재했다. 미국 또한 자신들의 전투기를 모두 스텔스 전투기로 바꾸려는 야심찬 목표에 해병대, 해군, 공군이 사용하는 3군 통합 전투기 F-35 라이트닝을 무려 1,700대나 생산할 계획이다. 스텔스기는 대부분 기체의 모양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고, 빛깔 모델은 미사일을 동체 안에 숨기는 설계를 채용했다.



합체는 안 되니까 기대하지 마.

몽키 삼총사 아니라고.



차 문 열렸잖아. 가장새끼야!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



이게 파리채여 레이더여?

NEBO-M01A라 불리는 러시아의 최신식 레이더 시스템



스텔스기를 격추한 S-125 미사일

하지만 스텔스기도 대공미사일에 격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와 경쟁하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일종의 초고감도 적외선 카메라인IRST로 동체의 열을 탐지해 F-35를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발전된 대공미사일이라 불리는 S-400 미사일과 RLM-ME 레이더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전 사례도 존재한다. 1999년, 구 유고 연방의 코소보 지방에서 작전 중인 스텔스기 F-117 한 대가 SA-3 미사일에 격추당한 것이다. 일부 급진적인 밀리터리 전문가 중에는 이 사건 이후 스텔스기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격추시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다. 적외선카메라로는 스텔스기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스텔스기와의 거리를 정확히 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 대의 비행기가 마치 물사냥을 하듯 떼를 지어 스텔스기의 정확한 위치를 겨우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격추된 F-117도 작전 중 보인이 새어나갔고, 경로가 제한되어 방심하다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레이더의 성능을 엄청나게 높여 스텔스기를 탐지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스텔스기를 탐지할 만큼 강력한 레이더를 만들면, 반대로 레이더가 전파를 너무 강하게 쏘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운영하는 조종사가 레이더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다는 것이다. 결국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가 스텔스기에 포착되지 않아야 스텔스기를 막을 수 있다.

### 한국군 vs. 일본 자위대

국내의 밀리터리 소셜 작가들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싸움을 많이 다뤘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치욕의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애국심을 자극하기에 족바리 새끼들을 징벌하는 소재만큼 적절한 것이 없다. 따라서 사실이 어떠한 소셜 속에서는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야 독자들이 좋아하고, 작가의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고, 창설 역사도 비슷하며, 운용하는 무기의 종류도 같거나 닮은 점이 많다. 한국군과 자위대 모두

구 일본군 출신이 창설에 참여했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서로를 쫓 견제하며 함께 발전을 거듭한 '군사적 라이벌'의 전형적 케이스라고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자위대는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니므로 공격 무기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지스 구축함, 조기 경보기, F-15 전투기 등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침공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핑계로 끊임없이 전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해병대와 유사한 '수륙양용단'을 창설하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보다



아 시발 너 방귀 뀌었제!

F-15K는 한국 공군의 오랜 숙원을 풀어준 대형 전투기이다.



일본의 아타고급 이지스함. 첨단 무기의 숫자는 여전히 일본 자위대가 우세하다.

더 정확하고 큰 탄두를 가진 고체 연료 탄도탄을 개발 중이며,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헬기 항공모함을 두 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해군력이 약해서 일본 해상 침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실제로 몇몇 창작물에서는 한국 해군이 마치 해적처럼 일본 군함을 습격해 빼앗는거나 어선을 작은 군함으로 위장시킨다는 무리수를 넣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다고 한국군의 전력은 전반적으로 일본군에 뒤처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E-737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 F-15K 슬램이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등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예전에 일본의 নে트우익들이 신나게 자랑하던 자위대의 무기들과 자웅을 겨룰 정도다. 심지어 몇몇 무기의 공격력은 한국군이 더 뛰어나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이름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크루즈미사일을 갖춰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두 나라가 이제는 거의 같은 무기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나라는 최근 F-35, 이지스 구축함, 고(高)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같은 최신 미국제 무기 도입을 경쟁하듯 몇 달 간격으로 추진하고 심사시켰다. 결국 한국군과 자위대는 같은 맥도날드 분점이지만, 서로를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이어도를 지키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일본 이지스함에 후달릴 게 없다.

## M1 에이브람스 vs. 레오파드2

최근 온라인에서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흥분시킨 주제 중 하나는 “독일제 탱크와 미국제 탱크 중 누가 더 강하냐”에 대한 갑론을박이었다. 대개 전자 마니아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 번에 수십 대의 탱크를 부순 독일 전차와 ‘전차 에이스’라 불리는 전설적인 독일인 조종사들을 숭배하곤 한다. 따라서 ‘전차 하면 독일, 독일 하면 전차 강국’이라는 공식은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이야말로 진짜 세계 최강의 탱크를 생산하는 국가이며, 현재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2’는 과대평가되었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람스’를 세계 최고의 전차로 꼽는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공격력, 방어력, 탐지 능력, 정보처리 능력에 이르기까지 에이브람스 전차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10년간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전을 겪으며 발전해온 에이브람스 전차야말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과거 에이브람스 전차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탐지 능력은 미국이 최신형 적외선 조준경을 장착하면서 극복했고, 주변 전차의 상황이나 명령을 받는 시스템도 많이 발전했다. 장갑 역시 에이브람스 전차가 훨씬 두껍고 빈틈이 없다. 탄약의 공격력도 독일의 기술력을 흡수해 강력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이브람스 전차가 왕 중 왕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용하는 포탄이 비슷하다더라도 최신형 레오파드 2a7 전차는 포가 더 길어 장갑 관통력이 우수하고, 독일 역시 미국과 비슷하게 개량을 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에이브람스의

팬들은 레오파드 2 전차가 곳곳에 ‘빈 장갑’을 갖고 있다며 약점을 잡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실제 레오파드의 장갑은 로켓이나 미사일, 포탄을 막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방어력은 레오파드 역시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레오파드 2가 우세하다고 주장하는 마니아들은 항상 ‘엔진 성능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에이브람스 전차가 사용하는 엔진은 개스 터빈, 즉 개조된 제트 엔진으로 연비가 나쁘다. 미국 역시 이 점은 인정하는 터라 독일제 전차 엔진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다. 게다가 독일은 최근 ‘레오파드 2a7’ 전차를 다시 개량한 ‘2a7 Global-Operations’를 내놓았다. 이 전차는 헬기 요격이 가능한 포탄을 탑재하고, 소니 디지털카메라에 사용하는 카를 차이스사의 ‘ATTICA’ 적외선카메라도 달아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에 실제로 최근 미국은 앞에서 언급한 에이브람스 전차의 고질적인 엔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레오파드 2에 장착된 독일제 엔진을 채택했다.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던 연비와 기동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마치 장군 명군을 주고받듯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드는 당분간 세계 최강 전차의 타이틀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에서 맹활약을 한 현장파 강자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드2신(申) 앞에 줄지어 무릎을 꿇는 병사들

From MAXIM US 





# Call of Booty

경고: 산소호흡기를 준비하십시오.  
새로 시작한 미드 <블랙 세일즈>에서 겁나 섹시한 해적 매춘부 역할을 맡은 제시카 파커 케네디를 보고 심장이 멎을 수도 있으니까.

BY PATRICK CARONE  
PHOTOGRAPH TED EMMONS



거친 해적들의 드라마 〈블랙 세일즈〉에서 자유로운 해적 매춘부 '맥스' 역할로 오대양 육대주 숯농들을 짜릿하게 유혹할 여배우 제시카 파커 케네디. 오랜만에 육지에 상륙한 그녀가 들려준 레즈비언 섹스 신 이야기, 궁금하지?

**드라마 〈블랙 세일즈〉가 다른 해적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 사람들의 인식에서 해적이 꽤 로맨틱해졌지만 〈블랙 세일즈〉는 해적을 미화하기보다는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극적인 칼싸움 뒤의 아름다운 죽음 따윈 없다. 현실은 대포 파편에 맞아 눈이 먼 채로 바다 위에 던져지는 거니까.

**당신이 맡은 역할은 뭔가?**

해적 매춘부. 몇 달 동안 계속 바다에 나가 있는 해적에게 해적 매춘부야말로 욕정을 가라앉히는 소중한 존재다. 게다가 맥스는 단순한 창녀라고 하기엔 매우 똑똑한 여성이다. 아름다운 미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해 음해하거나 악점을 잡고 협박해서 원하는 이득을 얻는 것에 아주 탁월하다. 한마디로 팜프파탈이지.

**해적이 섹시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해적만큼은 확실히 섹시하다. 개인적으로는 〈퍼시픽 림〉의 주인공 찰리 허범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가 해적 역할을 맡으면 정말 섹시할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나 같은 포행이 소녀는 만나고 싶지 않겠지. 흑흑...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거부할 남자가 어디 있겠나? 그나저나 앞으로 드라마에 섹스 신과 누드 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예정이라며?**

맞다. 그것도 올 누드 신으로! 하지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억지로 삽입한 장면은 아니다. 많이 벗어본 내가 장담한다.

**첫 화에서 레즈비언 섹스신을 찍었다고?**

나도, 내 상대 엘리너 역을 맡은 한나 뉴도 레즈비언이 아닌지라 키스하는 게 정말 고역이었다. 제작진이 "컷!" 하면 둘 다 바로 입술을 떼고 어색한 웃음만 지었다.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직접 확인하니 정말 끔찍하더라. 다행히 제작진은 그 장면을 적극적으로 편집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의리가 좀 있던데? 



“

**The nudity in  
Black Sails  
is never  
gratuitous.  
I can say that  
firsthand,  
as I'm naked  
a lot.**

단언컨대, 우리 드라마의 누드 신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억지 장면이 아니다. 많이 벗어본 내가 장담한다.

”

  
Bikini **VODA**  
Ring **EK by Elodie K.**  
Necklace **Kami Lerner**

From MAXIM US 

 **Jessica  
Parker  
Kennedy**

제시카 파커 케네디

고향: 캐나다

생일: 1984년 10월 3일

HAIR MICHAEL KANYON/CELESTINE AGENCY MAKEUP ALEXIS SWAIN/CELESTINE AGENCY STYLING LAUREN CAMPANILE





## 눈싸움의 정석

2014년 1월 11일, 놀이문화를 연구하는 모임 PLAYGROUND SPIRIT이 주최하는 제5회 전국 눈싸움대회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렸다. 겨울이 가기 전에 확실하게 눈싸움하는 법을 독자들에게 전수하고자 눈싸움의 모든 것을 배우고 왔다. BY 박정욱

### 눈싸움도 아이템빨

고딩 시절, 동네 피시방에 앉아 84일 동안 게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아 전설이 됐던 그 아저씨는 신선처럼 자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모든 게임은 아이템빨이다”

#### 공격 아이템



##### → 스노우 블라스터

내부에 고무줄이 달려 있으며 뒤편의 구멍에 손을 넣고 고무줄을 잡아당겨 눈을 튕겨내는 방식. 하지만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의 생명줄보다 질긴 고무줄을 당기는 건 법석이 와도 허를 내두를 정도. 그냥 간지용으로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 → 새총

눈싸움에서 새총을 다루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눈을 구슬 크기로 뭉친 뒤 물을 살짝 부여 반빙반설 상태로 만든다. 들처럼 단단해진 눈은 쇠구슬 같아 충분히 연습만 한다면 적의 머리에 총알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



##### → 스노우 트랙블

쌓인 눈에 속 집어넣고 스퀴프를 눌러 단단한 눈을 만든 후 그대로 밟다 던져버리면 되는 전천후 아이템. 사용법이 쉽고 간단해 난타전이나 게릴라전에 유용하다.

### 어떤 장갑으로 눈을 뭉치면 잘 뭉쳤다고 소문이 날까?



#### ① 가죽 장갑

눈을 만지다 보면 금방 축축해진다. 하지만 매끈한 가죽 표면 덕분에 눈덩이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 보기 좋은 눈이 던지기도 좋잖아.

#### ② 스키 장갑

장갑이 두꺼워 눈을 던질 때 손놀림은 둔해진다. 하지만 눈을 뭉칠 때는 손이 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장기전에 돌입해 물랑 싸움이 될 때 유리하게 쓰인다.

#### ③ 털장갑

털에 눈이 덕지덕지 묻는다.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하지만 눈싸움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 얼굴을 눈 묻은 장갑으로 세수시켜주니 금방 기분이 좋아진다.

#### ④ 스마트폰용 장갑

눈을 뭉치다 보니 손끝이 아리다. 손톱 밑에 때가 아닌 눈이 끼기 때문이다. 눈싸움에 돌입하면 정확한 제구력을 자랑하지만 눈을 뭉칠 때는 비추.

## 꼭수 아이템



### 설상 위장용 체육복

초등학교 시절에 입었던 하얀 체육복이 눈싸움할 때 유용하다. 군대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적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설상 위장을 하는데, 하얀 체육복만 있으면 이 설상 위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방패와 하키 채

당신을 조준한 눈덩이가 눈앞까지 왔다면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박스로 간단하게 만든 방패가 있다면 팔을 살짝 들어 눈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눈싸움이 격해져서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대비해 위험용 하키 채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자. 누구나 집에 하키 채 하나쯤은 있잖아?



## 악랄한 눈덩이 첨가물

순수한 눈싸움은 재미없어? 그럼 법적 싸움으로 진화시키자.



### 1 쟁돌

심플하지만 가장 위험적이다. 뭐든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 2 다트

쟁돌로 성이 안 차는 사이코패스와 시각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의 선택지. 선흥빛 피가 넘쳐난 하얀 눈밭을 구경할 수 있다.



### 3 응가

상대에게 평생 눈은 쳐다도 보기 싫도록 강렬한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 있다. 응가는 피보다 진하다.

Q 돌이나 다트를 넣은 눈덩이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저는 감방에 가나요?

A 돌 넣은 눈덩이로 상대를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트를 넣은 눈은 흉기로 분류될 수 있어 흉기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눈싸움에서 저런 개병신짓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 스노우볼 메이커



### 1 스노우볼 팩토리

신기전을 만든 조상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눈덩이 대량 생산 공장. 45개의 눈덩이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 이걸로 두 번만 꺾꼭 누르면 야구 선발투수가 한 경기에 평소 던지는 90개의 공을 던질 수 있다.



### 2 스노우볼 트리오

사용해본 결과 그냥 안 쓰는 게 낫다. 틀에 눈을 담을 때 이미 손은 눈 범벅이 되기 때문. 열심히 눈덩이를 만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 3 스노우볼 스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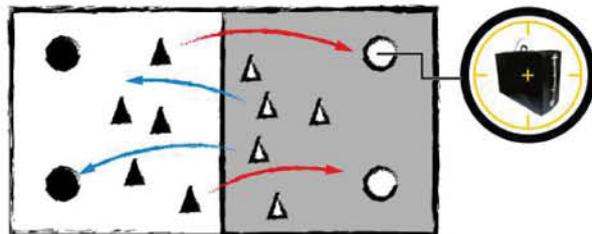
연탄집게처럼 사용하면 되니 스티븐 호킹 박사조차 쉽게 다룰 수 있다. 장갑을 끼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 손이 시릴 일도 없다.

## 「색다른 눈싸움을 원해?」

그냥 던지고 맞는 단순한 눈싸움은 재미없잖아? 제5회 전국 눈싸움대회에서 배워온 색다른 방식의 눈싸움 게임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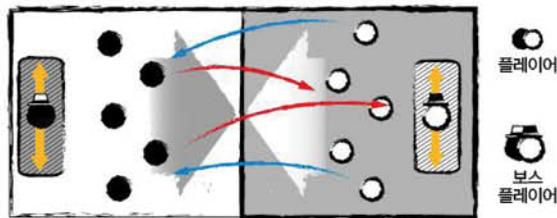


눈싸움 하다  
패싸움 날 뻔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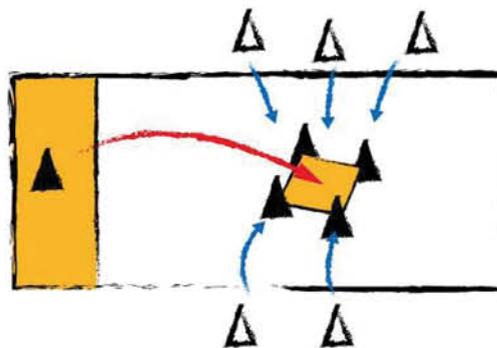
### 1 돈 가방을 털어라

**How To:** 운동회 때 했던 박 터뜨리기와 비슷한 원리의 게임. 장대에 달린 상대방 진영의 돈 가방을 눈덩이로 맞아 터뜨린다.



### 2 블라인드 스노우파이트

**How To:** 각 팀은 보스를 정한다. 보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만, 안대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보스를 제외한 전원이 안대를 쓴 상태에서 눈싸움을 벌인다. 눈에 맞은 플레이어는 아웃되며, 보스가 먼저 아웃된 팀이 패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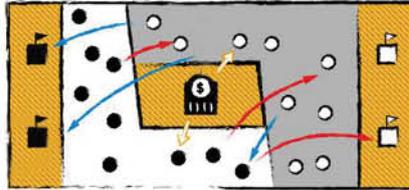
### 3 스노우 슈팅게임

**How To:** 한 명이 눈덩이를 던지고 네 명이 보자기를 잡고 눈덩이를 받는다. 이때 상대 팀은 보자기를 잡고 있는 상대방 팀에 눈을 던져 방해한다. 시간 내에 더 많은 눈덩이를 받은 팀이 승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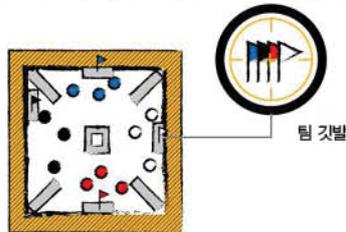
#### 4 은행 털기

**How To:** 각자의 진영에는 박스로 쌓아올린 금고가 있으며, 그라운드 중앙에는 은행이 있다. 팀원은 임무를 나눠 상대방 진영의 금고를 무너뜨리면서 은행에 있는 상자를 훔친다. 팀원 일부는 금고를 공격하고 일부는 상자를 훔치는 상대방에게 눈덩이를 던져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5 깃발 뽑기

**How To:** 네 팀이 참가해 사방에 진영을 마련한다. 각자의 진영에는 깃발이 꽂혀있다. 네 팀이 난타전을 벌여 상대 팀을 전부 맞춰 아웃 시키거나, 상대 팀 진영에 있는 깃발을 뽑아 탈락시키면서 끝까지 남은 팀이 승리한다.



### 눈덩이 단단하게 뭉치는 법



눈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녹으면서 얼어붙어 접착력이 높아지고 눈덩이도 단단해진다. 하지만 미국 몬태나 주립대학 눈사태 연구소에 따르면 "영하의 기온에서는 눈 속에 액체 상태의 물이 없다"고, 그래서 추운 날에 '마른 눈'으로는 눈덩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다. 방법은 하나. 물을 더하면 되겠지? 눈덩이를 모아놓고 그 위에 물을 뿌리자. 동네 제일의 눈덩이를 갖게 될거야.



### 변화구 던지는 법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연습하다 보면 더 안 되는 눈덩이 변화구 던지기.



#### ① 서클체인지업

검지와 엄지를 동그랗게 붙여 만든 부분에 눈덩이의 한쪽의 대고 세 손가락으로 감싸 던진다. 작구처럼 날아오는 눈덩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인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할 수 있다.



#### ② 포크볼

검지와 중지를 최대한 벌리고 양 손가락 사이에 눈을 끼우고 던진다. 상대방의 얼굴을 노리는 척하다가 낭심을 노릴 때 유리하다.



#### ③ 슬라이더

검지와 중지를 나란히 놓고 스펀을 먹여 던진다. 직선으로 나가다가 옆길로 새는 구질이기 때문에 엄호를 받으면서 구석에서 눈덩이를 뭉치는 적을 가격할 수 있다.

# MISS M



## 2014 MISS MAXIM CONTEST THE 1st CANDIDATE

### 정주연

'바퀴벌레 잡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동네 여자'라며 도전장을 내민 수줍음 많은 2014년 첫 번째 예선 통과자 정주연. 그 동네 어딘지 좀 가르쳐 주면 안될까?

BY 김희성 PHOTOGRAPH 김도훈

HAIR&MAKEUP 장혜민 VIDEO 김상수

ASSISTANT 김소윤

브라 게스 언더웨어  
구두 슈즈원



정주연

취미 운동  
주량 양주 한 병  
이상형 짓곳지만 다정한 남자



# AXIM

OF THE MONTH



자신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이유는?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행동이 똑같다.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발견했다! 어떻게 할 텐가?  
술책 대가서 ... 으응?

클럽에 갈 때 입을 필수기 복장은?  
비서 코셋에

첫 키스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아 이거 엄마가 보진 않겠지...

잘 때는 뭘 입고 자나?  
뭘 입고 잘어요? (부끄)

신체 중 '여긴 내가 1등!' 할 만한  
부위는?  
엉덩이.

하루 중 자신이 가장 섹시해 보일  
때는 언제인가?  
운동 끝나고 복근 확인할 때 ...?

MISS MAXIM CONTEST에  
입하는 각오 한 마디!  
동네 여자 화이팅 ^^



속옷 게스 언더웨어



2014  
MISS MAXIM  
CONTEST  
THE 2nd CANDIDATE

선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섹시한 그녀의 성격은 쾌활 그 자체였다. 털털한 그녀의 모습에 이 날 스태프들은 모두 그녀에게 반해버렸다!



선현이

취미 운동  
주량 소주 한병  
이상형 웃는 모습이  
섹시한 남자  
자신있는 신체 부위 다리

구두 슈즈원

모두가 반한  
유혹의 기술



MISS MAXIM CONTEST에

도전한 계기는?

준영까지 올라간 동생 지은이 사정을  
보고 너무 예뻐서 자랑스러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밸런타인데이

선물은?

특별히 없어요. ㅋㅋ 초코렛...

자신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이유는?

한마리의 표범요. 거역적이고 색시해서...

살면서 해본일 중 가장 미친 짓은?

다녀온 직장을 때려치고 무작정  
9월쯤에 뛰어들었을때.

주로 가는 클럽은?

목타랑. 신드롬.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발견했다! 어떻게 할 텐가?

예뻐하고 너무 귀여워서 춤을 춘다.

클럽에 갈 때 입는 필수기복장은?

미니윙피츠

첫 키스는 언제?

고 3때

잘 때는 뭘 입고 자나?

여름엔 나시윙피츠.

겨울엔 수영잠옷.

하루 중 자신이 가장 색시해 보일

때는 언제인가?

산후후 걸은머리에

리닝을 바르고 난후.

MISS MAXIM CONTEST에

입하는 각오 한마디!

경쟁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브라 게스언더웨어  
구두 슈즈원



## 성매매 특별 기획 Part.2 위험! 경고! 인터넷 성매매의 덫

지난 시간엔 성매매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성행하는 여러 업태의 업소를 낚낱이 살펴보았다.  
〈성매매 특별 기획 2편〉에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를 공부해보기로 하자. 이게 다 당신의 몸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BY FELIX LEE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를 거쳐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 인간관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은 사이지만 SNS를 통해 불일친구만큼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생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람과도 오만가지 대화를 나누는 세상이다. 당연하게도, 이에 발맞춰 성매매의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집창촌이 사라지고 안마, 오피 등의 변종 성매매가 많이 생겨났다. 사실 이것들은 장소나 스타일만 변했을 뿐 기존 성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변종 성매매'를 꼽으려면 단연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이른바 '조건 만남'이 있다.

인터넷 성매매의 시작을 따지자면 세이클럽이나 버디버디 같은 왕년의 인기 채팅 사이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성매매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인터넷 성매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 1) 소위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성매매 전선에 등장했다는 점
- 2) 체계적인 업소를 기반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개인 중심의 성매매라는 점
- 3) 직업여성이라는 부담감이 없어서인지 젊은 여성,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대거 성매매 현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조건 만남은 전통적 의미의 성매매와 전혀 새로운 개념이니만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 1 인터넷 성매매, 특별히 다를 것은 없... 아니, 오히려 위험하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복습해보자. 성매매특별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이다. 통상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조건 만남이라 하면 1번에 얼마, 2번에 얼마 등 성행위와 가격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하고 만나 성매매를 하는 식이다. 누구든지 조건만 맞으면 만난다. 물론 “몇 살 이상은 싫다, 변태는 싫다, 노코질하는 새끼는 싫다, 후장질하는 새끼 싫다” 뭐 이런 단서를 달 수는 있겠다. 그런데도 불특정인이라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조건 만남은 당연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흔히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인터넷 성매매는 단속에 걸릴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오해도 이런 병신 같은 오해가 없다. 세상 단속하기 쉬운 게 인터넷 성매매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물론 업소 가서 신용카드를 쓰는 등신은 논외로 한다). 그런데 인터넷 성매매는 증거가 여기저기에 남는다.

### » 증거는 이미 질질 흘러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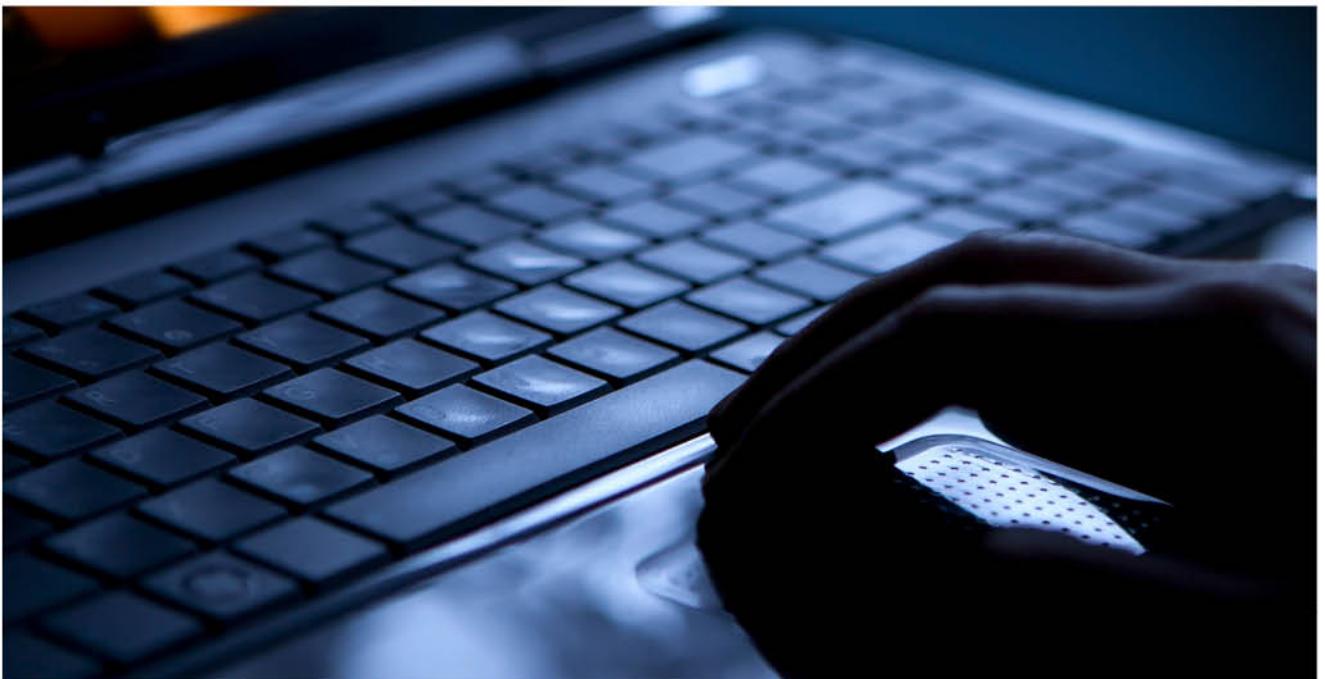
인터넷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일단 채팅 사이트나 채팅 앱에서 만난 조건 만남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건 협상을 하겠지. 합의가 성립되면 대략적인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거고. 그런데 지금이 <응답하라 1994>도 아니고 무조건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정한 뒤에야 만나는 시대가

아니다. 둘이 이웃사촌이 아닌 이상애야 누군가는 이동을 해야 할 거다. 그런데 인터넷과 모바일은 익명의 공간이니만큼 사기꾼이나 장난치는 놈이 워낙 많다. 그렇게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이게 낚시였다면 그보다 쪽팔리고 열받는 일이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조건 만남을 할 땐 서로 사전에 전화번호 교환 없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연락처를 교환하고 문자든 카톡이든 전화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나게 될 거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매매의 증거가 된다.

### » 단속은 상상 이상으로 쉽다

조건 만남을 하는 친구들은 말이 아마추어지 쯤프로나 다름없다. 한 번 쉽게 돈을 벌기 시작한 이상 다른 일을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다시 성매매에 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성매매를 단속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쉽다.

경찰은 조건 만남이 이뤄지는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자주 출몰하는 여성을 추려낸 후 성매수남인 척 성매매녀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매매녀를 만나 덱식 붙잡은 다음 휴대전화를 뺏는다. 대부분의 여성은 경찰에 잡히고 나면 겁에 질려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협조한다. 통화 목록, 문자 목록, 카톡 내역 등 달라는 대로 다 준다. 경찰이 그녀들에게 “성매수남에 대해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 혹은 “진술을 많이, 더 구체적으로 할수록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면 기억나는 대로 줄줄이 다 이야기한다.



아 손님, 현금영수증은 발행 안 된단니까요!



게다가 인터넷 성매매를 하는 여성 중에는 혹시 성매매 과정에서 역범죄, 즉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떼이는 일이 생길까봐 상대의 연락처를 저장해놓고 심지어 인상착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므로 일단 경찰이 추궁하기 시작하면 아주 술술, 성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신상 정보가 나온다.

## >> 이미 늦었어, 이 친구야

이제 와서 부인해봐야 소용없다. 채팅 사이트 등의 업체들은 경찰이 요구하면 성매매녀와 구매자 사이에 오간 모든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통화한 기지국까지 다 나온다. 만나긴 했는데 성매매는 안 했다? 상대 여성이 “돈 받고 저 남자랑 자주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는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같은 멍멍이 소리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인터넷 성매매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겠지? 그야말로 기름을 등에 지고, 몸에 들어붙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병신짓이다.

## 2 아청아청? 철렁철렁! - 청소년성매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성매매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어디선가 철렁철렁 소리가 들리지 않나? 여기서 그 이름도 유명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이 등장한다. 청소년 성매매, 그것이야말로 은팔찌를 득템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성매매특별법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논란이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누가 봐도 진짜 몹쓸 짓이다. 그래서 규제도 훨씬 강하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는 바와 같이 아청법은 징역의 하한이 1년, 벌금의 하한이 2,000만 원이다.

보통의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인 것과 비교하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법정형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겁다. 일반 성매매의 처벌 상한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 하한이다. 대부분의 경우 성매매 초범에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때리는 데 반해, 청소년 성매매는 단 한 번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일면서도 “혹시 조건 만남을 하겠느냐” 라고 묻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인터넷에는 대담하게도 본인이 10대라는 것을 밝히면서 조건 만남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놀라지 마라.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반도 숨어 있다. 청소년 성매매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띄워놓고 걸러드는 눈을 덥석 잡는 거다. 일종의 합정수사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거나 시킨 게 아니라 기회만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합법적인 합정 수사다. 즉 걸린 놈만 X된 거다. 성매매 자체가 범죄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그중에서도 악질이고 인생 퇴장의 지름길인 것이다.

### >> 청소년성매매와 일반성매매의 경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까? 위 법규를 보면 '19세 미만의 자가 아동·청소년이다. 그중에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위에서 말하는 '19세'란 만 19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일이 되어야 만 19세가 되는데, 누구는 생일이 지났다고 만 19세고 누구는 생일이 안 지났다고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하면 법의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 이를 명확하기 위해 만 19세가 되는 해, 즉 우리나라 나이로 스무 살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한 거다.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1995년생들이 올해 언젠가 만 19세가 된다. 1995년생은 모두가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청소년이 아니다. 그 경계를 지났다고 해서 성매매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니, 자네는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성매매는 하예쁜 불법이라니까.

### 3 인터넷 성매매를 둘러싼 범죄 행위들

인터넷 성매매의 특징은 철저한 익명성과 관리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1회성 만남이고 소위 '고객'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범죄 행위는

파는 쪽에서든 사는 쪽에서든 어느 쪽에서나 생길 수 있다.

사는 사람의 범죄는, 짐작하겠지만 당연히 '먹튀'다. 끝나고 돈을 주겠다고 한 다음에 주지 않는 경우, 준 다음에 폭행과 협박을 가해 도로 뺏는 경우 등등 가지가지다. 여기에 온갖 변태적 행위에 대한 강요까지... 소위 인터넷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이들을 돌보아줄(?) 속칭 '삼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쉽게 범죄에 노출된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에게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살해한 사건도 상당히 빈번하다.

그럼 파는 사람의 범죄는?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짐작하겠지만 성매매수가 범죄라는 점을 이용한 공갈 범죄가 대부분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보통 성매매 여성과 몇몇 남성이 일당을 이루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매수남을 모집한다. 성매매수남과 만나 모텔에 들어가면서 특을 이용해 일당들에게 어느 모텔 몇 호실인지 알린다. 적당할(?) 시점이 되면 누군가 모텔 방문을 두드리며 "빨리 열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를 친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면 협상국은 깎두기 같은 농들이 나타나면서 "성매매가 범죄인데 어러시면 되겠느냐"라며 혼(?)을 낸 뒤, "성의를 표시하면 이번 한 번만은 봐 주겠다"

고 돈을 뜯어가는 방식이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단위가 기본 몇백만 원부터 심하면 수천만 원 단위까지 간다. 청소년 성매매를 했다는 게 걸리면 패가망신에 직장 질리고 인생 퇴갤 테크를 타게 된다. 협박법들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자기들이 얼마를 요구해도 대부분의 매수남들은 순순히 그냥 다 주게 되어 있다는 걸.

남자라면 누구나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남들은 다 안 걸리고 잘하고 다니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단속에 걸릴 확률도 낮아 보이겠지. 그렇지만 변종 성매매가 다양하게 생겨날수록 그에 대응하는 단속 방법도 진화한다. 결국 걸리지 않는 성매매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

변종 성매매의 끝에 있는 인터넷 성매매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딱딱과 인생을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늘 같은 결론이라 지겹겠지만) 그럴 시간에 야구 동영상이나 한 편 더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 인터넷 성매매 천태만상

됐고, 그냥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무슨 꼴이나? MAXIM에 이런 걸로 실리고 말아야...



### ① 보충금부터 내셔야...

박 모 씨(32)는 '출장 대행' 사이트에서 미모의 한 여성을 골라 선금 10만 원을 보냈다. 얼마 후, 콜센터에서 "보충금 30만 원을 넣어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나중엔 시스템 오류가 났으니 40만 원을 일단 내라고 한다. 박 씨는 여자 구경도 못하고 돈만 날렸다. 개사기였다. 같은 수법으로 3시간 만에 100만 원을 날린 이 모 씨(28)는 "이 상황을 경찰에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난다." 라고 말했다.



### ② 전문가의 손길을 느껴봐

인천경찰서에 잡혀온 전직 PD 박 모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에 고급 카메라 세트와 반사판 등 전문 촬영 장비 등을 갖춰놓고 성매매 업소의 의뢰를 받아 업소에 출장 방문했다. 그리고 여성 종업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릴 홍보물을 만들어주다가 적발되었다. 이 작업으로 번 돈은 총 4,300만 원.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 ③ 너무 빠른 건 싫다!

미국의 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유력녀를 만나 성매매를 한 뒤 오히려 해당 여성을 고발했다가 본인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스카트 파이버(34)는 "유력녀가 상호 합의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가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추적해 그가 만난 두 여성을 잡아 유력 혐의로 체포했다. 물론 파이버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자수를 한 꼴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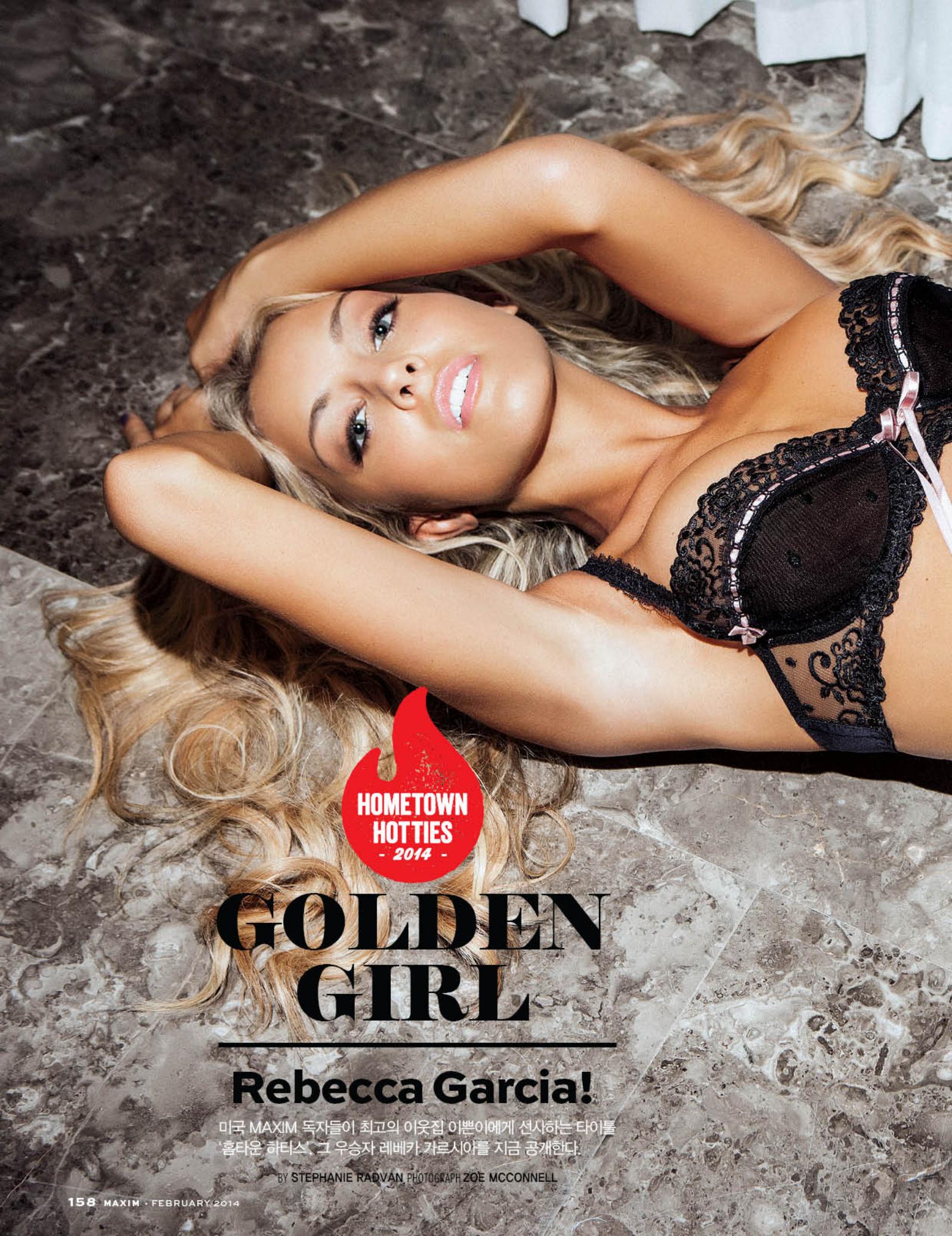
### ④ 오빠, 나 사실 고추임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수남을 유인, 협박해 회대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감된 10대 J양. 어께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와 짙은 화장, 미니스커트 치림이라 체모되어 구멍되는 순간까지 모두가 '여자에'라고 생각한 J양은 사실 남자인 C군이였다. C군은 경찰청 지문 검색 결과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구속 수감 23일 만에 여자 수용방에서 남자 수용방(독방)으로 이감됐다. 고추 수납을 아주 잘했나봐?



### ⑤ 부루마블인줄 아나

강간치상죄로 이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28세의 한 남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16세 소녀를 만나 총복 청주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약속한 대가는 80만 원. 관계 전 그는 5만 원권 16장이 든 봉투를 주었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복사기로 복사한 위조지폐가 든 봉투로 바꿔치기한다. 분노한 소녀는 이 뻔뻔한 먹튀남을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HOMETOWN  
HOTTIES  
- 2014 -

# GOLDEN GIRL

**Rebecca Garcia!**

미국 MAXIM 독자들이 최고의 이웃집 이쁜이에게 선사하는 타이틀  
홀터운 하티스, 그 우승자 레베카 가르시아를 지금 공개한다.

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 ZOE MCCONNELL

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 DIANA SCHEUNEMANN





“

**I wish I could  
visit every  
single guy  
who voted  
for me to give  
them a hug.**

나에게 투표해준 모든 남자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



**Rebecca  
Garcia**

레베카 가르시아

고향: 미국 애틀랜타 주  
생일: 10월 16일

Lingerie **Jezebel**  
Shoes **Christian Louboutin**



애틀랜타 주가 낯은 기적, 아니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해야 하나. 미국 전역의 남성들이 수백만 표를 몰아줄 만큼 매력적인 여자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2014년 미국판 MAXIM 독자들은 '홈타운 핫티스(Hometown Hotties)'에서 금발 미녀 레베카 가르시아를 가장 매력적인 이웃집 그녀로 꼽았다. 건강한 몸매와 시원한 성격에 예쁜 이목구비... 애틀랜타 사는 스포츠들이 부러울 뿐이다!

**축하한다! 우승 소식은 가장 먼저 누구와 나누었나?**  
당연히 엄마죠. 나에게 이 외모를 물려주신 분이니까요. 이 모든 영광을 엄마에게!

**MAXIM의 '홈타운 핫티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이 대회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하지만 참가할 엄두는 나지 않았죠. 홈페이지의 참가 신청 페이지를 열어놓고 혼자 "그래, 하는 거야. 아니야, 안 될 거야."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든 프로필을 다 입력했다가 또 삭제하기도 하고요. 결국 참가 신청을 완전히 마치고 내 스스로에게 말했죠. "절음은 한 번뿐이야. 갈 데까지 가 보자." 사실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이 외모에 지나친 겸손이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나?**

모든 게 나에게 비현실적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줘서 힘을 냈죠. 아, 그리고 팬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팬들'이라니... 내 입으로 말해놓고도 아직 어색하고 이상한 단어네요.

**마이애미에서 홈타운 핫티스에 참가한 경쟁자들과 단체로 화끈한 화보 촬영을 했다. 우리에게 말 못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밝혀보라.**

나도 여자들끼리 라제리나 피자만만 입고 베게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만, 나에게 일어난 가장 희한한 사건은 따로 있어요. 해변가 서핑장에서 달력 화보 촬영을 할 때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온 토르티야밀, 옥수수 전에 고기, 야채를 싸먹는 멕시코 음식)가 내 바로 앞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주변에 있던 갈매기 수십 마리가 나에게 날아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날 마구 쪼아댈 것 같았거든요.

**히치콕의 <새>처럼 끝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눈깔이 고 두피고 남아나질 않았을 테니까. 우승도 했겠다, 이제 앞으로 뭘 할 건가?**

NFL(미국의 미식축구리그) 애틀랜타 펠컨스



치어리더로 뛰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시즌엔 함께하지 못했죠. 하지만 늘 응원하고 있었어요.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홈타운 핫티스 치어리더로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에 대해 또 알려줄 게 있다면?**

동물을 정말 좋아해요. 애호가 수준이 아니라 완전 동물에 환장했다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레이트 데인(초대형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어디든 나와 함께 가죠. 집엔 900L가 넘는 초대형 산호초 수족관도 있어요. 200종이 넘는 다양한 산호들과 20여 종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죠.

**듣고 보니 당신 집에 함부로 들락날락할 수는 없겠는걸? 앓을 자리도 없고... 일단 개가...**

내가 움직이면 되죠(웃음). 맘 같아선 나에게 투표해준 모든 남성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 MAXIM 홈타운 핫티스 참가자들의 화보가 실린 달력을 주고 포옹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참으로 올바른 생각이야. 마지막으로, 우승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는 무엇인가?**

레드 제플린의 '하트브레이커'! 이 시대 최고의 노래라고 생각해요. 🎸

# 修能神功

수능신공

내가 민중 검사  
한다고 했잖아.



## Chapter.4 <수능 신공> 외전편

### 수시의 함정 ("sushi는 초밥이고, 이 십장생야")

입시 제도 또 개편. 올해라고 예외라? 맥심의 수능 레전설  
2인이 짚어주는 불변의 입시 전술에 주목! BY 유승민 이영비

MODEL (순서대로)미스맥심 김지예, 에디터 박정욱 조웅재 김소윤,  
미스맥심 김수아, 에디터 김희성 김상수 PHOTOGRAPH YuD, Zho



**편집장 이영비**  
수능 점수: 393.5점(400점 만점)  
주특기: 4교시 외국어 영역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수석 에디터 유승민**  
수능 점수: 396점(400점 만점)  
주특기: 1교시 언어 영역  
서울강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아이 참, 글씨  
또 까먹었네

### 지난 호 이야기...

작년 11월호에 <수능 신공> 연재를 시작한 지 벌써 4 번째 달이다. 초반에 3개월씩이나 할애해 기초를 닦은 걸 보면 <수능 신공>의 기본 초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지난 호에는 아래에 나온 막판 찍어 맞히기 기술을 알려줬다. 궁금하면 과월호로 고고~

- 첫째.** 명백한 오답 제거서 찍기 확률 높이기
- 둘째.** 문제 읽지 때 보기만 읽어 봐도 오답인 것
- 셋째.** OMR 카드 안에 숨어있는 정답의 힌트

### 누워 봐, 엎드려 봐, 올라타 봐, 일어나 봐, 다리 들고, 옮지...

2015년 대입수능시험 개편안이 발표됐어. 작년에 그렇게 바뀌려고 또 뭐가 맘에 안 들었는지 하여간 왕창 바뀌었더라고. 섹스할 때 체위 바꾸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좀 느릴만 하면 바꾸고, 또 바꾸고... 딱칠 때도 너무 자주 바꾸면 싸대기를 맞는데, 백년지대계라는 입시 정책의 체위를 이렇게 험란하게 바뀌대는 나라가 또 있을까? 예고대라하면 원래 이번 달부터 <수능 신공> 국어영역 편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 올해 고 3인 내 사촌 동생이 과월호 <수능 신공>을 보고선 이렇게 싸부러더라.

### “형, 요새는 수시가 대세라 수능에 올인 안 해”

아... 이모닝엔 죄송하지만 이 새끼 아마 대학 못 갈 거야. 고딩 독자들 잘 들어. 요즘은 대학마다 별의 별 수시 전형이 난무하고, 무슨 놈의 입시 정책은 뻑하면 새 걸그룹 나오듯 신공을 발표해대니 너네가 정신 못 차리는 것도 당연해. 수시니 뭐니 잘못 주워들은 것 가지고 ‘내신만 열심히, 논술에 올인, 수시에서 어필할 수 있는 특별 활동과 수상경력에 집중한다’, 심지어 ‘수능 말고 특별한 거 한두 가지만 잘해도 대학간다’고? 우리 독자들은 대학에서 걸로만 떠드는 애기에 현혹되서 인생 조지지 말자. 오늘 형이 존나 명쾌하게 정리해 줄게. 그거 99% 구라라고 생각해. 대학들이 얼마나 입실한데 그걸 믿니? 너네 대한민국 1% 아니잖아. 대학교들은 지금도, 10년 전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야. 전국의 수험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웠을 때 최대한 앞쪽에 있는 애들을 뽑는 거.

### 내신의 함정

<고구려대 수시 모집: 내신 40%, 논술 40%, 면접 20%> 이런 거 보면 막 수능 시험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수능보다 내신, 논술, 스펙이 중요해진 것 같을 거야. 왜냐면 저 안에 수능은 1%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써 있으니깐. 그런데 저거 다 헛소리고 사실은 수능 점수로 뽑는 거라면 믿겠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입시에 있어 대학교들의 관건은

오직 ‘경쟁 대학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 데려가기’야. 대학 입장에서 내신 성적이나, 논술 실력이나, 수상 실적 및 각종 교외 활동 같은 모호한 스펙을 신뢰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 고교 내신 비중이 높아 보여도 풍통에서 특목고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사실상 내신 성적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 실제로 내신 성적 반영률 30%나 40%나 하는 전형들이 많지만 그 어떤 대학도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점수화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아. 30%나 40%나 하는 반영률은 결국 눈속임일 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니 내신이 좀 괜찮다고 수능 공부를 띄엄띄엄 했다간 종로대학이나 대성대학 15학번이 될 수도 있던 말이지. 뒤집어 말하면 니가 1, 2학년 때 내신을 X같이 말아먹었어도 아직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던 소리이기도 해.

### 그럼 우리 논술에 목을 맬까?

아니, 그러지 마. 무엇보다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를 믿지 마. 우리 MAXIM도 매년 대규모 공채 시험을 치고 신입 에디터를 선발하지만 자기소개서니, 작문 시험이니 굴질 하는 거, 그걸 죽~ 읽어보고 객관적으로 점수화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거든. 채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채점할 때 컨디션따라 다르고, 답안지 글씨따라 달라져.



**커졌다 작아졌다 하네?**

영어 듣기 평가 다시 17문제로 축소



수능으로 실전 영어를 뚫어주겠다고 듣기 평가의 비중을 50%(22문제)까지 늘린 지 1년 만에 다시 듣기의 비중을 17문제로 낮췄다. 괜찮다. 듣기 평가라는 건 원래 필수가 통하지 않는 강적이다. <수능 신공>의 핵심인 '일단 패스' 같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줄었으니 다행이다.

대학은 절대 이런 모호한 평가자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치 않아. 무엇보다 수천 장에 육박하는 답안지 텍스트를 교수가 앉아서 읽어 준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거든. 슬까말, 논술 시험은 제출한 답안지를 아예 채점도 안 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해. 이제 대학교에선 일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지. 니네가 열심히 쓴 논술 답안지 겹쳐서 그냥 쌓아만 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논술 시험장에서 스웱스 랩가사를 써갈기고 나와도 재수 줄으면 명문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논술 같은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

**스펙 쌓기? 나중에 취직할 때 토나오게 해**

공부 못해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한다라... 왜, 양동이 물 짹 채워서 니 거시기에 걸고 들었다 봤다 50번 같은 거 할 수 있어? 팔꿈치에 허 닿아? 우리나라 고등학생한테 '특별한 능력' 같은 거 없어. 그딴 건 진짜 0.1%에 해당하는 얘기고, 솔직히 있어도 잘 알아주지도 않아. 싸움 좀 하면 교수들 중에 자신 있는 새끼 하나 나오라고 하든지.

**결국은 수능이라고**

하지만 수능은 어때? 수능 시험이야말로 전국의 모든 학생을 객관적인 지표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

대학교별 입시 요강을 잘 간파하고 있는 똘똘이들은 이미 알겠지만, 결국은 수능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압실한 속내를 읽을 수 있어. 내신이나 논술, 스펙을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소위 '수시 모집'의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 봐. '내신 50%, 논술 50%' 어쩌구 하는 눈속임 뒤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라는 걸 달아 두고 있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란 건 내신, 논술, 수상 경력 같은 걸로 합격자를 선발한 후, 그 중에 수능 점수가 너무 수준 이하인 애들만 걸러내는 장치겠지?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야. 이름처럼 '최저' 기준 같은게 아니란 얘가지. 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자체가 넘기 존나 백세기 때문에만 그걸 넘는 지원자만 추려도 일추 모집 정원 정도만 넘거든. 큰 이변이 없는 한 합격인 거지. 이러니 논술 채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그냥 정시로 뽑지 뭐하러 수시 모집을 하느냐고? 수시 모집이란 게 표면상의 취지 말고 진짜 취지가 따로 있으니까. 수시라는 게 사실은 정시에서 수능 성적 우수자를 경쟁 대학에 뺏기기 전에 선수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나 할까? 결국 수시에서도 당락을 좌우하는 건 수능이다 이 소리지. 속은 거 같겠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말했잖아. 대학이 학생 뽑는 기준은 오로지 하나뿐이라고.

## 영어 영역 A형 폐지

“잘 안 팔리더라고.”



작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난이도 AB형 수능은 시행 1년 만에 뼈대기 시작했다. 전보다 쉬운 난이도의 A형 수능을 만들어 하위권 간의 변별력을 만들려고 했지만 영어 영역에 있어선 대부분의 대학과 학생이 B형을 택함에 따라 영어 영역은 다시 한 가지 난이도로 통일됐다. A형 택할 생각에 안심하고 있던 수험생은 뭘 개짓이나 하겠지만 너한테만 어려워진 거 아니야. 원래 (수능 신공)의 꿈수 효과는 좀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거든. 그리고 수학이야 1년 안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단어 10개만 더 외워도 점수가 오르는 게 수능 영어야. 세상에 원래 공부 잘하는 놈보다 못하는 놈이 더 많아. A형 노리다 뒤통수 맞은 애들이 베이스 싹 깔아줄 때 조금만 하면 등급 뺄 올라간다?

## 올해부터 수능 우선선발 제도 금지?

만약 ‘학과 외적인 특기, 소질과 다양한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학교 생활 성실성을 평가할 목적..’ 따위 표면상의 취지를 여태 믿고 있었다면 한 가지 단적인 증거를 제시해 줄게. 작년만 해도 대학교들은 수시 모집 전형 중에 은근슬쩍 ‘수능 우선선발 제도’라는 걸 만들어 두고 수능 점수만 높으면 내신 성적 같은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시켜왔어. ‘수시 모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지. 그리고 보면 정말 14년이 지나도 똑같네. 나 때는 ‘특차 입학’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전형이 있었거든. 문과 없고 수능 고득점자만 선발하려는 제도가 이름만 바뀌며 계속 존속되어 왔다는 거지. 내신은 별로지만 실력이 뛰어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서겠지. 그런데 나라에서 올해부터 수능 우선선발 제도를 금지시킨대. 대학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그래서 최근에 대학교들이 어떻게 했게?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들이 일제히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더 빠르게 올려버렸단니까? 어때, 이제 딱 드러나지 않니? 애들의 목적이 뭔지.

## 됐지? 이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가 변화시킨 2015년도 입시의 화두도 ‘수시 축소&정시 강화’야. 눈술이나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지양’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어. 사실 이런 불투명한 전형 덕에 뺏으로 대학 가는 개나리들이 생겨나서 입시 비리 잡음도 꽤 있었지. 심지어 올해 서울대가 드디어 정시 눈술을 전격 폐지한대. 고대, 연대도 눈술 전형 정원 자체를 줄이고, 눈술 성적 반영율도 줄인단대(거 봐, 원래 채점 안 하고 있었다니까?). 이러면 그 밑에 학교들도 다 따라가게 돼 있어. 결론은 괜히 대가리 복잡해져서 갈팡질팡 똥오줌 지리지 말고 수능을 존나 파란 얘기야. 본질은 절대 안 변해. 이제 와서 내신, 눈술에 목숨 걸어봤자야. 이미 1, 2학년 내신도 쌔먹었잖아. 오늘부터 눈술 학원에 돈 싸다 바친다고 갑자기 황석영되는 거 아니야. 글 좀 쓴다고 300 대 1 똥고 맥심 들어온 신인 에디터들도 지 밥값 정도 하는 데 고박 2년 걸리거든. 형이 공부 안 하고 점수 올리는 법 알려주잖아. <수능 신공> 다음 달부터 국어 영역 들어가니까 3월호 꼭 사고, 요 페이지만 찢어버린 다음에 나 라이벌한테 맥심 보라고 쥐. 시험 바로 전날, 알았지?

## 금주, 금연, 금욕



엄마가 대학 가기 전에 하면 머리 나빠진대...

#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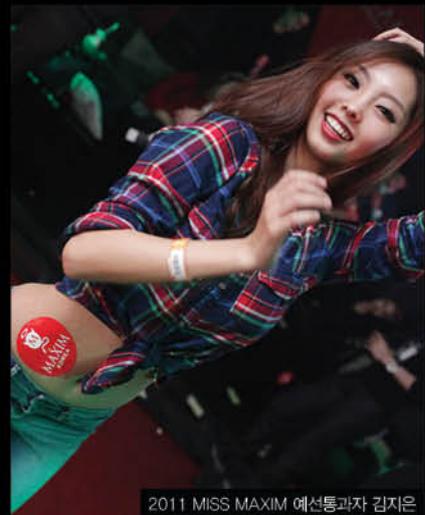
## The with MAXIM Party Christmas at SYNDROME



이날 MAXIM이 대령한 섹시한 산타  
누나들이 어떤 선물을 줬느냐면... BY 김희성



2013 MISS MAXIM 우승자 김소희



2011 MISS MAXIM 예선통과자 김지은



저작권법이니 뭐니 때문에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길거리에 그 흔한 캐럴송 하나 울려 퍼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그다지 실감나지 않았고, 어쩐지 삭막해져버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꽤 낯설게 느껴졌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게 예년보다 더 처량하게 느껴진다는 친구들의 뉘그러기가 이어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다. 그런 친구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위로했다.  
"야, 그만 징징대고 12월 20일 신드롬에서 보자."



2013 MISS MAXIM TOP4 이현지

신드롬은 요즘 강남에서 가장 핫하다는, 오픈한 지 얼마 안된 클럽이다. MAXIM은 12월 20일 금요일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예정이다. 이날도 어김없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특히 남자들은 곳곳에 포진해 있는 미모의 여인을 때문인지 상기된 표정이었다. 클럽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습하고 더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숨을 들이쉬자 환락의 향기가 온 몸의 세포를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다.



# Party



입장하자마자 '시원함의 끝 d'로 목을 축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시다 보니 어느새 꽤 취기가 올랐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술도 다 비워버릴 때쯤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중요 부분만 겨우 가리거나 엉덩이가 희히 보이는 섹시한 산타 옷을 입은 백누나들이 아찔한 춤사위를 선보이기 시작한 거다. 처음엔 취해서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것은 진짜 흔들리는 엉덩이였다. 게다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플라잉 댄스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그리고 MISS MAXIM의 등장, MAXIM PARTY에서 늘 가장 많은 환호를 받는 그녀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었다.





2010 MISS MAXIM 우승자 최혜연

헬게이트  
오픈!



2013 MISS MAXIM 준우승자 이아영

대부분의 퍼포먼스가 구색 맞추기식,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던 우리나라 클럽 파티에서 이런 고퀄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게 되다니, MAXIM PARTY 이기 때문에 가능한 스케일의 비주얼이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이성을 포시는 게 목적이던 외로운 사람들조차 이날만큼은 아무런 소독 없이 돌아가도 인생이 달게 느껴졌는지? 우리 이거 밸런타인데이에도 또 할까? ☺

# MAXIM BUYER'S EDGE

**바다 향이 물씬! 조르지오 아르마니 향수 기프트 세트**  
 전 세계 수컷의 사랑을 받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벨런타인데이를 맞아 아쿠아 디 지오 뿌르 옴므, 아르마니 코드 맨 두 종의 기프트 세트를 출시한다. 시칠리아의 상쾌한 바다 향을 담은 아쿠아 디 지오 뿌르 옴므를 구매하면 애프터 셰이브, 샤워젤을 함께 증정한다. 아르마니의 텍시도를 연상케 하는 코드 맨 세트엔 샤워젤과 파우치가 함께 들어있다. 시칠리아에 기분 적이 있어야 바캉스 기분을 알 텐데...누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각각 70,000~80,000원대, 조르지오 아르마니(www.giorgioarmani.com)



**엔도어즈표 전략 MMORPG <영웅의 군단>이 내 손안에 들어오다!**  
 다수의 전략 MMORPG를 흥행시킨 김태곤 사단의 엔도어즈, 그들의 대작 모바일 MMORPG <영웅의 군단>이 벅스를 통해 찾아온다. <영웅의 군단>은 120여 종의 영웅들을 육성, 지휘, 팀까지 구성할 수 있어 전략 전투의 재미를 모두 지녔다. 온라인 RPG의 길드와 길드전, 아이템 경매, 레어 아이템 강화 등을 모바일에서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최상의 그래픽을 위해 네 차례의 CBT를 진행했고,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파이널 CBT 진행 후, 정식 론칭은 2월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웅의 군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영웅의 군단(yg.nexon.com, cafe.naver.com/legionofheroes)**

**기회는 왔을 때 잡아라!  
 지금이 바로 훈남 변신 타이밍!**  
 대한민국 대표 성형외과 JK성형외과가 2014년 신년맞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비싼 수술비에 성형의 꿈만 꾸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JK성형외과를 방문하자. 날렵하고 오뎅한 코 성형, 풍성한 모발 이식, 사프한 안면 윤곽 시술 등 훈남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형수술을 할인하고 있다. 특히 2월부터는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 수술과 시술에 부가세가 적용되니 지금이 바로 훈남으로 업그레이드할 타이밍이다. 떠나버린 여자와 버스처럼 한번 떠난 기회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 놓치지 말자!  
**JK성형외과(02-777-7797, www.jkplastic.com)**

**2014 신년맞이 PREMIUM EVENT**  
 오직 올해에만 한 번 더 드리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  
 K-Beauty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고품격 JK성형외과의인 프리미엄 이벤트!

보톡스	매물 50 알트임 30	내추럴 코성형
6만 원	80만 원(당일 예약)	150만 원
물방울 가슴	전체윤곽	사각턱 광대 알턱
600만 원	690만 원	290만 원(당일 예약)
물광주사	맞춤 코성형	모발이식
19만 원	250만 원	89만 원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야**  
 www.couple2ya.com  
 검색창에 **커플이야** 를 검색해 보세요.

거품을 썩 뽀 유동 과정으로 제공하며 대한민국 커플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 자, 알겠지? 그녀가 원하는 건 흔한 초콜릿이 아니야! 초콜릿과 예쁜 커플링으로 그녀의 혀와 마음까지 한번에 녹여보자.  
**커플이야(070-8972-1250, www.couple2ya.com)**

**초콜릿만으로 그녀를 녹일 수 있겠어?  
 '커플이야'로 녹여봐**  
 크리스마스 고백을 실패했다면 다가오는 벨런타인데이를 노리자. 그녀가 다른 수컷들에게 받을 수많은 초콜릿 상자 속에서 단연 돋보일 수 있는 커플링을 준비했다. '커플이야'는 자체 공장에서 직접 만든 반지를 전광석화같이 빠른 배송과



**바른 만큼 멋있어진다. 아이오페 맨 에어쿠션 출시**  
 남자의 피부를 자연스럽게 보정하면서 자외선까지 차단하는 남성 전용 쿠션 자외선 차단제 아이오페 맨 에어쿠션이 출시된다. 남자들의 피부색과 비슷한 색이라 바른 티가 나지 않아 부담없이 바르기 좋다. 또 유분기가 적어 번들거리지 않으니 줄줄 개기를 흘릴 걱정도 줄었다. 멘틀 파우더를 함유해 청량감까지 느낄 수 있다. 면접이나 소개팅 등 나를 매력적으로 뽐내야 하는 날, 아이오페 맨 에어쿠션 바르고 굳게일확이 되어 비상해보자. 아니, 뭐 새 되란 건 아니구...  
**27,000원대(15g), IOPE(080-023-5454, www.iope.co.kr)**



초콜릿만 주기 아쉽다면,

스웨거 해피 밸런타인 세트를 함께!

남자도 선물 받기 당당한 날! 밸런타인데이가 왔는데 초콜릿만 받고 입 닦을 생각은 절대 금물! 스웨거가 남자를 위한 해피 밸런타인데이 세트 2종을 준비했다. 스웨거의 개성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상자에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카드가 함께 들어있어 그녀의 따뜻한 마음까지 느낄 수 있다. 스웨거 홈페이지에서 2월 14일까지만 판매하니 어서 컴퓨터 켜고 장바구니에 담아! 물론 여자 친구가 없다면 날 위한 선물로도 좋은 아이템이다. 그녀의 가슴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느껴보고 싶다~  
55,000원(샤워젤, 왁스, BB크림, 샤워볼 세트),  
64,000원(스마트 패드, 페이스 울티마이저 로션, BB크림, 오일 컨트를 필름 세트),  
스웨거(070-4618-3105, swagger.kr)



스타 파이터들의 불꽃 튀는 대결,  
UFC 169 올스타 퍼레이드

2월 2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리는 UFC 169에 거물급 스타 파이터들이 총출동한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를 이기고 페더급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제 알도 선수가 랭킹 2위 리카르도 라마스 선수를 상대로 6차 방어전에 나선다. 도미닉 크루즈 선수의 챔피언 자격 박탈로 밴텀급 챔피언이 된 헤난 바라오 선수와 유라이어 페이버 선수의 밴텀급 챔피언전 경기도 준비돼 있다. UFC 169 올스타 퍼레이드는 2월 2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액션 전문 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HD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수퍼액션(080-080-0780)



세상을 얻고 싶다면 삼국지를 배워라! <삼국지PK> 론칭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목이 말랐다면 주목하라!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 SRPG 장르의 <삼국지PK>가 찾아온다.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전략과 전술전을 펼치고 장수를 육성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실제 전쟁을 실감할 수 있는 <삼국지PK> 특유의 전투 시스템으로 리얼리티를 높였다. <삼국지PK>의 모델인 나인뮤지스가 특별히 준비한 '황건'의 난, '군웅할거', '삼분천하', '천하통일'이란 이름의 통 큰 네 가지 이벤트로 순금과 싸인볼 등 푸짐한 상품도 GET 해보자! 어플을 다운 받아라! 어서 출전을 서두르자!  
삼국지PK(cafe.naver.com/samgukjipk, sangugipk.efunkr.com/sangugipk3)



클럽에서 마시는 와인,  
FICHIMORI(삐끼모리) 론칭 파티 개최

지난해 12월 28일, 클럽 신드롬에서 클럽 와인시대의 막을 연 삐끼모리의 론칭 파티가 열렸다. 그레이트박(박명수)을 필두로 훈남 DJ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국내 최초 란제리 디자이너 브랜드 비나 레이 란제리가 함께 했다. 장미 향과 제비꽃 향이 풍부한 삐끼모리는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며 탄산음료와 섞은 피코(FICOCKE), 보드카와 섞은 피드카(FIDKA), 복숭아 리큐어와 섞은 피트리(FITREE) 등 다양한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삐끼모리는 2월 14일 MAXIM 밸런타인데이 파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아영FBC(ayoungfbc.co.kr)

건강한 2014년을 위하여! 하이트제로 0.00

연말연시 친구들과의 만남에 절대 빠질 수 없었던 술! 그 술 때문에 간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알코올만 쏙 뺀 음료 하이트제로 0.00으로 인맥과 건강을 챙겨보자. 알코올은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맥주의 시원함과 청량감은 그대로 유지했다. 산미, 감미, 향미 그리고 씹새로운 맛을 적절히 조화시켜 맥주의 맛을 재현해냈다! 특히 맥주의 상쾌한 맛과 풍부한 거품을 만드는 유럽산 아로마 호프와 첫 번째 맥아즙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이 넘치는 맥주의 풍미를 더했다. 무알코올이라 임신부, 청소년도 마실 수 있다! 맘 놓고 마셔~  
1,500원(355ml),  
하이트제로음료(hitejinrobeverage.com)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짝짝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라!

###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홈페이지  
전역 인증  
게시판



←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겠네.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가지

#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조부께서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MAXIM에 전역 신고만 하면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쓴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1명에게  
멋진 '블랙다이아몬드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응모 기한: 2014년 2월 20일까지)

# 전역자랑겔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이현진**  
잘 지내나,  
독수리들 형이  
드디어 전역했다!

믿기지 않아. 그냥 휴가 나온 기분이야. ㅋㅋ 너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니. ㅋㅋ 너희는 추위에 별별 떨며 작업할 때 선임은 너희 뒤편까지 열심히 집에서 잠이나 잘게. ^^ 군 생활이 말처럼 짧진 않으니 고생 좀 해라. ㅋ

평생 30%



**오기환**  
더 친해지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ㅠ0ㅠ  
나중에 모두 전역했을  
때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평생 30%



**신재화**  
28사단 81연대  
11중대 애들아,  
고생이 많다^^

평생 30%

솔직히 전역한 건 좋은데, 너희가 너무 보고 싶다. ㅋ 그리고 너희가 나 크리스마스에 전역한다고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나 자신도 좋아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다. ㅋ 아무튼 보고 싶다! 경भाव이 형, 승우 형! 힘내. ^^



**박민호**  
내가 부대에서  
나가면 정기  
구독한다고 계속  
얘기했지? 진짜 전역 인증하고 정기 구독  
1년 들어간다. 크리스마스에 이 형은 징글벨을  
울리며 애인처럼 데이트했으니 너희는  
훈련병들과 함께 제철작업을 열심히 해줘! ^^

평생 30%



**박현수**  
벌써 내가 전역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네.  
이제야 전역 인증을

평생 30%

한다. ㅋ 내가 너희한테 과월호를 보내주마. 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테니 나와서 밥 사달라고 해라. ㅎㅎ



**최태영**  
안 올 것만  
같았던 전역일이  
드디어 왔다. 막상

평생 30%

전역하니까 좋은데, 시원하고 설렘하네. 내가 갔으니 너희도 곧 전역 날이 올 것이다. "전역 언제 하지?"라고 한숨 쉬지 마라. 그날은 언젠가 오게 돼 있다. ㅋ 날씨도 추운데 바다에서 고생하는 너희에게 과월호 열두 권 선물하니까 이거 보고 힐링을 즐기도록! ^^



**김중수**  
안녕 문무대왕  
아가들아. 형님은  
잘 지내고

평생 30%

있다. 같이 고생한 게 잊고져 같은데, 이제 문무대왕과 서해는 너희에게 맡기고 난 유럽에 다녀올게. ㅋ 힘내라! 아가들아.



**박준형**  
후임들아, 혹시  
보고 있니? 겨울에  
눈이 안 내렸으면

평생 30%

하는 마음이다. ㅎㅎ 제설보다 더 짜증나는 게 없잖아? 군 생활 금방 간다. ㅎㅎ 형은 밖에 나와서 아주 좋다! 이수교 수승 4중대 파이팅! ^^



**김대욱**  
2014년 첫 전역자인  
대욱이 형이다. ㅋ 새해  
입출 본다고 새벽부터

평생 30%

산에 올라갔는데, 못 보고 전역해서 너무 아쉽네. ㅋ 막사 나설 때는 오던데 제설 열심히들 해! 새해 소원은 너희의 축하기를 위해 100년 만의 한파가 들이닥치기를 빌었어. ㅋ 부대 출발할 때 다들 마중 나와 줘서 감동되었고, 사진 한 장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웠어. ㅋ 다음 정찰 고마왔어! 다들 힘내! 사랑한다! 3623부대 파이팅!



**김병명**  
와, 나도 전역  
인증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평생 30%

정말 몰랐는데, 너희랑 약속한 게 생각나서 새해 새벽에 전역 인증을 하고 있다. ㅋ 거기선 새해가 밝았다고 또 대형소하고 있었지. ㅠㅠ 곧 또 축하기 한담시고 바빠질 텐데, 조금만 더 고생해라. 내가 지금 전역한 지는 6일밖에 안 됐지만, 애들이 거긴 정말 아니야. 바깥이 짝이! 얼른 나와. ㅋ 거기서 뭐 해? 축하기 훈련 무사히 마치고 MAXIM 과월호 보면서 위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P.S. 경진인, 준희, 인치, 황태, 창우 형, 쌍성민, 준성이 등 1생활관 애들이 몸 사리다 건강히 나와! ㅋ



**이재현**  
자식들아! 형은 먼저  
간다. 1소대에서  
난 만화책 제공자

평생 30%

혹은 MAXIM 제공자였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누가 MAXIM을 수집하겠니? 뒤를 아를 누군가가 나타날길 바란다. 오새 날씨도 너무 춥고 일도 많아 힘들겠지만, 힘들고 바빠수록 시간도 빨리 가더라! 여차피 서울 사는 거 너희 생각날 때 담 다리 사서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힘내고 나한테 속상한 거 많았던 애들은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1소대 파이팅!



**백승운**  
잘 지내고  
있느냐? 그래  
백 형이야! 요즘

평생 30%

눈 치우느라 힘들지? 뭐 힘들어 열심히 할 편이지! 이놈들아! ㅋ 장난이고, 날도 추운데, 수고야 많다. 이제 한 달 남은 희승이는 조금만 더 참고, 원민이는 눈 조심해라. 시간 금방 간다. 동재호, 준수이, 음... 미안하다. 이름 까먹었다. 동국대! ㅋ 너희는 답이 없다. 그냥 단념하고 열심히 해라. 내가 보내주는 선물 보면서 남은 군 생활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고 전역해라! 그리고 건질 수 있을 때 건져라. ㅎㅎ

위 12명을 비롯한 총 33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 구독 평생 30% VVIP가 되었다!

# Unpicked

## 이달의 몸쓸 사진

삼 일 밤 이불을 걷어찰 만큼 아까운 사진



이 달의 몸쓸 후보



**수능신공(p.162)** **못 쓴 이유** 조용재 에디터를 진짜로 때렸더니 그의 부하직원인 박정욱 에디터가 진심으로 즐거워 하는 표정이 포착되어서.



이 달의 몸쓸 카디건



**ICON 봉만대 감독(p.112)**

**못 쓴 이유** 크고 아름다운 거시기를 대놓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역시 예로 거장의 위용은 남다르군



이 달의 몸쓸 설정

**MOTOR 지프 그랜드 체로키 시승기(p.102)**

**못 쓴 이유** 아산에서 몰래 똥 싸다 걸린 사람 같아서.



이 달의 몸쓸(고마운) 시선 1



**표지 모델 나비 화보(p.116)**

**못 쓴 이유**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게 돼서. 언니, 그만한 건 어디서 팔아요?



이 달의 몸쓸 비율



**MUSIC 리듬파워(p.126)**

**못 쓴 이유** 오른쪽 다리를 굽힌 모습이 찍혔는데, 비율이 <오스틴 파워>의 미니마일이 나와서. 4등신이네!

나?



이 달의 몸쓸 맥주



**DRINK 맥주 시음기(p.70)**

**못 쓴 이유** 맥주가 모델을 살짝 가려서 자꾸 나쁜 상상이 든다.(꿀꺽) 아, 목이 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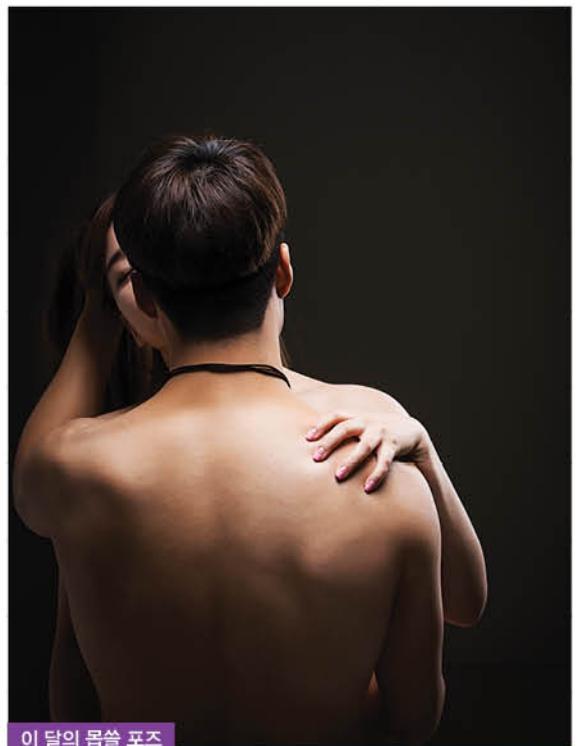
좀 보여 수아!!!

이 달의 몸쓸 시선 2



**수능신공(p.162)**

**못 쓴 이유** 어쩐지 저 새끼가 뜯금없이 펜을 떨어뜨린다 했는데 김수아 벼자가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었나?



이 달의 몸쓸 포즈



**SEX For Ladies(p.64)**

**못 쓴 이유** 연기 치곤 너무 리얼한데? 눈까지 풀릴 건 없다고.

# Fortune Telling

## 타로로 점치는 이달의 고통은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다. 매도 몇 대 맞을지 알고 맞으면 더 낫다고, 당신이 이번 달 겪을 고통을 미리 스포해주겠다!

BY 타로마스터 정희도(www.tacaso.net)

다음 중 당신의 상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한 장을 고르시오.



타로 마스터의 친구누설



타로마스터 정희도

- 전 마이더스 학원 운영
- SBS 공채 10기 개그맨 활동
- YBM, 파고다 타로 취업 특강 강사
- 타카스(타로 카드 소울 메이트) 운영



### ◆ 타로 풀이 보기 ◆

**CARD 1** 발 앞에 쓰러진 컵 세 잔을 보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자. 이미 옆질러진 물에 망연자실한 나머지 두 잔의 컵을 보지 못했다.  
**풀이:** 이런 욕심쟁이! 당신은 놓쳐버린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거다. 아직 남아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기 싫다면 얼른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라. 아수신 장군은 말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CARD 4** 시체치곤 너무 정갈하게 누워 있는 한 남자. 죽은 거야 만 거야? 손을 바짝 세우고 있는 걸 보니 죽은 건 아니다. 다만 그는 위아래로 놓인 칼에 찔릴까 봐 계속 한 자세로 있다. 어느새 그 자세가 편해져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풀이:** 먼저 같은 존재감. 당신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기분이 들어 고통스럽다. 계속 잠만 자는 게 지루하지만, 너무 익숙해진 탓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남들은 당신을 죽었다고 생각할 거다. 뭔가 흥분할 만한 일을 만들어라. 얼른 자리를 박차고 발딱 일어나라.

**CARD 2** 눈 내리는 더럽게 추운 날, 신문지만도 못한 누더기를 걸친 두 남자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너무 춥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바로 옆에 있는 따뜻한 교회의 창문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풀이:** 통장이 빵꾸났나? 주변에 여자가 가뭇민인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뭔가 계속 초라하고 궁핍하다고 느낄 거다. 그게 바로 당신의 고통. 사람이 절박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분명 주변에 당신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많으니 주변을 돌아볼 것.

**CARD 5**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바짝 긴장한 남자. 머리에 붕대를 감은 걸 보니 많이 지친 듯하다. 하지만 눈빛에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저렇게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풀이:** 지금까지 열심히 산 당신. 그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동안 들인 노력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 한 발짝 더 나아가갈 여력이 없어 그저 버틴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고 있다. 어느새 그 고통에 익숙해졌겠지만, 과연 그 고통으로 얻는 보상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지 되돌아보도록.

**CARD 3** 눈과 몸이 묶인 채 갇혀 있는 여자. 하지만 자세히 보면 주변의 칼이 그녀를 완전히 가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감시하고 있지도 않다. 여자는 스스로 눈을 묶고 고립된, 셀프 결박 플레이 상태.  
**풀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지오디의 ‘갈’이라는 노래처럼 당신은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 고민이다. 이런 경우는 별것도 아닌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남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자.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다.

**CARD 6** 한 남자가 두 사람의 칼을 모조리 빼앗고 비열한 미소를 띠며 서 있다. 아주 냉혹하게 상대방을 짓밟은 것 같은 그 남자는 웃고 있지만, 사실 뒤의 두 사람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어 보인다. 이 셋 중 승리자는 아무도 없다.  
**풀이:** 이번 달 당신은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릴 수도,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때린 사람도, 맞은 사람도 둘 다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 오히려 때린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플지도 모른다. 맞은 놈은 발 뺀고 자도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 배신 때리면 당신이 더 큰 손해를 볼 거다.

# MAXIM

KOREA

## ICON

### 영화감독 봉만대

어로 거장과 MAXIM의 문화 산책

#### <떡국열차>, 어떻게 되어 가나?

전문가의 눈에 비친 요즘 야동은?  
수애를 섭외하고 싶다는 건 진심인가?  
당신에게 섹스는 00다?  
(우, 물론 이런 애로한 얘기만 나는 건 아니야)

## HOT ISSUE

캡틴 박지성, 국대 복귀 왜 난리  
대입 수시 전형의 거짓말  
인터넷 성매매가 잡히는 이유

## WATCH

남자 성욕 자극하는 여자 시계  
스타일리시 커플 시계, 애인 없으면 양팔에 차

## 13 ULTIMATE WINTER OUTDOOR GEARS

아웃도어 로맨스가 절로 피어나고, 위험한 겨울  
산행에서 목숨 건져줄 기적의 아이디어 기어 13선

## MILITARY

본격 밀리터리 맞쟁!  
총 VS. 방탄복, 누가 더 세?

## MUSIC

똥끼충만 힙합 트리오  
리듬파워

FEBRUARY 2014



www.maximkorea.net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AXIM**  
KOREA